

博士學位論文

# 濟 州 島 民 謠 研 究

－ 女 性 勞 動 謠 를 中 心 으 로 －

金 榮 敦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2

博 士 學 位 論 文

# 濟 州 島 民 謠 研 究

- 女 性 勞 動 謠 를 中 心 으 로 -

金 榮 敦

指 導 教 授 李 內 疇



이 論 文 을 文 學 博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1983年 4 月 日

金 榮 敦 의 文 學 博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1983年 6 月 日

委 員 長

金 起 東

委 員

任 東 旽

委 員

張 仁 圭

委 員

金 成 배

委 員

丁 益 燮



東 國 大 學 校 大 學 院

## 目 次

|                            |     |
|----------------------------|-----|
| I. 序 言 .....               | 1   |
| 1. 研究의 目的 .....            | 1   |
| 2. 民謠의 屬性 .....            | 2   |
| 3. 濟州島民謠의 背景 .....         | 7   |
| 4. 研究의 範圍 .....            | 9   |
| II. 濟州島民謠의 分類 .....        | 12  |
| 1. 民謠分類의 基準 .....          | 12  |
| 2. 濟州島民謠의 分類 .....         | 15  |
| 3. 濟州島勞動謠와 女性勞動謠의 位置 ..... | 18  |
| III. 濟州島 女性勞動謠의 實相 .....   | 32  |
| 1. 멧돌·방아노래 .....           | 32  |
| (1) 背 景 .....              | 32  |
| (2) 傳承·傳承者 .....           | 33  |
| (3) 唱 法 .....              | 38  |
| (4) 題 材 .....              | 46  |
| (5) 內容·表現 .....            | 49  |
| 2. 海女노래 .....              | 67  |
| (1) 背景·分布 .....            | 67  |
| (2) 傳承·傳承者 .....           | 74  |
| (3) 唱 法 .....              | 76  |
| (4) 機能·題材 .....            | 86  |
| (5) 內 容 .....              | 94  |
| (6) 表 現 .....              | 108 |

|                               |     |
|-------------------------------|-----|
| IV. 濟州島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 | 112 |
| 1. 民謠와 住民意識 .....             | 112 |
| 2. 濟州島史와 島民生活 .....           | 115 |
| 3. 民謠의 分類로 본 島民意識 .....       | 124 |
| 4. 民謠의 內容으로 본 島民意識 .....      | 126 |
| V. 韓國民謠에 있어서의 濟州島民謠의 位置 ..... | 138 |
| VI. 結 論 .....                 | 140 |
| 參考文獻目錄 .....                  | 145 |
| Summary .....                 | 151 |

## I. 序 言

### 1. 研究의 目的

濟州島는 외로이 떨어진 섬이므로 그 地理・歷史・社會가 유달라서 희귀한 學術資源이 무한량 散在해 있다. 民謠 또한 本土에서는 전해지지 않는 특유의 자료가 이 섬에 전승됨으로써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을 끌아 왔다.

濟州島民謠의 聲價는 옛부터 알려졌던 듯, 高麗 恭愍王 때 李齊賢의 《益齋小樂府》에서도 〈耽羅民謠〉가 보인다. 이 민요에 대한 자각적인 수집은 1920년대 이후 國學의 胎動과 함께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光復 이후의 일이다. 국내 다른 지역보다 제주의 민요 수집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 몇몇 集成을 대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傳承者는 나날이 사라지는데, 아직 채집을 기다리는 태산 같은 자료가 放置되어 있어서 실로 아쉽기 그지없다. 더구나 제주도민요의 이론전개는 체계가 서 있질 못하다. 이는 한국민요 전반에 대한 이론체계가 잡혀 있지 못한 데도 그 까닭이 있겠다.

필자는 태생지의 口傳文學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이 나라 文學과 民俗學研究에 이바지하려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쳐왔다. 수집의 많은 어려움과 方言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사설 해석에 곤혹이 따랐고, 더구나 創作詩와는 달리 민요에는 民間生活 전반이 깔린다는 점에서 여러 갈래 勞動謠의 배경조사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보았다. 곧 〈海女노래〉의 배경연구를 위해 십수년간 海女를 추적하여 왔고, 〈양태노래〉・〈탕전노래〉・〈망전노래〉의 연구를 위하여 갯일 조사를, 〈연자매노래〉의 배경인 연자매(불방애・불자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조사보고서들을 내어 보기도 했다.

물론 민요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背景研究까지 동시에 병행해 나간다는 일은 벅찬 일인 줄 안다. 세월이 흐르면 海女나 冠網 등을 연구하려는 同學들이 불어나 연구가 분담되리라 기대하는 한편, 민요연구의 체계적 방법도 제시되리라 믿으면서 산발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나 非體系인 연구는 학문일 수 없으며 완벽한 작업만을 표방한 채 오랜 세월 바자님도 무모하다는 생각에서 우선 제주도민요의 實相을 최선의 방법에 따라 입체적으로 밝혀 보려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역 민요의 實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렵고도 많은 과제가 따른다. 여기서는 우선 제주도민요의 全貌를 鳥瞰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分類와 勞動謠의 분류를 시도하려 하며, 민요를 종류별로 분석하려 한다. 이런 작업이 先行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분석만을 일삼음은 마치 수풀 전체의 眞面을 외면한 채 나무 하나하나를 운운하듯 어리석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민요를 분석할 수는 없겠고, 代表謠種으로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를 택했다. 그 비중으로 보아 이 두 민요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단행본 몇권씩에 이를 만큼 상당량의 작업이어야 하겠기, 여기서는 立體的인 現場論的 實相을 보이는 데 머무를까 한다. 아울러 짓곳은 역사의 흐름에 부딪치면서 살아온 도민들의 存在樣相을 민요를 통하여 조명해 보려 한다.

## 2. 民謠의 屬性

이제까지 ‘民謠’라면 언필칭 “民族의 얼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綜合藝術이요 향토적인 노래”라는 투의 상식적인 말로 定義되고 설명되기 일쑤였다. 이런 막연한 규정만으로는 그 屬性을 밝히기에 미흡하므로 民謠가 지니는 성격을 뚜렷이 해 둘 필요를 느낀다.

민요는 庶民들에 따라 形成, 發展, 享有되는 가락과 기능이 融和된 노래로서 庶民生活 全般과 直結되는 가장 서민적인 口傳文學이다. 가락이 위주이면서 사실과 기능이 함께 따른다는 점이 說話·俗談 등과 판별되

는 민요의 속성이다. 音樂・文學・動作이 三位一體的으로 口演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노래하는 사이에 자신의 삶을 새로이 확인하고 서로 鼓舞하면서 日常의 喜悲와 生活意欲을 거듭 환기한다.

민요의 범위는 실로 광활하다. 口傳民謠에다 創作民謠를 포괄하기도 하며, 童謠를 함께 묶는가 하면 歐美에서 수집, 연구되어온 鑛夫・鐵路工・紡織工 등의 產業的 民謠와 도시 대학생들에 따라 번지는 노래까지 포용하기도 한다.<sup>1)</sup>

민요의 사실은 모든 口傳文學이 그렇듯 서민공동의 참여로써 이루어진다. ‘民謠’의 ‘謠’는 ‘謠言’・‘謠俗’・‘謠傳’이란 말에서 확인되 듯이 집단성을 드러내는 바, <詩經>에서 “合曲曰歌 徒歌曰謠”라 했음도 또한 민요는 집단의 노래이면서 樂器의 伴奏가 없음을 뜻한다. 곧 “有章曲曰歌 無章曲曰謠”이다. 그러니까 曲에 맞춰 부르면 歌요, 함부로 사설을 붙여 부르는 노래는 謠인데, 章曲이 분명하면 歌요, 일정한 章曲이 없으면 謠다. 더우기 謠는 여러 입에 맞는 장단에 어울리게 속절없이 불러대는 노래를 말한다.

민요는 반드시 口演(performance)을 전제하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민요는 오랜 세월 전통적인 장단에 맞춰 서민의 여러 입을 거치면서 이룩된 再創造의 蓄積이요 그 結晶이다. 민요는 모든 民間傳承이 그렇듯이 實演(口演・演戲)될 때라야 진실로 민요로서의 生命을 지닌다. 口傳文學에서 口演을 注視하기는 근래의 일이다. 口演은 口傳文學을 현실적으로 實體化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口演의 형식은 기록화된 詩語 이상의 뜻을 지닌다.<sup>2)</sup> 口演者는 제 뜻에 따라 再創造할 수도 있으며, 자신

1) George List, “Folk Mus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 365.

2) ‘Performance’ in oral literature has till recently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the element which oral poetry more closely shares with written poetry-the text. But, performance can play a crucial part in the actual realisation of this poetry as literature: for its full form is more than meaningful words on a piece of paper or in the poet’s mind.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121)

이 口演하는 잠간 동안은 바로 詩人인 것이다.<sup>3)</sup>

민요는 說話・俗談 등과는 달리 그 기능이 두드러져서 서민생활과 具體的으로 直結된다. 민요는 전해져 내려오는 한 지역의 서민생활 모든 領域을 사뭇 정확하게 집약한다. 지역 마다의 地理・歷史・社會・慣習・生産・經濟・信仰 및 心意現象 등 서민생활 전반이 口演되는 한편 한편의 사실 속에 凝縮된다. 서민은 대체로 노동이나 의식을 치르면서, 일상 생활의 필요에서 노래하게 되므로 민요는 그들의 생활과 밀착된다. 민요가 특히 서민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노동과 직결된다는 점은 어디서나 勞動謠가 민요의 핵심을 이룰 뿐더러, 민요가 노동요에서 시작되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은 민중생활 전반이므로 노동을 외면한 農漁民이란 상상할 수 없다. 민요의 機能性은 다른 구전문학과 판별되는 민요의 특성이요 生命力이다. 서민들은 싱그럽게 노래하며 일하는 사이에 슬기롭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한편, 옹골차게 살아가려는 의욕과 보람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 민요는 서민생활과는 무관하게 죽어 시들어 버린, 化石化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이는 큰 착각이다. 민요는 오늘도 싱싱히 살아 있으면서 서민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다. 민요를 부르는 사이에 농어민들은 苦難의 삶을 이겨내는 意志를 굳히면서 서민들 스스로를 激勵한다. 많은 노동요가 노동과는 동떨어진 채 불리거나 그 작업마저 사라져 버린 경우가 흔하지만, 그 민요에 담긴 정신은 서민의 마음 깊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生動한다. 민요 各篇(version)은 서민의 手足이요, 血脈이요, 實態요, 生活인 것이다. 識者層, 특히 學者에 이르기까지도 민요를 포함한 口傳文學에 대하여 化石, 殘留, 遺物, 舊習, 骨董, 保守, 反時代, 脫歷史, 不合理, 怪奇, 原型, 蕪雜, 卑陋 등의 개념을 연상하거나 非音樂, 非文學(非文法), 無知의 것으로 간주하면서<sup>4)</sup> 그 實相과 眞貌를

3) In the end, it is the performer who is the poet-for the brief moment that he performs. (Paredes, *Some aspects of Folk Poetry*,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6. 1964, p. 225)

4) Kenneth W. Clarke, Mary W. Clarke; *Introducing Folklor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3, p. 58.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 짙다. 민요 各篇은 그 민요를 부르는 지역 구성원 전원의 共通 特質의 표현이다. 민요가 오늘날의 삶과 무관하다는 錯解는 그 가락의 단조로움에서도 基因한다. 音樂的 배경보다는 서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바탕에 깔 것이 민요이며, 단조롭고 덜 세련된 가락이라 하더라도 그 가락은 민간예술에 은연히 內在하여 흐른다.

서민들에 의해서만 불리는 민요는 철저히 서민적이다. 민요를 부르고 즐기는 일은 서민들만의 일이어서 貴族은 상관하지 않는다. 귀족들은 說話・俗談・수수께끼・판소리등에는 참여하지 마는, 민요를 부르는 데는 외면했다. 18 세기에 이룩된 國文學의 새로운 장르인 판소리도 서민적이긴 했지만, 兩班 역시 청중 속에 끼어들어 이를 즐겼으니, 판소리의 唱者인 광대들은 서민의 생활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양반의 趣向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철저히 서민적일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민요야말로 口傳文學 가운데서도 유독히 서민들만이 부르는 서민의 예술이다.

그 機能이 두드러지고 사뭇 민중적인 것이 민요의 屬性이므로, 민요 각편에는 그 민요가 불리는 地域性이 또한 짙게 깔린다. 지역에 따라서 민요의 분포 상황이 다른가 하면, 같은 노래라도 그 사실이나 가락, 口演方法 또한 다르다. 지역마다 서민생활에는 그 濃度가 어떻게든 그 나름의 個性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내용에 대한 지역적 해석에 주력해야 하며, 일반적 의미의 詩歌의 직능보다 이를 형성하는 文化的 特殊性에서 시가의 구실을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sup>5)</sup> 本土에서도 좀 물리긴 하지만 뛰어난 사실이 것처럼 술하게 쏟아지는 제주도의 <맷돌・방아노래>는 그 類例를 다른 곳에서 찾을 길 없으며, <海女노래>를 비롯하여 <밭밟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마소 모는 노래>・<멧목 젃는 노

5) A further point worth noting is the significance of local interpretations, of a poem or of poetry generally. This too needs to be considered, not just the role of poetry in general terms, abstracted from the particularities of the culture in which it occurs. (Ruth Finnegan; op. cit., p. 235)

래>・〈나무 내리는 노래〉・〈꿀 베는 노래〉・〈양태노래〉・〈탕전노래〉・〈망전노래〉・〈방앗돌 굴리는 노래〉・〈불미노래〉(토불미노래・디덤불미노래・뚝딱불미노래)・〈집줄 놓는 노래〉・〈짚 두드리는 노래〉 등은 特有의 生業과 함께 제주도에에서만 전해지는 노래다. 따라서 민요에 대한 地域的 해석과 지역적 哲學의 根底究明이 필요하다. 지역적 宗教信念, 特定的 社會的 經驗, 象徵體系 등에 근거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요는 비교적 自足的이다. 口傳詩歌는 視點으로 보아 세가지 표현양식이 있으니, ①第三者에게 대하는 형식, ②自身을 향한 獨白, ③對話의 형식 등이다. 이 세요소 가운데 그 어느 하나만이 口傳樣式일 수는 없고, 이 세 요소는 共生하는 터인데<sup>6)</sup>, 그 중에도 獨白이 흔하므로 민요는 대체로 抒情的이다. 또한 설화・판소리・수수께끼 등은 청중이나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마는, 민요는 唱者 스스로의 필요성에서, 唱者 스스로가 즐기기 위해 부르므로 自足的이라 할 수 있다. 本源的 民謠<sup>7)</sup>의 提報者들은 歌唱에는 非專門인 범상한 농민들이며, 唱者와 聽者 또한 대체로 同質的이어서 함께 부르며 즐길 수 있다. 雜歌인 경우는 노래에 능숙한 소리패가 부르기 때문에 專門的이며, 광대가 판소리를 부르거나 무당이 巫歌를 부르는 경우 또한 전문적일 뿐더러, 歌唱이 곧 생업이기도 하므로 일반서민이 부르는 민요와는 그 바탕부터 다르다.

민요는 가락과 사설과 기능이 얼버무려진 채 口演되는 특질을 지닌다.

6) Another aspect to explore is the mode of expression in oral poetry; whether, for instance, the poem is presented in the third person, as an address to another person or object, a soliloquy in the first person, or a dialogue, and so on. Some writers on the subject suggest that one (or another) of these is the appropriate oral mode, but all occur. Which of them is appropriate to which genre and occasion may be differently defined in different cultures. (Ibid., p. 116)

7) ‘本源的 民謠’라 함은 이른바 專門的, 職業的 소리패들이 부르는 雜歌(俗歌) 따위를 除外한 狹意의 민요를 뜻하는 말로 썼는데, 勞動謠를 비롯하여 儀式謠, 舞謠・遊戲謠 및 고유의 唱民謠를 포괄하는 뜻으로 내세워왔다. 이 글에서의 논의대상은 한결같이 本源的 民謠에 국한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민요의 연구는 가락, 사설, 기능 전반에 걸친 고찰이 한결 같이 필요하며, 그 어느 한면에 관점을 둘렀을 때, 音樂的, 文學的, 民俗的 고찰이 제각기 이루어진다. 민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세측면의 연구가 다같이 緊要한 것이니, 不可分離性을 띤 이 三角的 고찰은 각기 전공자끼리 분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요는 또한 社會慣習, 態度 및 信念을 밝히는 데 귀중한 洞察力을 제시해 주며, 言語學者들에게도 유용하게 이바지한다. 물론 그 자체가 文學이요 音樂이지만, 다른 文學・音樂 및 歷史연구에도 그 방법과 제재로서 기여할 뿐더러, 생동하는 예술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도 드높다.<sup>8)</sup>

### 3. 濟州島 民謠의 背景

제주도민요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제주도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韓半島 最南端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休火山島다. 行政上으로는 濟州島와 그 부속도서 및 楸子群島로 이루어졌다. 木浦와의 거리가 약 91 마일이고, 釜山과는 약 169 마일 떨어져 있다.

1825.53  $km^2$ 에 이르는 본도의 면적은 巨濟島의 약 5 배, 鬱陵島의 약 25 배에 해당된다. 섬 한복판에는 1950 m의 漢拏山이 우뚝 솟아 동서로 73 km, 남북으로 31 km나 뻗어내렸다. 漢拏山 주변에는 3 백 수십에 이르는 群小寄生火山들이 흩어져 있다. 地表는 거의 玄武岩層으로 덮였으므로 常流河川이 드물어 발농사가 대부분이다.

연평균 기온이 15.1°C(1982)인 본도는 사철 따뜻해서 가장 추울 때에도 영하 6°C를 내린 적이 없다. 비는 자주 내리는 편이라 연평균 降雨量이 1440 mm에 이른다. 이른바 ‘風多의 섬’으로 알려졌다시피 한겨울 몰아치는 北風은 10 m/s를 넘을 때가 많다.

본도는 2市(濟州市・西歸浦市) 2郡(北濟州郡・南濟州郡), 6邑 5面の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상의 洞里數는 190 이고 자연부락의 수효

8) Kenneth W. Clarke, Mary W. Clarke; op. cit., p.58.

는 557이다. 1982년 10월 1일 현재 본도의 인구는 47만 3천 9백 6십 7명(남 230,767명, 여 243,200명)이며 주산업은 農畜產・水産業 등이다.

近者 涯月邑의 ‘빌레못굴’ 발견으로 제주도의 역사는 舊石器時代로 치 올라 간다. 제주시내의 三姓穴에 감도는 三姓神話가 島史의 개벽으로 설화되어 왔고, 오랫동안 ‘耽羅’라는 독립국가가 유지되어 온 듯하다. 三國時代에는 新羅・百濟와도 활발히 통교하면서 方物 등을 바쳤었던 기록이 나타난다.

高麗 肅宗 10년(1105)에는 ‘耽羅國’이 ‘耽羅郡’으로, 毅宗 7년(1153)에는 다시 耽羅縣으로 되어 처음으로 耽羅令 崔陟卿이 파견되었었다. ‘濟州’로 개칭된 것은 忠烈王 21년(1295)이었으며 元宗 14년(1273) 본도에 들어온 三別抄가 麗蒙연합군에 의하여 토평된 뒤, 元나라는 거의 1세기 동안 耽羅總管府를 두어 직접 지배하였었다.

朝鮮朝에 들어오면서 본도는 아주 중앙정부의 行政權속에 묶였다. 太宗 16년(1416)에는 방위의 효율을 위하여 山北에 濟州牧, 山西南에 大靜縣, 山東南에 旌義縣을 설치하였다. 倭寇의 노략질도 엄청났으며, 倭侵에 대비한 縣城 築城등은 도민들의 고된 賦役이었었다.

環海孤島인 이 섬에 파견되는 京來官들은 거의가 苛斂에만 몰두하였었다. 생존을 위해 도민들은 본토로 도망쳤던 일이 한동안 벌어졌었으며, 때로는 虐政에 반발하는 소요도 일었었다.

高宗 연간에는 본도 행정체제에 많은 굴곡이 보인다. 大靜・旌義兩縣이 郡으로 승격되어 직접 全羅道 觀察使의 관할 밑에 두었다든지, 濟州牧이 府로 개편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1914년에는 大靜・旌義 兩郡이 폐지되어 濟州郡에 포괄되었고, 楸子島도 莞島郡으로부터 移屬되었다. 1915년에는 郡制에서 島制로 개편되었고 1946년에는 全羅南道 관할에서 벗어나 道로 승격되었다.

#### 4. 研究의 範圍

근래 民謠・說話 등 口傳文學에 대한 수집과 연구열이 드높아 간다. 그것은 主體性, 곧 이 겨레의 自己同一性(identity)을 확인하려는 거센 추세와 한국문학의 범위를 記錄文學이란 울에서 뛰어넘어 無記錄의 口傳文學까지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밀받침되는 因果로 안다. 국내 어디서든 그 열의가 드세어 감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각지역 단위의 민요와 설화를 충실히 錄音, 採錄, 採譜하는 先行作業마저 실로 氷山의 一角에 머문 실정이다. 韓國民謠의 경우 다른 구전문학보다는 자료가 상당히 수집되어 그 集成만도 여럿 나온 편이기는 하지만, 그 理論定立은 설화와 판소리 등에 비해서도 훨씬 뒤졌다.

민요 연구가 뒤지는 까닭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우선 민요 자체의 속성 때문에 東西 어느 민족이건 통용되는 보편적 이론이 정립되기 힘들며, 정립된 이론이더라도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의 민요 분석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 줄 안다. 민요는 지역민의 생활전반을 드러내는 地域性이 두드러지므로 어디서든 통용되는 보편적 이론은 적용할 여지가 좁다. 민요 各篇에는 그 지역 전반의 생활, 곧 지역 나름의 社會組織・生産形態・慣習・衣食住・信仰・藝術 등이 凝縮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요연구는 제주도민요, 경상도민요 등 지역단위로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여 우선 그 實相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부터 절실히 요청된다. 곧 한 지역의 민요를 〈모내는 노래〉・〈海女노래〉 등 노래 종류별로 그 사실과 가락 및 口演・傳承實態 등을 지역 주민의 生活實態와 意識과의 상관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彈丸海島’ 濟州의 珍貴한 민요에 대한 녹음, 채보, 채록작업의 과제는 아직도 漢拏山만큼 쌓였으며, 민요 종류별 분석과 이론전개는 正道를 못 찾은 채 울창한 수풀길 같다.

따라서 제주도민요 연구를 위한 급선무는 귀중한 자료를 現場論的(contextual) 방법에 따라 충실히 채록하는 일이다. 충실한 자료가 확보

되면 무엇보다 앞서 노래 종류별로 그 位相・分布・傳承實態・傳承者・唱法・機能・題材・內容・表現 등 바람직한 항목에 따른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본다. 다른 모든 지역의 민요 연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료 각편에 대한 文學的 분석이나 그 배경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그 다음에 올 작업이라야 할 줄 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채집한 자료와, 자료를 직접 접해온 체험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요의 실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女性勞動謠에 국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까닭은 여성들의 숭한 노동요가 제주도민요의 중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女性勞動謠 중에서도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를 분석대상으로 택하였음은 이 노래들이 제주도민요의 宗家라고 확신한 데서다. 우선 제주도민요, 특히 勞動謠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를 시도하려 한다. 그 까닭은 제주도민요의 位相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밝히려는 데 있다. 또한 민요의 사실을 통하여 지난날 濟州人들이 칠혹과 같은 어둠 속에서 부딪친 실정과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살아온 지혜와 창조력을 확인하려 한다. 이는 곧 濟州民의, 濟州民다운 生活樣式과 存在樣相을 파악해 보려는 한갓 시도일 따름이다.

文字로 쓰인 記錄文學만이 문학이라거나, 기록문학은 口傳文學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는 견해가 타당할 수 없음을 필자는 이 논문에 인용되는 자료를 통하여 立證하려 한다. 아울러 민요는 文學의 宗家일 뿐이라든가, 기록문학의 淵源을 살피는 데 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錯解에 승복할 수 없다는 점과, 민요는 獨自의 성격을 띤 채 과연 韓國文學의 한복판에 올려앉힐 만한 位相을 지녔다는 확신도 이 논문을 통하여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외국학제에서도 민요연구는 부진한데다가 국내에서도 알뜰한 《韓國民謠概論》 한권 못 갖춘 실정이므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만만찮은 고충이 따를 것이다. 다만 現地에서 직접 채집한 자료와 口演實態가 몸에 밴 체험을 資產으로 삼고 쓰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韓國文學의

## 序 言

領域을 활짝 넓히는 데 이바지하려 하며, 韓國民謡 연구의 기틀과 방법을 확호히 다져 나가고자 하는 데 主眼點을 둔다.

## II. 濟州島民謠의 分類

### 1. 民謠 分類의 基準

民謠의 分類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 이는 민요가 지니는 유다른 屬性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요의 분류는 쉽지는 않다. 민요의 분석은 文學的, 音樂的, 民俗學的 세 가지 側面이 있겠는데, 그 측면에 따라 분류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 民譚의 경우는 어디의 어떤 민담이든 그 나라의 이야기 줄거리가 있게 마련이니까 예를 들어 Aarne-Thomson에 따른 분류방법이 세계의 公認貨幣일 수 있지만 민요의 경우는 이런 분류유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민요의 典型的 분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國內에서만이 아니라 國外的 경우도 한가지다.<sup>9)</sup> 민요는 기능적이고 서민적이어서 地域民의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鄉土性이 두드러져서 地域的 色彩가 짙다.<sup>10)</sup> 지역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민요의 종류가 다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마다 민요의 분포 실태와 종류가 다르며, 같은 민요라도 지방에 따라 口演方法과 가락 및 그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한 민족의 민요 분류법을 그대로 다른 민족의 민요분류에도 적용할 수가 없으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分類類型의 定立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민요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그 바탕에는 이처럼 민요 자체의 속성도 깔렸겠지만, 아직도 민요연구가 學問的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도 그 까닭이 있다. 어떤 분야든 분류가 정확히 이뤄진다면 그 학문은 벌써 틀이 잡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9) G. Malcolm Laws; Jr. *Native American Ballad*, p. 11.

10) 拙稿;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pp. 115 ~ 116, 知識産業社, 1982.

1949년 高晶玉의 《朝鮮民謠研究》는 한국에서의 민요연구를 학문의 경지에 올려 얹힌 귀중한 작업이거니와, 여기서 비로소 韓國民謠의 분류 또한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실상 그 이전의 분류는 학문적이기보다는 단순히 자료 배열의 便宜를 위한 한갓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민요의 분류도 기록문학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준에서 여러가지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高晶玉은 그 분류기준의 몇 가지도 제시했었다.<sup>11)</sup>

高晶玉은 여러 기준 가운데 內容과 唱者의 性・年令 및 노래와 民族生活의 結合面을 통틀어 고려한 綜合的 分類法을 채택했다. 곧 어떠한 내용의 노래를, 六何原則에 따라 누가, 무엇을 할 때 부르는 노래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高晶玉은 그의 《朝鮮民謠研究》 꼬트머리에 3천 여편을 자료로 한 〈朝鮮民謠分類一覽表〉를 제시하였으니, 한국민요의 全貌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嶺南民謠를 직접 수집한 터전 위에 민요연구를 비로소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그 積功이 이런 분류를 이룩하게 했었다.

한편, 1961년, 任東權은 한국민요의 획기적 집성이라 할 수 있는 《韓國民謠集》을 내면서 한국민요를 362型으로 細分한 바 있거니와, 잇따라 그 분류의 기준도 밝힌 바 있다.<sup>12)</sup> 그는 韓・日・中 3국의 민요 분류의 여러 예를 소개한 다음, ①唱者의 年令, 性別, ②主題 및 內容 ③歌唱過程의 세 조건을 고려해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唱者・內容・機能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류라는 점에서 高晶玉의 분류방법과 거의 일치한다.

張德順등의 《口碑文學概說》에서는 機能爲主의 분류를 시도했다. 이

11) 高晶玉의 《朝鮮民謠研究》 pp.96 ~ 102, (首善社, 1949)에 따르면 ①內容, ②歌者의 性・年令, ③歌唱되는 地域, ④노래의 時代性(新古), ⑤노래와 民族生活의 結合面, ⑥노래의 形態, ⑦曲調 또는 名稱, ⑧長短(길이), ⑨成立條件, ⑩韻律, ⑪表現上 傾向 등 여러 관점의 분류가 필요하다 했다.

12)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pp.31 ~ 52, 宣明文化社, 1974.

점은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도 한가지다. 勞動謠를 비롯하여 儀式謠, 遊戲謠 등 정해진 기능이 있는 노래를 機能謠라 해서 하나로 묶고 단지 즐겁다는 기능만이 있을 뿐, 실생활의 기능이 없는 민요는 非機能謠로 분리했는데, 趙東一의 《慶北民謠》 역시 이에 기준했다.

日本에서 최초로 民謠論을 정립한 志田義秀는 그의 《日本民謠概論》에서 민요를 우선 ‘勞動에 속한 것’과 ‘舞蹈에 속한 것’으로 大別한 바 있다. 곧 勞動謠와 舞蹈謠로 나눈 다음에 이를 또 몇 단계에 따라 細分했으니, 곧 기능에 따른 분류라 볼 수 있다. 日本民俗學의 泰斗 柳田國男은 민요가 불리는 목적과 부르는 장소에 초점을 두어 田歌・庭歌・山歌・海歌・業歌・道歌・祝歌・祭歌・遊歌・童歌 등 10종으로 나누었는데, 종합적 분류인 듯하면서도 역시 기능위주의 분류인 셈이다.<sup>13)</sup>

민요 분류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의 분류 기준으로는 機能・歌唱方式・唱曲・律格・장르・唱者・時代・地域 등을 내세울 만하다. 한 지역, 한 나라의 민요는 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되풀이 분류되어야 그 位相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바탕되는 기준이라면 기능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일 줄 안다.

모든 학문에 있어 공통되는 현상이지만, 민요 역시 그 자료가 온전히 수집되지 않은 채 바람직한 분류는 바랄 수 없다. 口傳文學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래도 민요 수집은 활발한 편이다. 金素雲의 획기적 업적인 《朝鮮口傳民謠集》 이후 몇몇분의 집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任東權은 1961년 이후 6권이나 되는 《韓國民謠集》을 내었으며,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는 1979년도 이후 5개년 계획으로 《韓國口碑文學大系》 간행이 이어지고 있으니, 상당량 수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로 눈길을 돌릴 때엔 이제까지의 수집결과는 한갓 擧隅에 지나지 않는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량이 상당량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분류기준을 택했든 바람직한 분류를 이룩할 수는 없다.

13) 柳田國男; 《民謠覺書》, pp.315 ~ 324, 創元社, 1940.

## 2. 濟州島民謠의 分類

한국민요의 분류 방법을 두고 본격적으로 토론된 바 드물었듯이, 제주도민요의 분류 방법 역시 아직껏 논의된 바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分類類型이 아직 마련된 바 없으며, 그 까닭은 민요가 지니는 바 속성에도 있음을 보았듯이 민요 분류는 힘들다. 한 나라의 민요는 한 지역의 민요는 그 특성에 비추어 우선은 機能爲主 혹은 內容爲主의 분류방법을 택하거나, 이 둘을 혼합한 분류법을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며, 앞에선 여러 기준에서 거듭 분류해야 그 實相이 제대로 파악될 줄로 안다.

제주도민요는 우선 기능위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제주도민요는 그 대부분이 勞動謠이기 때문인데 노동요는 제주도민요의 主宗을 이룬다. 노동요는 민요의 밑바탕이며 대들보라는 점에서 제주도민요의 대부분이 노동요라는 사실은 제주도민요가 그만큼 빼어나다는 근거도 된다. 제주도민요에서는 노동요가 엄청나게 많고 그 사실도 알뜰한 게 흔히 띄기 때문에<sup>14)</sup> 그 機能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勞動謠와 非勞動謠로 나누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필자가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제주도민요를 勞動謠・타령類・童謠로 三大分한 것은 이에 터전한 것이다. 童謠는 넓은 뜻으로 보아 민요와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루뭉술리로 수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민요의 한 모퉁이에 볼아넣어 庶子格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민요와는 바탕이 다른 동요의 특성을 살려 分家獨立시킴이 옳다.<sup>15)</sup>

모든 분류는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편리를 위한 수단인 분류

14) 丁益燮의 “莞島民謠放：靑山島・蘆花島를 中心으로”(《湖南文化研究》第4輯, pp.172~173,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1966)에 따르면 75편의 자료 가운데 情思에 관계된 頽廢的인 노래가 반수 이상이고, 〈벚노래〉가 아주 최소한 점은 특이한 현상이라 했는데 제주도의 경우와는 판이하다.

15) 拙稿; “童謠”, 《韓國民俗大觀VI》, pp.354~395,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가 어찌다가 도리어 混沌을 일으킨다면 아예 분류하지 않음만 못하다. 학문함에 있어 모든 분류는 簡明해야 하고 合理的이어야 할 것이니, 자칫 분류를 위한 분류에 빠지는 愚劣은 삼가는 것이 正道다.

제주도민요는 어떻게 大分돼야 하며, 그 主宗인 勞動謠는 어떻게 분류돼야 옳은 것인가. 그 분류는 濟州農漁民의 生業構造 및 民謠口演與否와 實態에 근거함이 옳다고 본다.

제주도의 主穀은 조와 보리다. 제주도의 地表가 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常流河川이 드물고 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밭과 논의 비율은 50 대 1로서 옛부터 조·보리와 잡곡이 주곡이어서 이를 쟁고 뺩고 쏙고 하는 일이 밭일과 더불어 농가마다 부딪치는 주요한 일거리였다. 따라서 〈밭가는 노래〉·〈밭밟는 노래〉·〈김 매는 노래〉 등의 農業謠와 더불어 〈맷돌·방아노래〉 등 製粉謠의 비중이 크므로 이는 엄연히 독립돼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온 세상에 이름난 해녀들의 부르는 〈海女노래〉를 비롯하여 〈멸치 후리는 노래〉·〈뱃목 짓는 노래〉 등의 漁業謠가 또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주도에 牧馬로 인해 말총이 흔했었으므로 갓모자나 망건을 결는 일이 부녀자들의 주요한 부업이었기도 해서 〈양태노래〉·〈탕건노래〉·〈망건노래〉 등이 冠網謠가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나무에 관련된 노래도 몇편 보이므로 林業謠도 성립됨직하고 〈꿀 베는 노래〉 등으로써 牧畜謠가 독립될 듯도 하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쪼개거나 켜는 노래, 아니면 산에서 벤 나무를 마을로 끌어 내리면서 부르는 노래만 확인되므로 〈꿀 베는 노래〉와 더불어서 伐採謠로 묶는 것이 옳을까 한다. 그밖에 잡일에 관계된 노래들은 雜役謠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노동요는 農業謠·製粉謠·漁業謠·冠網謠·伐採謠·雜役謠로 나누는 것이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儀式謠로는 葬禮儀式謠, 곧 喪歌만이 뚜렷하다. 상뚝군들이 運柩해가면서 부르는 〈行喪노래〉와 봉분을 마련한 다음에 달구질을 하면서 부르는 〈달구질노래〉가 그것이다. 喪歌에는 이밖에 제주도 고유의 〈진토국

노래>도 있는데 이는 봉분을 이룩할 흙을 발구석 일정한 곳에서 파 올 리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雜役謠로 처리될 수도 있는 노래지만, 山役과 결부된 작업이므로 여기 함께 묶기로 한다.

제주도에서는 성인들의 遊戲・舞踊謠가 발견되지 않는다. 유희・무용 요가 앓을 자리를 濟州의으로 극성스런 勞動의 동작으로 대체하는 터이니, 춤과 노동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인 줄 안다. 遊戲謠는 다만 전승동요의 한 부분으로 끼어들 뿐이다.<sup>16)</sup> 전승동요로서의 遊戲謠도 유희를 진행시킨다는 기능은 지녔지마는, 그 기능은 다만 놀이를 원만하고 즐겁게 진행시킨다는 기능일 따름이니 노동요나 의식요가 지니는 實生活의 機能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주도 唱民謠(타령類)로서는 널리 알려진 <오돌포기>를 비롯, <이 야흥>・<봉지가>・<산천초목>・<사거리>・<서우젓소리> 등이 있다. 이 밖에 5세기 동안(1423~1913) 旌義縣廳 所在地였던 表善面 城邑里부녀자들에 의하여 <觀德亭>・<龍天劍> 등 많은 타령이 전승된다. 이 城邑의 타령은 거의 5세기 동안 旌義고을 妓女들이 媒體가 되어 本土에서 流入된 듯한데, 그 사실이나 가락의 變異現象은 소중한 연구과제가 된다.

민요의 명칭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락 위주로 전승되는 唱民謠와 달라서 本源的인 민요에는 본디 노래 이름이 없다. Ruth Finnegan도 口傳詩歌는 보통 제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想起되어야 한다고 했다.<sup>17)</sup> 전승자들은 그때 그때 편리할 대로 노래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맷돌노래>인 경우 ‘맷돌’의 방언이 ‘매투’, ‘갈다’의 방언이 ‘굴다’이므로 <매투놀래>・<매투소리>・<매투 매투 소리>・<매투 돌 돌리는 소리>・<매투돌 굴리는 소리>・<매투 매투 맷돌소리>・<매투

16) 필자는 한국의 전승동요를 ①動植物謠 ②天體氣象謠 ③遊戲謠 ④諷笑謠 ⑤語戲謠 ⑥자장가 ⑦其他謠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拙稿; 앞논문) 이는 제주도 동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7) Ruth Finnegan, op. cit., p. 107. It has to be remembered that oral poems do not normally has titles.

래 낄 때 부르는 소리> 등등 그 노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붙일 수 있다. 민요가 본원적인 것일수록 고유한 이름이 없고, 노래를 指稱하는 표현도 제멋대로여서 어느 하나를 택하기가 어려우니 대강 표준어로 命名하여 이를 대중삼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노래 이름을 표준어로 일관화되 現地謠名을 併記하고 다만 표준어화할 수 없는 <토불미노래>・<디덤불미노래>・<뚝뚝불미노래>・<집줄 놓는 노래>・<진토굿노래>・<서우랫소리> 등은 現地謠名 그대로 일컫는 것이 오히려 무난하다고 본다.

또한 같은 종류의 민요 안에서도 작품 한 편 한 편을 구분하는 기준과 자료를 표기할 때의 行바꿈의 방법 등은 만만찮은 문제를 낳는다. 민요의 各篇이 인쇄되어 나타나려면 採錄者들이 독자들을 위해서 작품을 再生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요를 어떻게 재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도와 판단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sup>18)</sup> 민요가 실제 口演될 때 各篇 머리와 末尾 구분이 모호하여 口傳文學의 活字化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가급이면 실제적인 歌唱狀況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 3. 濟州島 勞動謠와 女性勞動謠의 位置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료 자체에 대한 바람직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마땅한데, 제주도민요의 중추를 이루는 노동요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과제가 따른다.

#### ① 제주도 노동요에는 어떤 종류의 노래들이 있는가.

18) Differentiation is more of a problem with an oral poem. In practice this is usually concealed, for the collector or translator of oral poetry commonly reproduces it for his literature public in lines, verses and so on, with a heading at the top-precisely as an indication that he *does* classify it as poetry. But the line-endings and other features are not necessarily rendered in the original performance-and how you reproduce a particular oral poem is a matter of degree and of judgement, not an absolute one. (Ibid., p. 106)

- ② 제주도 노동요는 종류마다 각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 ③ 제주도 노동요 가운데 고유한 生業과 관련되면서 제주도에만이 분포되어 있는 특이한 민요들은 어떤 종류들인가.
- ④ 姓과 年令別로 본 제주도 노동요의 傳承者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口演方法과 능력은 어떠한가.
- ⑤ 제주도 노동요의 傳承實態는 어떠한가.
- ⑥ 민요와 작업과는 어떠한 관계이며, 제주도 노동요와 관련된 작업의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 ⑦ 노동과 더불어 제주도 노동요가 불리어졌거나 불리는 장소는 어디인가.
- ⑧ 제주도 노동요의 사설은 어떻게 구분되며 그 기능은 어떠한가.
- ⑨ 제주도 노동요의 사설내용과 표현방법은 어떠한가.
- ⑩ 제주도 노동요의 가락과 唱法은 어떠한가.

제주도민요의 분류를 말하는 여기에서 이 많은 과제를 논의할 겨를은 없고, 우선 그 분류와 직결된 ①②③⑦만을 대충 살피기로 하되, 지금까지 확립된 바에 따라서 제주도의 노동요는 어떤 종류들인가를 우선 일람하기로 한다.(괄호 안은 現地의 謠名이다.)

## 1) 勞 動 謠

### [1] 農業謠

- 1. 따비질노래 (따비질소리)
- 2. 밭 가는 노래 (밭 가는 소리)
- 3. 흙덩이 바수는 노래 (혹병에 두드리는 소리 · 곶배질소리)
- 4. 밭밟는 노래 (밭밟리는 소리)
- 5. 김매는 노래 (검질매는 소리 · 사더 [사떼])
- 6. 타작노래 (마당질소리 · 도깨질소리)
- 7. 보리 훑는 노래 (보리 훑트는 소리)

8. 마소 모는 노래 (마쉬 모는 소리)

[2] 製粉謠

1. 맷돌·방아노래 (맷돌놀래·마래 마는 소리·방앗놀래·남방에 짙는 소리)

2. 연자매노래 (물방에 [물마래] 짙는 소리)

[3] 漁業謠

1. 海女노래 (해녀 [질]소리·줍수 [질]소리·줍녀 [질]소리)

2. 맷노래 (배젓는 소리·노젓는 소리)

3. 뗏목 젓는 노래 (터우 [태위·테배] 젓는 소리)

4. 멀치 후리는 노래 (멜 후리는 소리·멜 후림 소리)

[4] 伐採謠

1. 나무 베는 노래 (남 끈치는 소리)

2. 나무 켜는 노래 (남 싸는 소리·툼질소리)

3. 나무 쪼개는 노래 (남 깨는 소리·남 깨는 도치질소리)

4. 나무 내리는 노래 (남 끌어내리우는 소리·술기소리)

5. 짚 베는 노래 (총 비는 소리·총 비는 흥애기·흥애기)

[5] 冠網謠

1. 양태노래 (양태 뭇는 소리·양태 줄는 소리)

2. 탕근노래 (탕근 뭇는 소리·탕근 줄는 소리)

3. 망건노래 (맹진 [망근] 뭇는 소리·맹진 [망근] 줄는 소리)

[6] 雜役謠

1. 방앗돌 굴리는 노래 (물방앗돌 [물마랫돌] 끌어내리우는 소리)

2. 토불미노래 (토불미질소리·청탁불미질소리)

3. 더딤불미노래 (더딤불미질소리 · 발판불미질소리)
4. 똑딱불미노래 (똑딱불미질소리)
5. 집줄 놓는 노래 (집줄 놓는 소리)
6. 짚 두드리는 노래 (짚 두드리는 소리)
7. 흙 이기는 노래 (질뽀림소리)
8. 집터 다지는 노래 (집터 다지는 소리 · 달구소리)
9. 벼틀노래 (벼클소리)

우선 農業謠로부터 그 分布와 背景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제주도에는 논이 드물고 밭농사가 위주이매 논농사에 따른 〈모내는 노래〉·〈논매는 노래〉·〈벼 베는 노래〉 등은 있을 수 없다. 화전을 개간하거나 갈기 힘든 밭을 일구면서 〈따비질노래〉가 전하고, 조를 갈 때 줍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고는 마소를 앞세워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발밟는 노래〉, 밭을 갈고 난 다음, 덩어리진 흙덩이를 곰방메로 부수면서 부르는 〈흙덩이 바수는 노래〉가 제주도에 特有함은 모두 제주도의 유 다른 地質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밭 넓이가 넓고 농사가 극성스런 德修里(南濟州郡 安德面) 같은 몇 지역에서만 〈밭가는 노래〉가 희귀하게 전한다. 논이 드물어 〈논매는 노래〉가 없으니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라면 으레 〈밭매는 노래〉를 가리키는데, 그 종류도 가락도 여럿이다. 本土에서와 한가지로 〈타작노래〉는 주로 보리 타작할 때 불리며, 〈보리 훑는 노래〉는 稀貴하다. 〈마소 모는 노래〉는 들일을 오가는 길에서 마소를 앞세워 모는 노래이고, 또한 〈발밟는 노래〉 역시 줍씨 뿌린 밭을 마소를 앞세워 밟고 밟으며 부르는 노래이어서 그 판별이 쉽지 않다.

곡식을 빵고 쏙고 가는 노래들을 묶어 製粉謠라 했다. 제주도의 主穀인 보리는 연자매로 쟁고 쏙은 다음에 맷돌로 쪼개어 밥을 지었었다. 여러가지 곡식을 가는 데도 맷돌은 이용되었었지만, 날마다 먹는 보리쌀을 쪼개는 일이 사시사철 이어져야 했으므로 맷돌질은 방아질과 더불어 늘

되풀이되는 제주도 부녀자들의 주요한 家內作業이었다. 멧돌질은 한두 여인이 조용한 장소에서 장시간 치렀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잊었던 自己內心을 찾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던 사연을 풀어 헤치면서 가다듬어진 사설을 쏟아냈다. 호젓한 방안이나 마당 구석에서, 그것도 주로 밤의 靜寂 속에 이루어지던 이 멧돌질과 더불어 쏟아지는 사설은 단연 제주도 민요의 王座로 군림한다. 어떠한 우리의 古典作品에 비하더라도 손색 없는, 오히려 出衆한 사설들이 〈멧돌·방아노래〉들 各篇에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민요의 우수성은 이 珠玉 같은 〈멧돌·방아노래〉를 간직했기 때문이라 보아서 좋다. 〈멧돌·방아노래〉란 멧돌질하면서 부르는 〈멧돌노래〉와 ‘남방애’(혹은 ‘남방애·남방이·방애·방에·방이’)라는 제주도 고유의 통나무로 된 절구를 찼으면서 부르는 〈방아노래〉를 併稱한다. 가락은 물론 다르니까 音曲으로는 두 노래가 分立되어야 하겠지만, 사설로 본 분류일 때에는 꼭 같은 사설이 대부분 두 노래의 가락으로 불리므로 併稱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멧돌·방아노래〉의 사설의 대부분은 노동과는 관련이 없는 민간의 폭넓은 情意를 노래한 것들이어서 오히려 값지다.

〈海女노래〉·〈멧노래〉·〈떨치 후리는 노래〉·〈멧목 짓는 노래〉를 漁業謠로 묶었다. 이 세상에 해녀의 분포는 韓國과 日本뿐인데, 해녀 대부분이 그 발상지로 보이는 제주도에 몰렸고, 이들은 노를 저어 나가면서, 혹은 헤엄쳐 나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日本서도 근래 〈海女노래〉를 定立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sup>19)</sup>, 본격적인 〈海女노래〉가 전승되는 곳은 제주도뿐이다. 아세아 4개국에 그 行動半徑이 뻗었던<sup>20)</sup> 鐵石 같은 意志의 化身인 해녀들의 노래는 실로 海洋文學으로서의 값어치 또한 珍重하다. 해녀들은 바다를 발의 연장으로 보고 집안이나 들판처럼 관념하면서 決死的 의지를 驚異롭게 드러내는가 하면, 千苦萬難의 작업실태를

19) 關山寺弥; “民謡と海女の傳承”, 《日本民俗學》116, pp.24~34, 日本民俗學會, 1978.5.

20) 拙稿;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pp.307~324, 1971.

切切히 표백하고 있다. 해녀들에 따라 珍貴한 〈海女노래〉가 전승되는 한편, 남성어부들도 드물게는 노를 저으며 노래를 부르니 이는 〈海女노래〉와 구분하여 〈배노래〉라 했다. 백사장이 질펀히 깔린, 예를 들면 金寧里(北濟州郡 旧左邑) 같은 해안마을에서는 한여름 그물로 멸치잡이를 하면서 〈멸치 후리는 노래〉가 전해지며, 마을에 따라서는 ‘터우’·‘테배’라 불리는 뗏목을 타고 ‘듬북’ 따위의 해조류를 캐면서 〈뗏목 젓는 노래〉도 불린다.

수풀 속의 나무를 베고, 켜고, 쪼개면서 〈나무 베는 노래〉·〈나무 켜는 노래〉·〈나무 쪼개는 노래〉가 불린다. 수풀에서 벤 나무를 마을까지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나무 내리는 노래〉도 전한다. 森林을 제재한 노래들이므로 林業謠로 分立할 수도 있겠으나, 나무를 가꾸는 데 따른 노래는 안 보이고 한결같이 伐採에 속한 노래들이므로 마소 먹일 꼴을 베며 부르는 〈꼴 베는 노래〉와 더불어 伐採謠로 묶었다. 직경 1.2 m 내외에 이르는 제주 고유의 절구인 ‘남방에’를 통나무로 만들어 집집마다 갖추었던 사실로 보거나, 오래된 草家の 아름답디 木材를 볼 때, 예전 漢拏山과 3백수십에 이르는 寄生火山 ‘오름’ 마다에는 巨木들이 울창했었음을 徵明하고 있다.

朝鮮朝부터 1950년대까지 지금의 濟州市를 중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갓일(갓모자·갓양태·탕전·망건작업)이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했었다. 北濟州郡 朝天面에서 濟州市를 거쳐 涯月邑 동부까지 그 일대에 뻗친 이 冠網手工藝는 제주 여인들의 주요 부업으로서 家産을 이루고 생계를 잇는 데 크게 이바지했었다.<sup>21)</sup> 갓양태·탕전·망건을 결으면서 각각 〈양태노래〉·〈탕전노래〉·〈망건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들을 冠網謠라 통칭한다.

나머지는 雜役謠로 묶었다. 〈방앗돌 굴리는 노래〉란 마을 밖에서 연자매(물방에·물궤)의 ‘웃돌’·‘알돌’을 마련하고 마을까지 끌어오는 運搬勞動謠다. 이 노래는 男性集團作業에 따른 민요라는 점이 유별난

21) 拙著;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데 德修里등에서만 확인될 뿐<sup>22)</sup> 매우 稀貴하다. 德修里는 또한 풀무질로 알려졌는데, 풀무질의 작업 방법에 따라 그 민요는 <토불미노래>(청탁불미노래)·<디딤불미노래>(발판불미노래)·<똑딱불미노래>로 나뉜다. 德修里 밖에서도 <똑딱불미노래>는 가뭄에 콩 나듯 이따금 발견되지만<sup>23)</sup> 나머지는 아직 다른 마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똑딱불미’란 1인용의 간편한 것이며, 몇몇이 손으로써 하는 게 ‘토불미’(청탁불미), 발로 치르는 것이 ‘디딤불미’(발판불미)다.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새(띠)를 덮은 위에 새로써 꼬은 줄로 바둑판처럼 엮는다. 바둑판처럼 엮는 줄을 ‘집줄’이라 하며 이 ‘집줄’을 꼬아나가는 일을 ‘집줄 놓는다’고 하는데, 이때 불리는 민요가 <집줄 놓는 노래>다. 그 일은 집집마다 첫겨울 이뤄지던 연례작업이었지만 민요의 전승은 드물다. 농가에서는 신 삼을 짚을 등글고 미끄닥한 ‘덩드렁’이란 돌판위에 놓아서 두드리는데, 그 사실은 산만하지만 이따금 <짚 두드리는 노래>가 전해진다. 짚그릇을 굽던 곳에서는 짚그릇을 구울 흙을 이기면서 <흙 이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전승자들은 <짚 따림 소리>라 일컫는다. 집 지을 집터를 다지면서 <집터 다지는 노래>가 불리고 부녀자들 사이에서 <베틀노래>가 전하는데 그 사실은 本土의 것과 비슷하다.

이제까지 제주도의 勞動謠 30여종을 분류해 보았으나 아직도 미확인된 노래들이 혹 있을 줄 안다. 확인된 노동요들의 現地謠名·口演者·口演場所·口演地域·作業 傳承實態 등을 밝히면서 그 일람을 보일까 한다.

22) 安德面 德修里에서는 이 민요를 발굴하여 1980년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大統領賞을 받은 바 있다.

23) 濟州大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學術調查報告書》第7輯, pp.196 ~ 197, 1982.

濟州島民謠의 分類

濟州島勞動謠一覽

○歌唱歌地域: 全...全域 海...海村 特...特殊地域

海特...海村中 特殊地域

○作業傳承: ○...現在傳承 △...사라져감 X...사라짐

| 謠 別   | 謠 種         | 現 地 의 謠 名                      | 口 演 唱 者 | 口 演 場 所 | 口 演 地 域 | 作 業 傳 承 |   |
|-------|-------------|--------------------------------|---------|---------|---------|---------|---|
| 農 業 謠 | 따비질노래       | 따비질소리                          | 男       | 밭       | 全       | △       |   |
|       | 밭가는노래       | 밧가는 소리                         | 男       | 밭       | 全       | ○       |   |
|       | 흙 딛 이 비수는노래 | 흙뽕에 두드리는 소리·곰 배질 소리            | 共       | 밭       | 全       | △       |   |
|       | 밭밟는노래       | 밧밧리는 소리                        | 共       | 밭       | 全       | △       |   |
|       | 김매는노래       | 검질매는 소리·사디(사매)                 | 女       | 밭       | 全       | ○       |   |
|       | 타 작 노래      | 마당질소리·도깨질소리                    | 共       | 마당·밭    | 全       | △       |   |
|       | 보리훔는노래      | 보리 훔트는 소리                      | 共       | 마 당     | 全       | ×       |   |
|       | 미소모는노래      | 미쉬 미는 소리                       | 共       | 갈       | 全       | ○       |   |
| 製粉謠   | 맷돌·방아 노래    | 맷돌돌래·맷돌마는 소리<br>방앗돌래·남방에 찧는 소리 | 女       | 집 안     | 全       | ×       |   |
|       | 연자매노래       | 돌방애(돌마래) 찧는 소리                 | 共       | 연자맷간    | 全       | ×       |   |
| 漁 業 謠 | 해 너 노 래     | 해너(질)소리·중수(질) 소리·중녀(질)소리       | 女       | 바 다     | 海       | ○       |   |
|       | 배 노 래       | 배짓는 소리·노짓는 소리                  | 男       | 바 다     | 海       | ○       |   |
|       | 맷목짓는노래      | 터우(테워·테배) 짓는 소리                | 共       | 바 다     | 海特      | △       |   |
|       | 멸치후리는 노래    | 멸 후리는 소리·멜 후딤 소리               | 共       | 바 다     | 海特      | △       |   |
|       | 나무베는노래      | 남 끈치는 소리                       | 男       | 수 풀     | 全       | △       |   |
| 伐採謠   | 나무꺼는노래      | 남 싸는 소리·톱질소리                   | 男       | 집안·수풀   | 全       | △       |   |
|       | 나무조개는 노래    | 남 깨는 소리·남 깨는 도                 | 男       | 마당·수풀   | 全       | △       |   |
|       | 나무내리는 노래    | 남 깎아내리우는 소리·솔                  | 男       | 수풀·길    | 全       | ×       |   |
|       | 나무베는노래      | 솔 비는 소리·솔 비는 흥                 | 共       | 풀       | 全       | △       |   |
|       | 에기·홍에기      |                                |         |         |         |         |   |
| 冠網謠   | 양 태 노래      | 양태 못는 소리·양태줄는                  | 女       | 집 안     | 特       | △       |   |
|       | 탕 건 노래      | 탕근 못는 소리·탕근 줄는                 | 女       | 집 안     | 特       | ×       |   |
|       | 망 건 노래      | 망근(망근) 못는 소리·맹                 | 女       | 집 안     | 特       | ×       |   |
|       | 방앗돌굴리는 노래   | 방앗돌(돌) 줄는 소리·곳어 내리우는 소리        | 男       | 길       | 特       | ×       |   |
|       | 토불미노래       | 토불미질소리·청타불미질소리                 | 男       | 불미마당    | 特       | ×       |   |
| 雜役謠   | 디딤불미노래      | 디딤불미질소리·발판불미질                  | 男       | 불미마당    | 特       | ×       |   |
|       | 톡딱불미노래      | 톡딱불미질소리                        | 男       | 대장간·가   | 特       | ×       |   |
|       | 집줄놓는노래      | 집줄 놓는 소리                       | 男       | 마당·길가   | 特       | △       |   |
|       | 짚두드리는 노래    | 짚 두드리는 소리                      | 男       | 집 안     | 特       | △       |   |
|       | 흙이기는노래      | 질 두림소리                         | 男       | 그늘      | 문       | 特       | × |
|       | 집터다지는 노래    | 집터 다지는 소리·달구소리                 | 男       | 집       | 터       | 全       | × |
|       | 베 틀 노래      | 베쿨소리                           | 女       | 집 안     | 全       | ×       |   |

非勞動謠의 민요는 대충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2) 儀 式 謠

- 行喪노래                      ○ 달구노래                      ○ 진토곳 파는 노래

## 3) 타 령 類

### [1] 옛타령

- 오돌또기                      ○ 이야흥                      ○ 서우젓소리
- 山川草木                      ○ 봉지가                      ○ 사거리
- 觀德亭앞                      ○ 龍天劍                      ○ 其他 10 여종

### [2] 雜 謠

- 雜 謠                      ○ 달거리

## 4) 童 謠

- 動植物謠                      ○ 天體氣象謠                      ○ 遊戲謠
- 諷笑謠                      ○ 語戲謠                      ○ 자장가
- 其他謠

덧붙여 둘 것은 노동요의 사설을 분류하는 관점이다. 이를 논의하는 까닭은 제주도 농어민들의 폭넓은 일상감정을 노래한 사설이 노동요에 흔히 끼어든다는, 제주도민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민요의 사설을 분류할 때에 특히 勞動謠의 경우는 機能과 內容, 어디에 기준하느냐에 따라 꼭 같은 민요의 各篇이라도 그 소속이 아주 달라진다.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에서 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 ① 저산돌린                      난지젠ᄃᆞ난  
 짐패쫄란                      못지듯  
 부뒤공은                      가프젠ᄃᆞ난  
 멍이쫄란                      못가파라

(239)

〈語釈〉 저 산 돌러                      난 지려 하니  
 질빵 쫄아                      못 지 듯  
 부모 공은                      갓으려 하니  
 명이 쫄아                      못 갓더라

- ② 씨집이엔                      오라랜ᄃᆞ난  
 씨누이야                      씨가령말라  
 나도가민                      어멍이라라  
 잔에 비운                      참지름이라라

(471)

〈語釈〉 시집이라                      왔다고 하니  
 시누이야                      시저드름 말라  
 나도 가면                      어머니더라  
 잔에 부운                      참기름이더라

사설의 내용만으로는 ①은 〈戀母謠〉거나 〈思母謠〉, ②는 〈시집살이 노래〉인데, ①은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진 “아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로 시작되는 鄭徹의 〈訓民歌〉에 비하여 한결 優美하고, ②에서 “잔에 부운 참기름”이란 비유도 차원이 높다. 그런데 이 사설은 맷돌 같고 방아 쪼으면서 부르므로 〈맷돌·방아노래〉다. 기능만을 문제삼는 분류일 때에는 무엇을 하면서 부르는가가 우선하는 기준이므로 어떤 내용의 사설이건 맷돌질이나 방아질과 더불어 불리는 민요라면 〈맷돌·방아노래〉로 다룰 수 있다.

勞動謠의 사설이라고 반드시 노동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 노동요의 사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노동과 관련

된 사실ियो, 또 하나는 노동과는 관계없이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실이다. <타작노래>에서처럼 일이 거칠고 여러 사람의 행동 통일 필요를 작업에 하며 부르는 사실은 노동과 밀착되어서 주로 노동하는 실태를 노래한다. <맷돌·방아노래>처럼 일이 거칠지 않고 한둘만이 단조롭게 일함으로써 행동통일이 필요치 않은 작업에 따르는 민요의 사실은 노동과 밀착되지 않은 채, 거의가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표현한다.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실이 오히려 가다듬어지고 빼어난 편이다.

### 제 주 도 노동요의 사실내용 분석

資料：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

| 區 分<br>內 容 | 勞 動 謠 全 |      | 맷돌·방아 노래 |      | 海女 노래 |      | 김매는 노래 |      | 타작 노래 |      | 其 他 勞 動 謠 |      |
|------------|---------|------|----------|------|-------|------|--------|------|-------|------|-----------|------|
|            | 篇數      | 構成比  | 篇數       | 構成比  | 篇數    | 構成比  | 篇數     | 構成比  | 篇數    | 構成比  | 篇數        | 構成比  |
| 勞 動 實 態    | 240     | 21   | 27       | 3.4  | 102   | 51.3 | 34     | 77.4 | 26    | 92.8 | 51        | 91.2 |
| 民 間 的 情 意  |         |      |          |      |       |      |        |      |       |      |           |      |
| 生活苦        | 244     | 21.4 | 193      | 23.7 | 39    | 19.6 | 6      | 13.6 | 2     | 7.2  | 4         | 7.1  |
| 自立·勤勉      | 46      | 4    | 45       | 5.5  | 1     | 0.5  | -      | -    | -     | -    | -         | -    |
| 시집살이       | 93      | 8.1  | 92       | 11.3 | 1     | 0.5  | -      | -    | -     | -    | -         | -    |
| 愛情         | 127     | 11.1 | 91       | 11.1 | 36    | 18.1 | -      | -    | -     | -    | -         | -    |
| 家事·家族      | 191     | 16.7 | 184      | 22.6 | 5     | 2.5  | 2      | 4.5  | -     | -    | -         | -    |
| 警世         | 88      | 7.7  | 81       | 9.9  | 5     | 2.5  | 2      | 4.5  | -     | -    | -         | -    |
| 信仰·風土      | 57      | 5    | 54       | 6.6  | 2     | 1    | -      | -    | -     | -    | 1         | 1.7  |
| 꿈·所望       | 56      | 5    | 48       | 5.9  | 8     | 4    | -      | -    | -     | -    | -         | -    |
| 計          | 1,142   | 100  | 815      | 100  | 199   | 100  | 44     | 100  | 28    | 100  | 56        | 100  |

위에 제시한 도표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맷돌·방아노래>에서는 약 97%의 사실이 민간의 심정을 노래하는 한편, <타작노래>의 경우는 민간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실이 불과 7%요, 노동실태를 노래하는 비율이 무려 93%에 이른다. <맷돌·방아노래>의 사실내용은 따라서 卽生活的인 庶民意識 전반인 셈이다. 生活苦·自立勤勉·시집살이·愛情·家事家

族・警世・信仰風土・꿈과 所望 등 그 제재는 다양해서 ①②와 같은 알뜰한 사설이 〈맷돌・방아노래〉로 끼어든다. 만일 그 내용만을 보고 ①②를 〈思母謠〉와 〈시집살이노래〉로만 처리할 때면 무엇을 하면서 이런 소담스런 사설이 불리는지 밝혀질 수가 없다.

世界特有의 〈海女노래〉의 사설내용은 노동실태와 일상적 정감이 비슷한 비율이다. 역시 거센 파도 위에서 노를 젓는 거친 분위기라 〈맷돌・방아노래〉처럼 가라앉은 情意만을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 ③ 탕탱기는 | 칠성판아  |
| 임영사는   | 명정포야  |
| 못할일이   | 요일이여  |
| 모진광풍   | 불질 말라 |
|        | (833) |

|      |       |       |
|------|-------|-------|
| 〈語釈〉 | 타 다니는 | 칠성판아  |
|      | 이어 사는 | 명정포야  |
|      | 못할 일이 | 요일이네  |
|      | 모진 광풍 | 불질 말라 |

- |        |        |
|--------|--------|
| ④ 지레크곡 | 곶은 낭근  |
| 전봇대로   | 다나가곡   |
| 아기께나   | 생길놈은   |
| 군대소로   | 다나가곡   |
| 아기께나   | 낱을넌은   |
| 청로집으로  | 다나간다   |
|        | (1012) |

|      |       |        |
|------|-------|--------|
| 〈語釈〉 | 키 크고  | 곶은 나무는 |
|      | 전봇대로  | 다 나가고  |
|      | 아기께나  | 생길놈은   |
|      | 군대소로  | 다 나가고  |
|      | 아기께나  | 낱을넌은   |
|      | 靑樓집으로 | 다 나간다  |

③은 千苦萬難의 해녀작업 실태를, ④는 <아리랑> 사설을 流行한듯 日帝의 虐政을 노래했는데, 이런 사설은 반드시 <海女노래>로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 流動的인 것이다. <海女노래>의 사설을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1. 海女作業 出發의 노래

2. 海女作業의 노래

3. 海女 出稼길의 노래

A. 出發

B. 노를 젓는 氣魄

C. 배와 뱃사공

D. 出稼하는 뱃길

E. 出稼의 目的

4. 海女 出稼生活의 노래

5. 사랑노래

6. 海女들의 餘情

1~4는 대체로 해녀작업 실태를 노래했으며, 5,6은 해녀들의 일상적인 생활감정을 제재했다.<sup>24)</sup>

이상 濟州島民謠의 分類에 대한 논의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요분류의 典型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민요 자체가 지니는 機能的, 庶民的, 地域的 特性에도 원인하겠지만, 민요 연구가 성숙돼 있지 않은 근거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분류법은 같은 종류의 자료라도 가능한 여러 기준에 따라 거듭 분류하는 일이다. 高晶玉・任東權・趙東一 및 志田義秀・柳田國男 등의 분류안을 검토할 때 綜合的 分類도 일리는 있지만, 기능 또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오히려 鮮明하며 그 바탕이 될 것 같다.

②제주도민요의 대들보는 勞動謠라는 점에 비추어 제주도민요는 우선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우선 勞動謠와 非勞動謠로 나눈

24) 이 글의 Ⅲ, 2, (4) <海女노래>의 機能・題材 參照.

다음에, 제주도민의 傳來的 生業의 특성에 터전하여 노동요를 農業謠・製粉謠・漁業謠・冠網謠・伐採謠・雜役謠로 나눌 수 있다. 儀式謠로는 葬禮儀式謠, 곧 喪歌가 전할 뿐이며, 성인들의 遊戲・舞踊謠는 발견되지 않는다. 唱民謠 가운데 朝鮮朝 5백년의 旌義縣 도읍지 城邑里에서 전해지는 창민요 등은 本土와의 交流實態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③ 여태껏 확인된 바 제주도의 노동요는 30여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는 〈海女노래〉를 비롯, 〈발밟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마소 모는 노래〉・〈멧목 짓는 노래〉・〈나무내리는 노래〉・〈꿀 베는 노래〉・〈양태노래〉・〈탕전노래〉・〈망전노래〉・〈방앗돌 굴리는 노래〉・〈토불미노래〉・〈디딤불미노래〉・〈뚝딱불미노래〉・〈집줄 놓는 노래〉・〈짚 두드리는 노래〉 등 特有의 生業과 함께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는 민요들도 있다. 제주도민요의 핵심은 〈멧돌・방아노래〉이며 세계에 유례 없는 〈海女노래〉가 전승된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④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모든 사설이 노동요로 처리되는 謠種에서도 〈멧돌・방아노래〉처럼 한둘이 조용한 곳에서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에 따른 민요의 경우는 勞動實態보다도 대부분 부르는 이의 심정, 곧 민간의 情意를 노래한다. 그 폭넓은 제재는 生活苦・自立勤勉・시집살이・愛情・家事家族・警世・信仰風土・꿈과 所望 등 서민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친다. 노동과는 관련이 없이 민간의 心情을 노래한 비율이 〈멧돌・방아노래〉에서는 97%가량 이르렀고 〈海女노래〉의 경우는 반쯤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런 주요 노동요의 경우는 우선 기능에 따른 분류를 앞세운 다음에 사설의 내용을 기준한 부차적 분류가 필요하다.

### Ⅲ. 濟州島 女性勞動謠의 實相

濟州島 女性勞動謠의 實相을 분석함에 있어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를 고르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다.

①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는 사실의 분량이나 내용으로 보아 제주도민요의 主宗을 이룬다.

② 이 두 민요가 불리는 機緣인 맷돌·방아질과 해녀질은 제주도민들의 農耕·漁撈生活을 비롯했을 上古부터 줄곧 전승되어온 生業이므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착되어 왔다.

③ 따라서 두 민요를 분석할 때 제주도민요, 특히 女性勞動謠의 大綱이 파악될 수 있다.

④ 本來的인 〈海女노래〉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된다. 〈海女노래〉가 노를 저으면서 불린다는 점에서는 〈맷노래〉인 셈인데, 〈맷노래〉와 〈맷돌·방아노래〉는 그 작업자체도 그렇거니와, 古今東西의 勞動謠 가운데서 가장 代表的, 普遍的인 것이며 원시적인 것이다.

맷돌질이나 방아질 및 그 민요에 대해서는 《新·舊約聖書》에도 언급되었는가 하면, 예전 스칸디나비아의 Edda문학에도 실려있다.

여기에서는 필요한 몇가지 관점에서 이 두 민요에 대한 立體的 분석을 꾀함으로써 제주도민요, 특히 女性勞動謠의 實相을 보이코자 한다.

#### 1. 맷돌·방아노래

##### (1) 背 景

〈맷돌·방아노래〉 한 종류가 제주도민요 전반의 過半일 만큼 그 분량

이 엄청난데 다 그 各篇 사실 내용이 특출해서 제주도민요를 논의하려면 대체로 <맷돌·방아노래> 사실이 주요대상이 된다. 따라서 필자의 작업 대부분도 이 <맷돌·방아노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맷돌·방아노래>는 ‘ㄴ래’, 곧 맷돌을 갈며 부르는 <맷돌노래>와 濟州 特有的 ‘남캉에’라는 절구를 찼으면서 부르는 <방아노래>를 합친 이름이다. 작업자체가 다르므로 가락이야 물론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사실 各篇은 맷돌질과 더불어 <맷돌노래>로도 불리고 방아질과 더불어 <방아노래>로도 불린다. 그러니까 사실을 대중삼아 <맷돌·방아노래>라 하는 것일 뿐, 그 가락을 기준한다면 <맷돌노래>와 <방아노래>는 확연히 구분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다음 몇가지다.

① <맷돌·방아노래>의 傳承實態는 어떠한가. 곧 그 歌唱機緣 및 傳承者와 傳承樣相은 어떠하며 어떻게 分布되었는가.

② <맷돌·방아노래>의 唱法은 어떠하며, 어떤 歌唱순서에 따라 各篇은 불려지는가.

③ <맷돌·방아노래> 사실의 題材와 內容은 어떠한가.

④ <맷돌·방아노래>의 措辭는 어떠한가.

## (2) 傳承·傳承者

<맷돌·방아노래>의 傳承實態에 있어 그 歌唱機緣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맷돌질과 방아질은 제주여성들이 치렀었던 중요한 일거리였으니, 곧 島民의 主穀인 보리와 조를 찼고, 빵고, 삶고, 가는 게 주장이었다. 제주도의 농토는 대부분 火山灰土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마른데다 옛부터 그 主食은 조와 보리이었었다.

제주도는 우람스럽고 毅然한 漢拏山(釜岳, 1950m)을 主峯으로 하여 이루어진 유례 드문 Aspite, Tholoide型의 一大 死火山島다. 한라 산을 女王처럼 모시는 3백수십의 側火山(오름·오름)이 경사를 이루며 바다로 뻗어내린 地表 위에 점점이 솟아 있다. 死火山島 特有的 變化無雙한

岩石美, 잇따른 화산 폭발로 말미암은 賞嘆할 만한 谿谷과 洞窟 등, 제주도만이 지니는 風光明媚한 奇觀을 낳았다. 地表는 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냇물은 거의 乾川이요, 山을 흐르는 물은 해안에 이르러 솟아난다. 제주도 聚落의 70 % 이상이 해안을 뱅 둘러 가며 이루어졌음도 이 까닭이요, 中山間 마을 주민들이 음료수 때문에 지난날 크게 곤혹을 치러 왔음도 이에 연유한다. 玄武岩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地表에는 水量이 적고 따라서 논은 극히 드물다. 조·보리·잡곡을 위주로 한 밭농사를 치르면서 도민들은 살아왔다.

보리는 일차 연자매(물방에·물ㄴ래)에서 쟁고 난 다음, 그 보리쌀을 맷돌에서 쪼개어야 일삼 밭을 지어 먹는데 편리하므로, 맷돌질은 제주도 여인들에게 사철 주어진 집안일이었다. 보리쌀을 쪼개는 일이 맷돌질의 대중이었지만, 온갖 곡식의 가루를 갈기도 했었다. 집안의 큰 일을 치르거나 할 때엔 밤새 연자맷간에서 일이 벌어지고 또한 맷돌질과 방아질이 집안에서 치러졌다. 이 맷돌질은 마당이나 ‘삼방’(대청·마루)에서 한 둘이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큰일을 치를 때쯤에는 여럿이 오랫동안 작업하기 때문에 손잡이에 ‘ㄴ래 체경’을 끼워 돌리기도 했다. ‘ㄴ래 체경’이란 1.5 m 가량의 나무 자루로서 머리에 뚫린 구멍으로 맷돌 손잡이에 끼우고 오랜 시간 맷돌질을 할 때 작업을 돕는 기능을 했다. 큰일이 있을 때는 며칠 동안을 밤낮으로 맷돌질을 해야 했으므로 단둘이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이 부쳤다. 드문 일이었기는 하나, 손잡이에 ‘ㄴ래 체경’을 끼워 남성들이 뒤에 물러서 앉은 채 밀고 당김으로써 힘을 보태었다. 多孔質 玄武岩으로 만들어진 이 맷돌이 집집마다 농어민들의 必需器具였음은 물론이거니와 篤農家에서는 일의 규모에 맞춰 골라 쓰려고 大小形形의 맷돌을 마련해 두기도 했었다.

‘ㄴ래’와 함께 집집마다 제주특유의 절구인 ‘남방에’를 두었었다. ‘남방에’란 ‘나무방아’의 濟州語인데 그 직경이 무려 120 cm 내외에 이르는 느티나무 등의 통나무를 파서 만들어진 것이다. ‘남방에’란 메(제사밥)를 올리는 祭器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데, 本土의 절구와

그 형태가 판이하다. 방아질은 ‘방엿귀’라는 절굿공이로써 혼자 아니면 너댓이 작업하는데 방아 찰는 사람 수요에 따라 두분이면 ‘두콜방에’, 세분이면 ‘식콜방에’ 등으로 불린다. 대문이 달린, 이른바 ‘이문간’에 놓인 채 작업하는 것이 보통인데 장만하기에 간편한 발버 따위를 자그마치 찰거나 쏘기도 한다.

〈맷돌·방아노래〉사설이 응골차고 술한 까닭은 그 맷돌·방아작업이 지니는 특수성격에 있다. 첫째 특성으로는 맷돌 갈고 방아 찰는 일이 집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거칠은 돌판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비해 훨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편안히 노래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고, 많아야 두셋이 하는 일이므로 침착하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맷돌을 벗 삼아 마음껏 가다듬어진 사설을 熟考, 鑑賞하며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英美의 경우를 보더라도 혼자서 부르는 勞動謠는 결코 非一般的인 것이 아니다. 口傳文學의 集團性 만의 식하는 나머지 우리는 獨謠(solitary song)가 지니는 個人的, 靜觀의 側面을 외면하기 쉽다. 여럿이 왁자지껄하며 부산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비하면 獨謠는 서민의 內面世界를 속속드리 드러낼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셋째로는 작업하는 동안이 길고, 작업을 자주해야 했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보리쌀을 쪼개는 일을 비롯해서 콩·팥·녹두·메밀·발버·깨·밀 따위를 맷돌이나 ‘남방에’에서 찰고 빵거나 갈아야 하고, 심지어는 메주나 고추·마늘도 빵는다. 따라서 제주도 농가에서는 거의 날마다 했던 맷돌질이나 방아질은 대체로 상당한 시간 이어져 나갔었다. 맷돌질과 방아질이 지니는 이 몇가지 성격은 〈맷돌·방아노래〉를 신명나게 불렀던 그 기틀이다.

〈맷돌·방아노래〉는 예전에는 더욱 切切했었던듯, 濟州五賢의 한분인 仁祖朝 鄭蘊의 《桐溪集》에도 그 사설이 무슨 뜻인지 판별되지 않는 민요가락을 들으며 새벽달빛 아래 遠客의 시름을 쏘는 古詩가 보인다.

土俗無春鑿  
村娥抱杵歌

지방 풍속엔 절쟁이가 없는데  
마을 아낙네 절구 안고 노래해

|       |                   |
|-------|-------------------|
| 高底如有調 | 높고 낮게 가락이 있는 듯하고  |
| 斷統似相和 | 끊일락 이을락 서로 어울리는 듯 |
| 欲解須憑訳 | 알 수 없어 통변에게 물었더니만 |
| 頻聞慚不歌 | 자주 들어 부끄럽다 부르질 않아 |
| 淒涼曉月下 | 처량하다 새벽달에 잠 못 이루니 |
| 遠客髮先皤 | 귀양은 나그네 머리 세누나    |

지금엔 맷돌질·방아질도 사라졌고, ‘ㄴ레’·‘남방에’도 없어졌으니, 제주도민의 哀歡과 情感이 깃든 이 유서 깊은 일거리는 한갓 기억만으로 남겨진 채, 民謠唱 競演이 벌어질때쯤 舞臺演戲 정도로 再演될 따름이다.

일거리가 사라졌으니 그에 따른 민요인들 평소에 불러질 리 없다. 민요의 死活與否를 두고 필자는 네가지 경우를 想定해 보았다. 곧 勞動謠의 경우, 작업과 민요와의 關係를 살핀다면, A) 작업과 민요 모두가 現傳될 뿐더러 이 둘이 밀착된 경우, B) 작업과 민요 모두가 現전되기는 하되, 이 둘이 분리된 경우, C) 작업은 이미 사라졌고 민요만 남은 경우, D) 작업은 남아 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 등이다.

〈맷돌·방아노래〉는 C 型이어서 맷돌·방아작업은 이미 사라지고 〈맷돌·방아노래〉만은 남겨졌다. 노래만은 남겨졌다지만, 여느 노동요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맷돌·방아작업과 더불어 맷돌·방아질할 때에만 불리므로, 작업이 사라진 오늘날 이 민요의 自然的 傳承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自然條件에 따른 口演이란 아예 있을 수 없으며, 人爲條件에 따라야만 들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 〈맷돌·방아노래〉를 즐겨 불렀던 할머니를 찾아 일부러 불러 주기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口演된다. 작업이 사라져 버린 노동요의 전승은 어떤 종류든 대체로 이런 실정이다. 다만 노동요의 배경인 작업분포가 원래 全面的이나 局地的<sup>25)</sup>이나에 따라서 그 전승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요, 그 작업의 消滅時期가 전

25) 全域的, 局地的이란 말은 대상 지역을 어떻게 基準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 韓國民謠를 논의할 때면 固有한 濟州島民謠 전반은 局地的의 民謠이며, 제주도민요를 基準할 때는 島全域에 분포된 〈맷돌·방아노래〉는 全域的의 民謠가 된다.

승에 결정적으로 영향한다.

〈맷돌·방아노래〉의 분포는 濟州島 全域에 이른다. 맷돌·방아작업 자체가 제주도 어디서나 사철 집집마다 이루어지던 일거리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된 바 술한 노동요들의 典型인 것이 〈맷돌·방아노래〉다.

〈맷돌·방아노래〉의 傳承者는 女性이니 맷돌질이나 방아질은 여성들에게 분담된 구실이었기 때문이다. 민요를 채록하다 보면 가끔 男性들도 〈맷돌·방아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sup>26)</sup> 어찌다 큰일 치를 때나 아니면, 남성들이 이 일에 간여하지는 않지만, 사시사철 이어지는 맷돌·방아질하며 부르는 부인들의 노랫소리에 모르는 새 書堂 개 3년에 風月하는 格으로 익혀진 탓이다. 제주도민요의 歌唱者는 거의 여성이며 婦女謠의 優勢性은 강조할 만한 제주도민요의 특색이다. 수집의 角度와 主眼에 따라 통계야 차질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제까지의 수집자료를 보면 男謠 對 婦女謠의 비율은 1대 4에 이르므로 제주도민요의 5분의 4가 婦女謠라는 이야기다. 그 까닭은 제주도 여성의 職能과 活動力이 두드러지고 유별나게 부지런하다는 데 있다. 곧 ‘地瘠民貧’의 지역이므로 여성들이 치러야 할 노동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흔하고 勤儉, 強靱함도 물론이지만, 제주도 產業構造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부녀요인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 등 良質의 사실이 상당량 전승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 수록된 〈맷돌·방아노래〉만 하더라도 815 편에 이름으로써 수록된 노동요의 7할이 넘는 다.

제주도 농어촌 가가호호마다 맷돌·방아작업은 필수적이었으므로 歌唱을 즐기는 할머니라면 대체로 〈맷돌·방아노래〉를 얼마쯤은 부를 줄 안다. 부를 줄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 사실은 한두편 기억하는 이가 적

26) 예를 들면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pp.373~374에 수록된 바 〈맷돌·방아노래〉는 男性(南濟州郡 大靜邑 東日里, 男·49, 文基八)에 따라 異例의으로 불리웠다. 그는 명량 활달한 성격이어서 민요를 녹음하는 자리에 합석했다가 자진해서 민요를 불러주었다.

잖다. 재질이 있는 제보자들은 노래를 청하면 대여섯편이 고작인데 애써 불러야 열편 정도다. 드물게는 신이 나게 부르는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는데, 사뭇 대견스러웠던 이는 城山邑 溫平里의 康起寶노파의 경우였다. 이 분은 〈맷돌·방아노래〉 한 종류만 실로 3백여편을 간직하고 있었다. 필자가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수년이 지난 1958년 겨울이었는데, 우연히 이 할머니를 대하게 되었고 두어 시간 잇따라 백여편의 〈맷돌·방아노래〉를 부르는 대로 이를 받아쓰면서 덮쳐 온 驚異와 喜悅이란 무한량의 것이었으니, 할머니는 값지만 평생 銘記될 것이다. 그 이후 필자는 여러 차례 康起寶노파를 찾아 口演하는 사실을 듣고, 各篇 배경해설도 문곤 했었는데 휴대용 녹음기를 마련 못한 때라 노트에 筆寫하는 수집이었음이 지금도 못내 안타깝다.

### (3) 唱 法

〈맷돌·방아노래〉의 唱法은 어떠한지, 우선 定型의 사실 한 편을 보기로 한다.

- |        |       |
|--------|-------|
| ⑤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 본디즈낙   | 어둡는집의 |
| 오늘이엿   | 밝은때호라 |
| 어둡거든   | 밤이엿말라 |
| 밤도아니   | 어두워려라 |
|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86)

- |      |       |         |
|------|-------|---------|
| 〈語釈〉 |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      | 본디 저녁 | 어둡는 집에  |
|      | 오늘이라고 | 밝은 때 하라 |
|      | 어둡거든  | 밤이라 말라  |
|      | 밤도 아니 | 어두워려라   |
|      | (이여이여 | 이여도호라)  |

후렴 “이어이어 이어도하랴”는 노래가 시작될 때의 導唱이다. 그러나 실은 민요 各篇이 끝날 때 붙여지는 것이 정상이며, 가끔 한편의 자료를 口演하는 사이에 끼어들기도 한다. “이어이어 이어도하랴”를 빼면 4 5 調의 2 音步 1 行씩의 4 行으로서 2 行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 定型이다. 2 行적 意味를 지닌다는 것은 “본디즈낙 어둡는집의／오늘이엿 붉은때하랴”에 맞서 “어둡정은 밤이엿말라／밤도아니 어두워려라”가 對句를 이룬다는 뜻이다.

〈맷돌·방아노래〉의 唱法은 獨唱・先後唱・交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獨 唱

〈맷돌·방아노래〉의 대부분은 獨唱이니, 맷돌질이나 방아질은 혼자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맷돌질의 경우는 대체로 혼자 하는 일이다. 〈맷돌·방아노래〉가 대부분 獨唱으로 불린다는 점은 제주도 노동요 가운데서도 다른 노래들의 唱法과 유다르다.<sup>27)</sup>

### ② 先後唱<sup>28)</sup>

두 분 이상이 작업하며 민요를 口演할 때, 한 분이 사설을 부르고 다른 한두 분이 후렴을 이어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         |       |
|---------|-------|
| A. 이어이어 | 이어도하랴 |
| 본디즈낙    | 어둡는집의 |
| 오늘이엿    | 붉은때하랴 |
| 어둡정은    | 밤이엿말라 |
| 밤도아니    | 어두워려라 |

27) 拙稿; “民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pp.361 ~ 397, 文化財管理局, 1974.

28) 鄭東華는 그의 《韓國民謠의 史的研究》p. 95, (一潮閣, 1981)에서 이 先後唱 唱法을 ‘先唱來答唱’이라 했으며, 金順濟는 그의 《韓國의 謠 노래》p.22, (好樂社, 1982)에서 ‘交唱形式’이라 이름했다. 어쨌든 이 형식은 외국 민요에서도 가장 흔한 편이다. (Ruth Finnegan, op.cit, p.217)

B. 이어이여                      이어도하랴  
(혹은 AB)

A가 선소리를 부르면 B는 후렴만 받는다. 여기 맨처음에 나타나는 “이어이여 이어도하랴”는 노래를 유도하기 위한 導入段階이므로 그대로 선소리 歌唱者(A)가 부른다. 노래 한 편이 불러진 다음에 이어지는 후렴은 대체로 先唱者를 뺀. 분이 부르는데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이 상일 수도 있다. 후렴은 先唱者가 함께 부르기도 하는데, 평균 4行으로 된 한 편의 민요가 불러진 다음에 반드시 후렴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후렴 없이 그대로 다음 篇의 사설로 이어 불러질 때도 많다.

### ③ 交 唱

歌唱者 서로가 번갈아 부르는 交唱形式에는 다음 몇가지가 있다. 이 交唱形式은 제주도 노동요에 흔히 통용된다.<sup>29)</sup>

#### (3.1)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기

A.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B. 본디즈낙                      어둡는집의

A. 오날이엿                      붉은매하랴  
B. 오날이엿                      붉은매하랴

先唱하는 A의 사설을 B가 그대로 이어받아 되풀이한다. A가 부를 때 B는 쉬고, B가 부를 때는 A가 쉰다. 쉬는 것이 몇적으면 助興을 위한 추임새처럼 “이어이여 이어도하랴”, 혹은 “으흠으흠”하고 흥얼거리기도 한다.

29) 羅運榮;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1): 音樂構造를 中心으로”, 《延世論叢》第9輯, p. 128, 延世大大學院, 1971.

(3.2) 앞소리와 다른 사실 부르기

傳承者 두 분이 번갈아 가며 부르되, 제각기 다른 사실을 부르는 경우다. 필자가 수집했던 다음 자료의 A는 康淑(北濟州郡 涯月邑 下貴里女・49), B는 梁民善(濟州市 三徒二洞 女・61)이다.<sup>30)</sup> 〈맷돌・방아노래〉의 交唱形式으로는 흔히 이 唱法을 따른다.<sup>31)</sup>

- |             |          |
|-------------|----------|
| ⑥ A. 이어이어   | 이어도흐라    |
| B. 이어도흐라    | 이어도흐라    |
| A. 집의반초     | 싱그도말라    |
| B. 요ㄹ레라그네   | 질긴양말라    |
| A. 웃인부모     | 발어름소리    |
| B. 흑을들라그네   | 장으렌말가    |
| A. 귀에쟁쟁     | 열리염서라    |
| B. 비랑오거든에   | 장희로오라    |
| A. 이어이어이어   | 이어도흐라    |
| B. 반초입에라그네  | 비지는소리로고나 |
| A. 간간늘쟁     | 놈의칩드난    |
| B. 귀에쟁쟁이라그네 | 들키는구나    |
| A. 어디간간     | 나놀아서니    |
| B. 요ㄹ레 굴앙그네 | 역들어먹저    |
| A. 강남서도     | 놀아온새여    |
| B. 이어도흐라    | 이어도흐라    |
| A. 제비장남     | 어디야흐라    |
| B. ㄹ레 굴앙그네  | 이즈낙혀저    |
| A. 어멍간디랑    | 날가랭흐민    |
| B. 이어도흐라    | 이어도흐라    |
| A. 진디보명     | 새 놀듯간다   |

30) 拙稿; “民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p.383, 文化財管理局, 1974.

31) 위에 든 조사보고 가운데 〈맷돌노래〉의 경우, 자료 9 (p.382), 자료 10 (pp.382~383), 자료 11 (p.383) 과 〈방아노래〉 자료 7 (p.385)은 한결 같이 이 형식을 따랐다.

A와 B가 교대하며 부르기는 했지만, 그 사실은 A와 B 사이에 아무런 연결도 없다. A는 A 나름대로 A의 사실을 불러 가고, B는 B 나름대로 B의 사실을 불러 간다. 곧 A의 경우는 A<sub>1</sub>, A<sub>2</sub>, A<sub>3</sub> 3편을, B의 경우 역시 B<sub>1</sub>, B<sub>2</sub>, B<sub>3</sub> 3편을 불렀다.

|                     |       |
|---------------------|-------|
| A <sub>1</sub> 집의반초 | 싱그도말라 |
| 웃인부모                | 발어름소리 |
| 귀에쟁쟁                | 열리염서라 |

|            |         |
|------------|---------|
| 〈語釈〉 집에 파초 | 심지도 말라  |
| 있는 부모      | 발자국 소리  |
| 귀에 쟁쟁      | 울리고 있더라 |

|                     |       |
|---------------------|-------|
| A <sub>2</sub> 간간늘젠 | 놈의칩드난 |
| 어디간간                | 나놀아서너 |
| 강남서도                | 날아온새여 |
| 제비강남                | 어디야하랴 |

|             |         |
|-------------|---------|
| 〈語釈〉 간간 놀자고 | 남의 칩 드니 |
| 어디 간간       | 내 놀았더냐  |
| 강남서도        | 날아온 새여  |
| 제비 강남       | 어디냐 하랴  |

|                      |        |
|----------------------|--------|
| A <sub>3</sub> 어명간되랑 | 날가랭하민  |
| 진되보멍                 | 새 놀듯간다 |

|               |         |
|---------------|---------|
| 〈語釈〉 어머니 간 벨랑 | 날 가라 하면 |
| 진 데 보며        | 새 날듯 간다 |

|                       |       |
|-----------------------|-------|
| B <sub>1</sub> 요ㄴ레라그베 | 질긴양말라 |
| 흑을술랑그베                | 짙으렐말가 |

|             |         |
|-------------|---------|
| 〈語釈〉 요 땃돌일랑 | 질긴 양 말라 |
|-------------|---------|

확을 돌려서

짚으란 말인가

B<sub>2</sub> 비랑오거든에  
반초입에라그네  
귀에쟁쟁이라그네

장희로오라  
비지는소리로고나  
들키는구나

〈語釈〉 비랑 오거든  
파초잎에는  
귀에 쟁쟁

큰비로 오라  
비 내리는 소리로구나  
들리는구나

B<sub>3</sub> 요ㄴ레곶앙그네  
ㄴ레곶앙그네

역들어먹저  
이즈녁혀저

〈語釈〉 요 맷돌 갈아  
맷돌 갈아서는

품팔아 먹으려네  
이 저녁 지으려네

### (3.3). 앞소리 사설을 이어받아 부르기

민요 한 편을 두고 A가 1行을 부르면 B가 그 다음 行을 이어받아 불러 가는 형식인데 이 唱法은 매우 드물다. A가 기억하고 즐겨 부르는 사설을 B 역시 꼭 같이 알 수 없는 일인가 하면, 그 口演實態를 볼 때, 같은 내용 같은 뜻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傳承者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       |
|---------|-------|
| A. 본더즈낙 | 어둡는집의 |
| B. 오늘이엿 | 붉은때헛라 |
| A. 어둡경은 | 밤이엿말라 |
| B. 밤도아니 | 어두워려라 |

다음에는 各篇을 불러 가는 口演順序를 보기로 한다. 〈맷돌·방아노래〉 각편이 口演되는 정해진 순서라곤 없다. 모든 노동요에는 A편 다음에 B편, B편 다음에 C편을 불러야 한다고 부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요 아닌 민요에서도 口演되는 각편의 연결에 정해진 순서

가 없는 謠種이 많다. 〈맷돌·방아노래〉 한 편 한 편을 부를 때 일정한 순서가 없음은 사실이지만, 가끔 前篇에 나타나는 낱말이나 이미지에 따른 일종의 聯想作用, 곧 併行體에 근거하는 경우를 본다. 그 예를 康起寶노파의 口演資料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 A. ⑦ 안중답답                      애 답답하난  
안안주나                      먹으민 좋나  
(637)

〈語釈〉 안중 답답                      애 답답하니  
안안주나                      먹으면 좋다

- B. ⑧ 먹으랴코                      쓰라콧하민  
가지 낭괴                      모람이 온다  
(637)

〈語釈〉 먹으려고                      쓰려고 하면  
가지 나무에                      모람이 연다

- C. ⑨ 가지 좇꼭                      입좇인 낭괴  
으름이나                      드물이 몰라  
(294)

〈語釈〉 가지 찾고                      잎 찾은 나무에  
열매나                      드물게 열어라

- D. ⑩ 으름철도                      봄철도 몰랑  
웃인 어멍                      무신 철알리  
(294)

〈語釈〉 여름철도                      봄철도 몰라  
없는 어머니                      무슨 철 알리

이는 부르는 순서 대로 쓴 자료로서 4 音步 2行식의 아담한 사실 4편이다. A-B, B-C, C-D 각편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A-B-C-D의 순서로 부른 까닭은 노래에 나타나는 어휘가 서로 對應된다는 데 있는 듯하다. ‘먹으민’-‘먹으라코’, ‘가지’(茄子)-‘가지’(枝), ‘으름’(實)-‘으름’(夏) 등으로 聯想作用을 일으키며 각편의 사실이 이어져 나간 셈이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長篇 讚揚詩 Zulu, Xhoso, Sotho 등에서도 이런 예가 보이는 바, 이는 일종의 併行體다.

Parallelism also plays an important prosodic role in the lengthy panegyric poetry of some Southern African peoples, such as the Zulu, Xhoso and Sotho. Here the poetic form is probably based partly on a type of loose stress rhythm allied to certain melodic requirements in performance, but is also very dependent on the use of parallelism of words or meaning (the former also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alliteration and assonance). For example, in Zulu praises there are many instances of ‘perfect parallelisms’ like the lines about Ndaba

Who when he lay down was the size of rivers,  
Who when he got up was the size of mountains

(Obeyalala wangangemimfula,  
Obeyavuka wangangezintaba.)

and also of parallelism by linking, where the last element in one line starts the next. Shaka is praised as

He who armed in the forest, who is like a madman,  
The mad man who is in full view of men.

(UMahlom’ ehlathini onjengohlanya,  
Uhalanya olusemehlwen’ amadoda.)<sup>32)</sup>

---

32) Ruth Finnegan, op. cit., p. 100.

곧 접속에 따른 併行體 (parallelism by linking)인 바 위 둘째 자료에서 한 줄의 끝부분 ‘madman’이 다음 줄의 첫머리에 再登場함으로써 對應되었다.

#### (4) 題 材

〈맷돌·방아노래〉사설의 題材 및 內容은 어떠한가.

어덧 勞動謠든 다 그렇지만, 제주도 〈맷돌·방아노래〉의 사설의 題材 역시 ①作業實態만을 노래하는 사실과 ②작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庶民生活 전반에 걸친 歌唱者들의 감정이나 의식을 노래하는 사실로 나누어진다. 노동요 가운데도 풍요롭고 웅결된 노래일 경우에는 ②의 비율이 높고, 거칠고 산만하며 드물게 전해지는 노래라면 대부분 ①로 채워진다. 〈맷돌·방아노래〉처럼 풍부하게 전승되고 文學的 香薰이 풍기는 민요에서는 일부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사실이 끼어들기는 했으면서도 오히려 傳承者들 생활 전반에 걸친 실정과 苦惱, 의욕과 冀願을 두루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주도 노동요의 7할이 넘는 〈맷돌·방아노래〉는 거의가 농어민의 日常感情을 노래한다. 서민생활 전반에 걸친 그들 심정을 深層的으로 노래하는 〈맷돌·방아노래〉한 謠種의 豐饒性은 그대로 제주도 민요를 質的·量的으로 優美하게 하는 데 거름이 되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맷돌·방아노래〉의 題材가 얼마나 농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폭넓게 뻗치고 이를 受容했는가는 필자가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시도했던 바 다음의 분류내용만 살펴더라도 확인될 수 있다.

#### 〈맷돌·방아노래〉의 分類(괄호 안 숫자는 篇數)

資料: 拙著; 《濟州島民謠研究 上》

① 맷돌노래 (18)

② 방아노래 (25)

③ 自立·勤勉의 노래 (74)

A. 自 立 (28)

B. 勤 勉 (24)

C. 生活苦 (22)

④八字・恨嘆의 노래 (121)

- A. 八 字 (50)      B. 恨 嘆 (71)

⑤사랑과 怨恨의 노래 (166)

- A. 아버지사랑 (35)      B. 어머니사랑 (35)  
C. 兄弟사랑 (11)      D. 子息사랑 (6)  
E. 이웃과의 사랑 (7)      F. 임사랑 (40)  
G. 怨望과 詛呪 (32)

⑥시집살이노래 (96)

- A. 시집살이의 苦衷 (25)      B. 시집에서의 虐待 (7)  
C. 시집으로 가는 길 (7)      D. 시집家族 (25)  
E. 시누이 (5)      F. 시어머니 (16)  
G. 시집觀 (11)

⑦집안노래 (117)

- A. 結 婚 (30)      B. 主 婦 (11)  
C. 의붓어머니 (12)      D. 妾 (15)  
E. 시 앗 (8)      F. 寡 婦 (6)  
G. 자 식 (17)      H. 외로움 (18)

⑧勸世의 노래 (57)

- A. 勸 世 (18)      B. 世 情 (13)  
C. 말 썩 (14)      D. 嘆 老 (12)

⑨꿈의 노래 (87)

- A. 꿈 (16)      B. 서 울 (16)  
C. 兩 班 (6)      D. 선 비 (8)  
E. 中 庸 (16)      F. 自 慰 (6)  
G. 發 散 (19)

⑩信仰・風土의 노래 (54)

- A. 信 仰 (7)      B. 風 土 (47)

위의 分類一覽을 살필 때 제주도 농민들의 生活實相과 島民意識이 〈맷돌·방아노래〉 속에 거의 凝結되었음을 놀랍게 알게 된다. 주어진 宿命을 통탄하면서도 自立, 勤勉하며 苦難을 딛고 이겨내려는 意志가 출기차고, 父母兄弟의 사랑, 이웃과 임과의 愛憎이 사설된다. 곡절 많은 〈시집살이노래〉가 〈맷돌·방아노래〉의 가락으로 맷돌·방아질과 더불어 구연되는가 하면, 結婚・主婦・繼母・妾・시앗・寡婦・子息・孤獨 등 日常市井事가 온통 題材化한다. 世情을 透視하면서 警戒하기도 하고, 지난날 역사적으로 모질게 짓눌려온 兩班・官吏와 서울을 羨望하면서도 實情을 實情대로 받아들이면서 安分知足으로써 自矜을 놓치지 않음도 본다. 民間信仰을 노래하는가 하면, 제주도내 곳곳의 風土를 민요로 쏙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은 맷돌·방아질을 하면서 〈맷돌노래〉와 〈방아노래〉의 가락으로 구연하고 있을 뿐이지, 맷돌·방아질 그것과는 無關하다는 데 거듭 주목해야 한다.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맷돌·방아작업 그 자체를 노래하는 사설들은 ‘1. 맷돌노래’와 ‘2. 방아노래’에 몰려 있다. ‘3. 自立・勤勉의 노래’ 이후는 모든 사설이 〈맷돌노래〉 가락이나 〈방아노래〉 가락으로 불리지 마는, ‘1. 맷돌노래’는 대체로 〈맷돌노래〉 가락으로만 불리고 ‘2. 방아노래’는 거의 〈방아노래〉 가락으로만 불리는 사설들이다. 왜냐하면, ‘1. 맷돌노래’ 사설에는 맷돌질 모습, ‘2. 방아노래’ 속에는 ‘남방에’ 찢는 작업내용으로 차 있기 때문이다.

위 분류에서 八字・恨嘆이나 自卑・人生無常・嘆老・自慰・發散・衣食住의 어려움 등을 따로 분리하여 ‘生活苦’를 독립시킬 수도 있는데, 이리하여 〈맷돌·방아노래〉의 사설내용 분석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를 볼 때 다음 몇가지 사실이 스스로 밝혀진다.

① 〈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의 다른 勞動謠들과 대비할 때 民間의 情意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作業實態를 노래하는 편수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맷돌·방아노래〉의 優秀性 및 제주도 민요 전반의 값어치를 보장해 주는 그 바탕이 된다.

〈맷돌·방아노래〉의 사실내용 분석

資料：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 上》

| 區 分<br>內 容            |          | 맷돌·방아노래 |       | 勞動謠 全般 |       |
|-----------------------|----------|---------|-------|--------|-------|
|                       |          | 謠 數     | 構 成 比 | 謠 數    | 構 成 比 |
| 作 業 実 態               |          | 27편     | 3.4 % | 240편   | 21 %  |
| 民<br>間<br>의<br>情<br>意 | 1. 生活苦   | 193     | 23.7  | 244    | 21.4  |
|                       | 2. 自立·勤勉 | 45      | 5.5   | 46     | 4.0   |
|                       | 3. 시집살이  | 92      | 11.3  | 93     | 8.1   |
|                       | 4. 愛情    | 91      | 11.1  | 127    | 11.1  |
|                       | 5. 家事·家族 | 184     | 22.6  | 191    | 16.7  |
|                       | 6. 警世    | 31      | 9.9   | 88     | 7.7   |
|                       | 7. 信仰·風土 | 54      | 6.6   | 57     | 5.0   |
|                       | 8. 꿈·所望  | 48      | 5.9   | 56     | 5.0   |
| 計                     |          | 815편    | 100 % | 1,142편 | 100 % |

②제주도 노동요를 통해 도민들의 일상적인 느낌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제재인 ‘自立·勤勉’·‘시집살이’·‘家事·家族’·‘警世’·‘信仰·風土’ 등은 거의가 〈맷돌·방아노래〉에 물리고 있다.

③따라서 제주도 노동요의 사실내용 분석은 〈맷돌·방아노래〉의 분석으로써 그 大本이 이루어진 다 해도 좋을 것이다.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민간의 日常感情을 노래하는 민요의 편수는 〈맷돌·방아노래〉에 87 % (902 曲 788편)나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 內容·表現

濟州島 女性勞動謠, 특히 〈맷돌·방아노래〉의 사실은 그 題材幅도 농어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包容하고 있거니와 표현 역시 빼어나다. 한평생 문자와는 無緣하고 記錄文學과는 담을 쌓은 노파들에게서 기록문학의 逸品들과도 대비할 만한 작품들이, 그것도 口口傳承에 따라 口演되다 함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文字媒材 (written media)를 쓰는 기록문학과는

달리 口傳詩歌는 수명이 짧고 오래 熟考해서 지어지는 노래도 아니며, 철저한 推敲도 비교적 불필요한 것이 그 특색인데도<sup>33)</sup> 이처럼 알뜰한 작품들이 드러나니 驚嘆과 喜悅이 인다.

〈맷돌·방아노래〉각편에서 찬탄할 만한 표현을 만날 때, 전승자들은 놀라운 生活詩人이며, 詩的 體驗을 생산적인 생업과 더불어 누리고 있다는 보람찬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일하며 노래하는 그들은 生産의 喜悅과 藝術의 快感을 동시에 즐기면서 自己同一性을 꾸준히 확인한다. 〈맷돌·방아노래〉사설의 각편에는 민요가 非文學이 아니라 文學임을 翁變으로 立證하며, 化石이나 骨董이 아니라 모진 苦難을 돌처럼 참아 이겨내며 오늘날 풍요롭고 아름다운 濟州를 이룩한, 가장 깊숙한 자리에 감추어진 不可思議한 底力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本土에도 〈맷돌노래〉는 전하지마는 詩的 形象化는 고사하고, 반복이 造花처럼 요란하다. 반복이야 물론 세계 어딤 민요든, 모든 민요가 지니는 바 특성이어서 口傳詩의 구조에 긴밀한 結合力을 이룩한다. 반복은 말과 같이 短命한 媒體로서는 필요한 측면이기도 하지마는, 지나치게 단조로울 필요는 없다.<sup>34)</sup> 작품 전체를 통하여 “둘러주소 둘러주소”하며 반복되어 나가는 開城地方의 〈맷돌노래〉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直叙의으로 단조롭게 풀어갈 뿐이다.

33) The idea that oral artists, unlike users of written media, compose ‘unconsciously’, may seem to have more truth. Certainly, one mark of oral poetry is that it is ephemeral and cannot involve the long-considered composition and drastic revision, blue pencil in hand, possible for the composer of written verse. This means that inconsistencies may not be ironed out in revision in an oral poem. (Ibid., p. 127)

34) Patterns of repetition can provide structure and coherence to an oral poem—a necessary aspect in a medium as ephemeral as the spoken or sung word—but need not lead to monotony. Repetition in itself can lead to variation both in the intervening non-repeated units, and—very effectively—in strategic variation within the repeated element itself. This variation and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repetition is a widely used device in oral poetry. (Ibid., p. 103).

|   |       |                     |
|---|-------|---------------------|
| ⑪ | 둘러주소  | 둘러주소                |
|   | 얼른펼적  | 둘러주소                |
|   | 둘르길 랑 | 내 둘르께               |
|   | 둘러주소  | 둘러주소                |
|   | 하나들이  | 갈아도                 |
|   | 둘러주소  | 둘러주소                |
|   | 열스물이  | 가는듯이                |
|   | 둘러주소  | 둘러주소                |
|   | 먼메사람  | 듣기 좋게               |
|   | 둘러주소  | 둘러주소                |
|   | 결에사람  | 보기 좋게               |
|   | 둘러주소  | 둘러주소 <sup>35)</sup> |
|   | (略)   |                     |

이는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의 다음 민요 Navaho song of the Horse 와도 비슷해서 제주도의 <맷돌·방아노래>처럼 압축되고 빼어난 뜻을 머금기 어렵다. 어쨌든 反復法 등 併行體는 영국, 스코트랜드의 민요에도 잘 나타나듯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해결의 단계로 漸進하는 것이 일반 이다.<sup>36)</sup>

How joyous his neigh!  
 Lo, the Turquoise Horse of Johano-ai,  
 How joyous his neigh,  
 There on precious hides outspread standeth he;  
 How joyous his neigh,  
 There on tips of fair fresh flowers feedeth he;  
 How joyous his neigh,  
 There of mingled waters holy drinketh he;  
 How joyous his neigh,

35)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第一書房, 1933, 1220 번의 자료.

36) Karpeles, M.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p.41.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3.

There he spurneth dust of glittering grains;  
 How joyous his neigh,  
 There in mist of sacred pollen hidden, all hidden he;  
 How joyous his neigh,  
 There his offspring many grow and thrive for evermore;  
 How joyous his neigh!<sup>37)</sup>

俗談과 흔히 交流되는 민요를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골라 본 결과 역시 〈맷돌·방아노래〉가 압도적이어서, 그 집계는 제주도민요 전반의 무려 4분의 3에 이르고 있다. 일상 회화생활 가운데 민중의 共鳴을 얻고 公認貨幣처럼 서민사회에 널리 通用되는 짜릿한 語句가 俗談으로 쓰이게 마련이며, 이처럼 平易明快하고 的確痛切한 속담이 제주도민요 가운데서도 〈맷돌·방아노래〉사설에 흔하다는 점 또한 〈맷돌·방아노래〉가 우수함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詩的 香薰이 깊은 자료들을 천천히 감상해 나갈 여유가 없다. 앞에서 본 〈맷돌·방아노래의 사설내용 분석〉에 따른 ‘生活苦’·‘自立·勤勉’·‘시집살이’·‘愛情’·‘家事·家族’·‘警世’·‘信仰’·‘風土’·‘꿈·所望’ 등 도민의 생활 전반을 노래한 민요의 분류항목에 따라 한두 편씩을 보는 것으로 그 實相을 살필까 한다.

# ① 生活苦

|        |       |
|--------|-------|
| ⑫ 이내전성 | 누룩의전성 |
| 누룩석듯   | 석어나진다 |
| 누룩석듯   | 술석엄시민 |
| 항를인덜   | 살아나지라 |

(151)

〈語釈〉 이내 前生                      누룩의 前生

37) Curtis, N. *The Indians' book*, Harper and Bros, p. 362, New York and London, 1907.

|       |          |
|-------|----------|
| 누룩 썩듯 | 썩어나진다    |
| 누룩 썩듯 | 살 썩고 있으면 |
| 하루인들  | 살아나지랴    |

제주도는 이른바 ‘地窄民稠’의 섬인데다가 이에 덮쳐 苛烈한 收奪・壓制의 역사로 일관했다. 그러니 내 前生은 누룩의 전생이요, 누룩 썩듯 썩으며 살 길밖에 없는 실정에 직면한다. 돌아가며 나를 울리는 ‘씨아 前生’이라 비유하기도 하고 (152), 나막신 신어 돌다리 타듯 살아갈 길 밖에 없다고 부딪친 極限을 受容하는가 하면 (153), ‘춤쌀의 팔자’라고 安分하기도 한다 (154). 누룩 썩듯 살 썩는다면 하루인들 살아갈 수 없는 일, 누룩 썩듯 내 살이야 썩을 수 있겠느냐는 自彊의 決意도 숨린다. 前 2行과 後 2行은 對句를 이루면서 주어진 運命의 實相 및 운명과의 대결을 노래했다. 倦怠・逼迫・悲哀 등과 싸우는 이들은 口傳文學이라는 형태로 이를 표현함으로써 그 권태・핍박・비애 등을 조절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8)</sup>

## ② 自立・勤勉

|        |        |
|--------|--------|
| ⑬ 나것웃언 | 놈의것먹으난 |
| 돌픈말에   | 짐이로고나  |
| 신것이랑   | 신유에먹곡  |
| 웃인제랑   | 도랭을말라  |

( 49 )

|      |        |          |
|------|--------|----------|
| 〈語釈〉 | 내 것 없어 | 남의 것 먹으니 |
|      | 고달픈 말에 | 짐이로구나    |

38) People contending with boredom or oppression or grief can control or come to terms with it by expressing it in the literary form of a poem. This must in a measure be true of all oral art (though it may apply somewhat differently to the poet and/or performer than to a merely listening public); (Ruth Finnegan, op. cit., p. 220).

있는 것일랑           있기에 먹고  
없는 땀랑           달라고를 말라

⑭ 보리 곱곡           삼거린되  
아기우회           날줍아노라  
(85)

〈語釈〉 보리 곱고           삼 갈렸는데 39)  
아기 위에           날 집어 놓아라

⑮ 밤에 짙듯           ㅁ레 굴듯ㅎ민  
세간 못살           사름이 셔냐  
(77)

〈語釈〉 밤아 짙듯           멧돌 갈듯 하면  
살림 못 살           사람이 있더냐

自力으로 생활을 대처해 나가면서 역척스레 勤勉하는 자세가 확고히  
섰다. 내 것 없어 남의 것을 먹었더니 고달픈 말에 얹혀진 짐이라는 것,  
損分도 過分도 없이 守分하며 살 일이요, 결코 依他하지 말자는 信念이  
흠사 종교의 教條 같다. 自力・自主・自辨・自彊의, 守分自足の 意志가  
드러났다(⑬).

⑭⑮는 勤勉을 노래한 두 편. 보리 이삭이 익어 杪부라지면 서둘러  
보리를 베어야 하고, 삼나무에 새로 결가지가 돌아 갈려 뻗게 되면, 삼  
나무도 벨 시기를 놓쳐 버린다. 寸刻을 다투는 바 이 두가지 일거리가  
겹쳐 하늘과 땅이 맞붙는 바쁨 속에 어찌하라고 어린애마저 보채어 우  
는가. 아기가 내 위에 얹혀지기보다는 아기 위에 내가 얹혀 도움 받고  
싫어하는 逆說이다(⑭). “보리 곱곡 삼거린되 (보리 杪부라지고 삼갈렸는  
데)”란 표현은 극도의 奔忙을 드러내는 慣用的 표현, 곧 속담이기도 한

39) 외 줄기로 뻗어나가던 삼나무 줄기에 새로 결가지가 돌아 갈려 뻗는 일.

데, 李齊賢의 〈益齋小樂府〉에서도 七絶의 耽羅民謠는 바로 이를 노래했다.

|                        |                  |
|------------------------|------------------|
| 從教糶麥倒離披                | 쓰러진 보리 이랑 그대로 두고 |
| 亦任丘麻生兩歧                | 가지 생긴 삼도 버려 두고서  |
| 滿載靑瓷兼白米                |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
| 北風船子望來時 <sup>40)</sup> |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누나  |

제주도 여인들이 치러야 할 노동의 부피와 무게가 얼마만인가를 어렵 할 수 있는 자료가 술하니, 방아 짚고 밧돌 가는 일이 거의 날마다 되 풀이되다 보면, 어찌 만만한 일일 수 있으랴만, 이런 일쯤은 오히려 싱겁게 볼 만큼, 이들은 일과 더불어 태어나서 일과 더불어 살다 간 다(15).

### ③ 시집살이

흔히 韓國民謠의 精華를 〈시집 살이 노래〉라 보기도 한다.<sup>41)</sup> 제주도민 요에서는 이 〈시집 살이 노래〉가 〈밧돌·방아노래〉속에 섞이어 불린다.

제주도 여인의 시집살이의 傳來的 樣相이 本土와 어떻게 다른가는 장차의 과제로 남겨 두고라도 시집살이의 苦衷, 그 자체만은 本土와 비슷하다. 그것은 시집살이의 쓰라림을 표현한 것이 〈시집살이 노래〉 전반의 40%를 넘는다는 데서도 立證된다.

|        |       |
|--------|-------|
| ⑬ 나어명은 | 그리는애기 |
| 눔은주난   | 종으로민다 |
| 눔의중에   | 난일도서견 |

40) 耽羅 地狹民貧. 往時 全羅之賈販壺器稻米者, 時至而稀矣, 今則官私牛馬蔽野, 而靡所耕墾, 往來冠蓋如梭, 而困於將迎, 其民之不幸也, 所以屢生變也.

4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p.294, 首善社, 1949.

일름이랑

불르도말라

(433)

|      |       |         |
|------|-------|---------|
| 〈語釈〉 | 내 엄마는 | 그리는 아기  |
|      | 남은 주니 | 중으로 민다  |
|      | 남의 종에 | 난 일도 싫어 |
|      | 이름일랑  | 부르지도 말라 |

|   |       |       |
|---|-------|-------|
| ⑬ | 씨어머 님 | 씨암툭걸음 |
|   | ㅁ레골뎌  | 또생각남져 |

(474)

|      |        |        |
|------|--------|--------|
| 〈語釈〉 | 씨어머님   | 씨암툭 걸음 |
|      | 맷돌 갈 뎌 | 또 생각나네 |

친정어머니야 愛之重之하는 자신이지 만 七去之惡, 三從之道에 묶이어 사는 시집살이는 남의 종살이나 다름없다면 이름이 붙여질 명분도 없다. 여인이야 본시 남의 종으로 태어났으려니 하는 宿命, 自卑가 뚜렷하다 (⑬). 媳母의 舉動을 ‘씨암툭 걸음’에 비유했음도(⑭) 마뜩하거니와, 媳家族들을 일상 접촉하는 家畜・海魚 등 동식물로써 즐겨 비유하며 노래한 것은 재미있다. 媳父는 ‘구쟁기’(소라)・‘수툭’(수툭지)・‘장독’(수툭)에, 媳母는 ‘암툭’(암툭)・자리・‘암툭’(암툭지)・호박・‘점복’(전복)에, 媳妹는 ‘줄락’(재빠르고 자그만 海魚)・‘구살’(섬계)・‘베룩’(벼룩)・‘고생이’(용치놀래기)・‘중이’(취)에, 남편은 ‘몽개’(문어)・‘술치’(쭈기미)・문둥이에 비기고 있다. 具象的, 日常的, 可視的인 것들을 끌어다가 즐겨 비유함으로써 그 等式의 緊張體系를 高調하며 그 歌意를 실감 있게 줄인다. 이것은 민요에서 흔히 보는 題材와 비유의 특성이기도 하다.<sup>42)</sup> 고된 시집살이로 말미암아 갖은 시달림과 슬픔에 쌓인 여인들이지만 이런 諧謔으로써 안정과 여유를 찾는다.

42) 拙稿; “濟州島民謠에 있어서의 譬喩法修辭”, 《국어국문학》22, pp.19 국어국문학회, 1960.

민요가 겉으로 보아서는 슬프지만, 슬픔과 함께 해학을 지니고 있어서  
해학이 슬픔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sup>43)</sup>

#### ④ 愛情

⑬ 한락산으로                      느리는물에  
곤쉴씻언                      밥을호난  
늑도하곡                      돌도하곡  
넘이웃인                      탓이로고나  
(333)

|      |       |        |
|------|-------|--------|
| 〈語釈〉 | 漢聲山으로 | 내리는 물에 |
|      | 흰쌀 씻어 | 밥을 하니  |
|      | 누도 많고 | 돌도 많고  |
|      | 임이 없는 | 탓이로구나  |

⑪ 전처소박 양첩 혼놈아  
한강바당 가운데들영  
즈지으남 허꺼나불라  
구름생경 돌진밤새게  
(380)

|      |        |          |
|------|--------|----------|
| 〈語釈〉 | 전 처 소박 | 양철한 놀아   |
|      | 한강 바다  | 가운데 들어   |
|      | 엷은 안개  | 흘어나 버려라  |
|      | 그믐 생져  | 달 질 밤 새게 |

相思와 기다림의 純情을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 ‘흰쌀’·‘뉘’·‘돌’ 등을 등장시키면서 미쁘게 노래했는가 하면 (18), 蓄妾한 남성에게 대한 咀呪·怨情을 노래하는 데 한치의 여유도 두질 않았다 (19)<sup>44)</sup>.

43) 조동일; 《우리 문학과 의 만남》, p.113, 弘盛社, 1949.

44) 필자의 《濟州島民謡研究上》에서는 咀呪・怨情을 노래한 〈맷돌·방아 노래〉들을 ‘사랑과 원한의 노래’ 속에 묶어 놓았는데 (pp.94~100, 자료 373~404) 이러한 極限의 表現이 꽤 쏟아져 나온다.

⑤ 家事・家族

結婚・思父母・思母・兄弟情・子息情・妾・男便・主婦・繼母・寡婦 등이 家事・家族관계 노래 속에 망라된다. 그 가운데도 어버이사랑, 특히 母情이 깊숙히 노래 되는가 하면, 妾노래가 많음도 異例의이다.

- ⑩ 어멍편에            나아나가멍  
바농간딕            썰아나가라  
(274)

〈語釈〉 어머니 편에            내 아니 가며  
바늘 간 데            실 아니 가라

- ⑪ 저산돌런            난지젠하난  
짐패꺾란            못지듯  
부위공은            가프젠하난  
명이꺾란            못가파라  
(239)

〈語釈〉 저 산 돌러            난 지려 하니  
‘질빵’<sup>45)</sup> 째아            못 지듯  
부모 공은            갇으려 하니  
명이 째아            못 갇더라

- ⑫ 나거든에            삼성제나라  
나거든에            스성제나라  
웨낭기랑            웨돔박을듯  
웨로난일            서뤄니훈다

45) 제주도에서는 짐을 지는 데 쓰이는 줄로서 ‘질빵’과 짐패’가 共用되는 바, ‘질빵’이라면 실로 짠 줄이며 굵은 새끼로 된 것은 ‘짐패’라고 함.

비온날에           웨 상제울듯  
웨 로난일          서뤄니혼다  
(605)

|      |         |         |
|------|---------|---------|
| 〈語釈〉 | 나거들랑    | 삼형제 나라  |
|      | 나거들랑    | 사형제 나라  |
|      | 외나무라    | 외동백 열 듯 |
|      | 외로이 난 일 | 서러워한다   |
|      | 비 온 날에  | 외喪主 울 듯 |
|      | 외로이 난 일 | 서러워한다   |

②은 나무랄 데 없는 思母謠. 〈맷돌·방아노래〉에는 알뜰한 思母謠가 꽤 보이거니와, 아버지는 호미요 어머니는 낫이라는 高麗歌謠의 〈思母曲〉에 전주더라도 손색없다. ‘바늘과 실’은 ‘어머니와 자식’과 마땅한 等式關係를 이룬다. 이 둘은 늘 더불어 있어야 하고 따라다녀야 하는 不可分離性을 지녀서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바늘(어머니)은 실(자식)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희생한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실 가는 데 바늘 간다”하는 전국에 흩어진 속담을 끌어다가 賞嘆할 만큼 좋은 사설을 낳았다.

②을 대할 때, “아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로 시작되는 鄭澈의 時調가 떠오른다. 같은 주제이지만 이 시조는 자못 訓諭調요, 叙述的인데 비해 ②은 具象的으로 실감할 수 있어서 더욱 값지다. 獨子의 외로움을 6行으로 노래한 ②는 “웨 낭기랑 웨 돛박울듯”, “비온날에 웨 상제울듯”이란 속담 둘이 끼어듬으로써 歌意는 펴 곡진해졌다. ‘나’·‘웨’의 頭韻과 ‘에’·‘일’·‘라’·‘듯’·‘다’의 末韻作用도 다채롭거니와 初章(1,2行)·中章(3,4行)·終章(5,6行)으로 나뉘 볼 수 있다는 데서 시조의 기원을 어렵하는 데도 좋은 예가 된다. 終章에 해당되는 5,6行은 中章(3,4行)을 이어받아 漸層的 強勢를 드러내면서 매듭지었다.

妻妾을 제제한 〈맷돌·방아노래〉로서 주목할 바는 本妻를 ‘오름의 돌’

에, 小室을 ‘소나무 바람’에 비유한 민요다 (557) 표현이 정갈스러움은 물론, 제주도민의 自彊不息意識을 집약한 優美한 작품이다.

⑥ 謔 世

- ②③ 새야새야                      곡은양말라  
    밥주리도                    제곡은 간에  
    아이 못인                   구물에 든다  
                                    (618)

〈語釈〉 새야 새야                      약은 양 말라  
            참새도                      제 약은 간에  
            아이가 잔                    그물에 든다

- ②④ 시어노난                    신담배라라  
    웃어노난                    난그리더라  
                                    (626)

〈語釈〉 있어 놓으니                    신 담배더라  
            없어 놓으니                    난 그리더라

世間 도처에 함정은 있게 마련이매, 人智의 限界를 확신시켜 주는 노래(②③)와 ‘시’의 頭韻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心理學上 이른바 ‘신포도機制’(②④)를 드러낸 자료를 골라 봤다.

⑦ 信仰・風土

- ②⑤ 이산앞원                    당오백뭇곡  
    저산앞원                    절오백뭇곡  
    절오백광                    당오백새에  
    오백장군                    절귀경잔다  
                                    (763)

〈語釈〉 이 산 앞엔                      당 오백 베풀고  
               저 산 앞엔                      절 오백 베풀고  
               절 오백과                      당 오백 새에  
               五百將軍<sup>46)</sup>                  절 구경 간다

②⑥    득리손당                      큰애기덜은  
           피방애 짚기                  일수로다  
           가시오름                      큰애기덜은  
           담배피기                      일수이곡  
           점꼴애                        큰애기덜은  
           화토치기                      일수로다

(771)

〈語釈〉 橋来 松堂                      큰아기들은  
               피 방아짚기                  일수로다  
               加時里                      큰아기들은  
               담배 피기                      일수이고  
               城邑里的                      큰아기들은  
               화투 치기                      일수로다

②⑦    조종조종                      무신조종  
           직주조종                      한로산조종  
           관덕청조종                  나리님조종  
           조천조종                      물장시조종  
           삼양조종                      양테조종  
           함덕조종                      멜치조종  
           짐녕조종                      좁수조종  
           종달리조종                  소곰조종  
           손당조종                      피썰조종

46) 五百羅漢이라고 하는데, 漢拏山 白鹿潭에서 南쪽으로 내려가는 山허리에 흠사 수 많은 佛像들이 즐비한 것과 같이 생긴 奇岩. 巨人傳說의 주인공인 '설문대할망'의 아들 五百이 죽어 奇岩을 이룩했다 한다.

|        |       |
|--------|-------|
| 성산조종   | 일출봉조종 |
| 가시오름조종 | 몽생이조종 |
| 대정조종   | 벽룡조종  |

(797)

|            |         |
|------------|---------|
| 〈語釈〉 조종 조종 | 무슨 조종   |
| 제주 조종      | 漢拏山 조종  |
| 觀德亭 조종     | 나리님 조종  |
| 朝天 조종      | 말 장수 조종 |
| 三陽 조종      | 양태 조종   |
| 威德 조종      | 멸치 조종   |
| 金寧 조종      | 해녀 조종   |
| 終達里 조종     | 소금 조종   |
| 松堂 조종      | 피쌀 조종   |
| 城山 조종      | 日出峰 조종  |
| 加時里 조종     | 망아지 조종  |
| 大靜 조종      | 바람 조종   |

濟州는 本源的 巫俗儀禮가 옛부터 민간사회의 바탕을 파고 들었는가 하면 佛教信仰이 융성한 곳이라 ‘堂五百 절五百’ 이야기는 너무나 알려졌다. 예전 堂과 寺院이 5백에 이르렀었다는 이야기에 漢拏山 허리의 奇岩群 五百羅漢을 끌어다 넣음으로써 濟州民의 信仰基調를 요령 있게 노래했다(25).

26, 27은 이른바 <큰애기풀이>라고도 하는데 전국에 흩어진 노래 형태다. 각지방 처녀들의 特異生業과 名物등을 열거한다. 《濟州島民謠研究上》에는 비교적 長型인 것이 보이는데(770~773) ‘女多男少’의 지역이어서 그런지, 전국에서도 제주도의 것이 出衆하다. 26의 橋來(北濟州郡 朝天面)・松堂(北濟州郡 旧左邑)은 山村의 典型으로서 제주도 구석구석 마다 散在된 本郷堂의 근원이라고 본풀이<sup>47)</sup>로 실화되기도 하는 곳ियो,

47) 巫神의 내력 이야기로서 巫俗神話인 동시에 무당굿의 祭次 이름이다.  
 ‘본풀이’의 ‘본’은 ‘根本’을 뜻하며 ‘풀이’는 ‘解明’의 뜻이다.  
 ‘본풀이’란 巫神의 出生, 成長, 苦難을 그려가다가 정해진 巫神으로서의 職能을 차지하여 일정한 곳에 坐定하는 내용으로 끝맺는다.

城邑里(南濟州郡 表善面)는 1423~1913 년의 약 5 백년간 제주도가 三縣分立統治되었을 당시 旌義縣의 縣廳所在地였던 곳이다. 加時里도 그 이웃 마을인데, 이 지경 여인들이 활달하고 술·담배를 즐긴다는 것은 오랜 동안 官妓들이 이 마을에 살면서 은연중 퍼뜨린 遊興의 生活態度의 영향 때문인가 한다.<sup>48)</sup>

|    |      |        |
|----|------|--------|
| ②8 | 좁쌀로랑 | 저고리깃곡  |
|    | 피쌀로랑 | 동전을 놓앙 |
|    | 곰이웃언 | 서월을가난  |
|    | 즈지곰도 | 생겨라혼다  |
|    |      | (691)  |

|      |        |        |
|------|--------|--------|
| 〈語釈〉 | 좁쌀로랑   | 저고리 깃고 |
|      | 피쌀로랑   | 동정을 놓아 |
|      | 고름이 없어 | 서울을 가니 |
|      | 자주 고름도 | 생기더란다  |

|    |       |        |
|----|-------|--------|
| ②9 | 나비도사  | 네 놀갓나비 |
|    | 두 놀개랑 | 날이나도라  |
|    | 므심가곡  | 뜻가는 섬의 |
|    | 놀 고아니 | 가리엠힌다  |
|    |       | (678)  |

|      |       |         |
|------|-------|---------|
| 〈語釈〉 | 나비도야  | 네 날갓 나비 |
|      | 두 날꺄랑 | 내게나 달라  |
|      | 마음 가고 | 뜻 가는 섬에 |
|      | 날고 아니 | 가랴 한다   |

좁쌀과 피쌀은 제주도민의 실정이다. 좁쌀과 피쌀로 저고리와 동정을 만들고도 고름은 마련할 길 없었다. 그대로 서울을 가 보니 자주색 고

48) 拙稿; “旌義고을(1)”, 《耽羅文化》第2號, pp.261~267,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3.

름이 유행이더라는 ㉘는 제주도민의 實狀이요 希願이다. 도민의 主穀은 조와 보리와 雜穀인데, 쌀에 비해 좁쌀은 아주 자잘하고 質朴하다. 시세가 없어 제주도내에서 그냥 맴돌 뿐, 海外로 팔려 나갈 素地도 機緣도 없다. 좁쌀은 제주도민의 實狀과 宿命을 表象했다. 도민들은 좁쌀에 자신들의 逆境과 애달픔을 알맞게 投影했다.

어쨌든 섬의 制約은 그대로 지난날 도민들의 삶의 限界였으며 이에서 탈출하려는 꿈을 절절히 펼친다(㉙). 그들은 이런 고운 꿈을 알뜰히 간직한 채 自己實存을 확인, 격려하고 自彊不息한다. 守分知足하면서 위대하게 승리하지는 못하나마 억척스럽게도 敗北하지는 않는다.

|        |       |
|--------|-------|
| ㉙ 나눌레야 | 산넘어가라 |
| 나눌레야   | 물넘어가라 |
| 산도노판   | 못넘엄서라 |
| 물도지 편  | 못넘엄서라 |

(744)

|      |       |          |
|------|-------|----------|
| 〈語釈〉 | 내 노래야 | 산 넘어 가라  |
|      | 내 노래야 | 물 넘어 가라  |
|      | 산도 높아 | 못 넘고 있더라 |
|      | 물도 깊어 | 못 넘고 있더라 |

맷돌·방아질과 더불어 그들의 노랫소리는 무한한 情感과 不敗의 意志를 실은 채 漢拏山으로 太平洋으로 멀리멀리 번져 흐른다.

이제까지의 〈맷돌·방아노래〉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려 한다.

①〈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민의 핵심이다. 제주도민요의 優秀性은 質 높고 分量 많은 〈맷돌·방아노래〉를 간직했기 때문이라 본다. 〈맷돌·방아노래〉는 맷돌 갈며 부르는 〈맷돌노래〉와 방아(남방에) 찧으며 부르는 〈방아노래〉를 通稱한다. 가락이 다르므로 樂曲으로 보아서 分立해야 타당하지 마는, 사실은 같기 때문에 한 노래로 다룰 수 있다.

②〈맷돌·방아노래〉의 歌唱機緣은 맷돌 갈고 방아 찼는 일이다. 제주도에는 밭이 대부분이요, 도민의 主穀은 조·보리·雜穀이므로 이를 찼고 빵고 삶고 갈아 먹기 위하여 맷돌·방아질이 유달리 성했고 빼어난 〈맷돌·방아노래〉가 전한다. 이 노래가 특출한 까닭은 맷돌·방아질이 노래하기에 알맞다는 점에도 있다. 곧 이 일은 집안에서 한둘이 조용하게 장시간 無我之境에서 치르는 작업이므로 잊었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다.

맷돌·방아질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傳承者들의 기억에만 남겨져서 人爲條件에 따라서만 불러진다. 〈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된다. 그 歌唱者는 女性이니, 이는 제주도민요의 대부분이 婦女謠라는 사실의 밑바탕이 된다.

③〈맷돌·방아노래〉의 形式은 4 5調의 2音步 1行씩의 4行이면서 2行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 定型이다. 〈맷돌·방아노래〉는 대부분 獨唱으로 부르는데, 몇가지 형태의 先後唱과 交唱이 있다.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듯이 〈맷돌·방아노래〉의 各篇을 부르는 순서는 不定이다. 다만 부르는 사실의 꼬트머리에 나타나는 語彙의 聯想作用에 따라서 다음 篇의 민요를 想起하고 불러 나가는 연결에 따른 併行體가 작용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

④〈맷돌·방아노래〉의 사실내용은 勞動實態보다 民間生活實態와 生活意識에 대부분 쏠리고 있다. 이는 곧 〈맷돌·방아노래〉의 사실이 우수한 이유도 되는데, 제주도민요의 유다른 값어치도 이에 말미암는다. 〈맷돌·방아노래〉에서 노래되는 民間의 生活實態와 生活意識은 폭이 넓어서 〈시집살이노래〉도 이 〈맷돌·방아노래〉에 포괄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주도 여성노동요를 통해 도민생활과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내용인 ‘自立·勤勉’·‘시집살이’·‘家事·家族’·‘警世’·‘信仰·風土’ 등은 거의가 〈맷돌·방아노래〉에 쏠리고 있다.

⑤ 제주도민요 가운데는 이름난 國文學古典作品과도 견줄 만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文學의 香薰이 짙은 사실들은 거의 〈맷돌·방아노래〉에

쏟았다. 俗談과 交流되는 사실이 이 〈맷돌·방아노래〉에 많은 점 또한 그 優美함을 드러내 주는 근거라 하겠다. 題材別 자료들을 통하여 濟州島人 特有의 存在樣式과 深層意識을 透視할 수도 있다.

## 2. 海 女 노 래

### (1) 背景・分布

〈海女노래〉는 옛부터 세계 어디서든 전승되는 〈뱃노래〉의 일종이다. 주로 배를 타서 櫓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가 세계 도처에서 전해지는 〈뱃노래〉와 다른 점은 반드시 ‘海女’라는 특수한 집단에 따라 海女作業을 하기 위해 오갈 때에만 탄 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는 민요라는 점이다. 따라서 〈海女노래〉를 따로 定立하는 한편, 남성들이 漁撈을 위하여 배를 타고 나가며 부르는 민요는 이 〈海女노래〉와 구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뱃노래〉로 일컬어 본다.

〈海女노래〉는 유별나게 나라 안팎의 관심을 사로잡는데, 그 까닭은 다음 몇가지다.

① 〈海女노래〉를 부르는 제주도의 海女는 세계의 관심이 쏠릴 만큼 이름났다. 제주도는 해녀의 發祥地라 볼 수 있고, 韓國과 日本에만 흠어진 해녀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어 異色視되기 때문이다.

② 해녀질의 作業主体는 연약한 여인이어서 ‘女多’의 상징이며, 作業場所는 시퍼런 바다, 곧 第一種共同漁場<sup>49)</sup>인가 하면, 그 작업방법은 裸潛이기에 특이한데, 이들이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海女노래〉 또한 珍重性이 돋보이게 마련이다.

③ 피업피업 本土 연안에 흠어져 있는 그곳 출신의 해녀거나 日本의 해녀들은 〈海女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는데, 유다르제도 제주도 해녀들만

49) 海女들이 작업하는 어장을 뜻하는데, ‘裸潛漁場’ 또는 ‘海女漁場’이라고 한다. 水産業法施行令 제 11조 2항에 따르면, ‘第一種共同漁場’이란 最干潮時 水深 10m 이내 (해조에 인망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m 이내)의 수면을 말하는데, 다만 海底의 高低로 그 水深의 한계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水深을 가진 水面 넓이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면까지 초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거친 파도를 헤쳐 노를 저어 나가면서 力動的인 〈海女노래〉를 부른다.

④ 해녀들은 다만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本土・日本・中國・러시아까지 물질하러 나갔었으니, 그 超人間的 鬪志와 氣魄은 이 〈海女노래〉와 더불어 재확인할 수 있어 〈海女노래〉가 지니는 뜻과 獨自의 性格은 더욱 뚜렷해진다.

〈海女노래〉의 분석, 연구는 중요, 시급하지만 이를 입체적으로 이룩한 바 아직 없다. 이의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海女노래〉 전반을 녹음, 정리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옹골지게 수집돼 있지 못하다.

〈海女노래〉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 배경인 해녀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도 마땅한 수준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生理的 연구만이 활발하고, 그 외로는 단편적인 조사 결과가 드러날 뿐이다.<sup>50)</sup>

50) 일부의 海女調査研究論著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改正版 1973)
- 姜治明; “濟州島人, 特別 海女를 中心으로 한 骨盤計測”, 서울大大學院, 1953.
- 高翔龍; “韓國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 成均大大學院, 1967.
- 金斗熙・金榮敦; “海女漁場紛糾調査研究”, 《論文集》제14집(社會科學篇), 濟州大, 1982.
- 金榮敦; “海女の 収益侵害”, 《論文集》제2집, 濟州大, 1970.
- 金榮敦; “濟州島海女研究序說”, 《省谷論叢》제1집, 省谷學術文化財團, 1970.
- 金榮敦;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 金榮敦; “海女노래와 海女”,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7.
- 李京男; “濟州島海女の 勞動生産性實態”, 《제주도》제34호, 제주도, 1968.
- 李種藩; “韓國海女の 末梢部體熱 發散量과 血流量과의 相關性에 관한 연구” 《航空醫學》제15권 1호, 1967.
- Cho Haejoang;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1979. Ann Arbor Michigan U.S.A. London, England.

해녀 조사의 범위와 대상은 실로 광범하다. 주요항목만 하더라도 名稱・起原・分布・器具・海女服・作業・特殊技倆・漁場과 入漁權・採取物・收益・集團・兼業實態・職業病・信仰과 說話・國內外出稼・特殊生理・〈海女 노래〉등을 들 수 있다. 첫째 民俗學的, 人類學的 觀點에서 조사,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生活實相이 살살이 記述, 분석돼야 할 것이며, 둘째는 이들이 부르는 〈海女 노래〉를 대상으로 文學的, 音樂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採取物과 收益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셋째 産業・經濟的 측면의 고찰이 뒤따라야 하겠고, 넷째로는 그들의 生理와 職業病 등을 대상으로 한 生理學的, 醫學的 측면의 고찰 및 亂脈을 이루던 入漁慣行과 權益 연구를 위해서는 다섯째 法學的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日本 해녀와의 비교연구가 따라야 할 것도 물론이다. 연구대상이 광범하고 多元的 측면의 조사연구가 절실하므로 많은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겠

- 崔在錫; “濟州島 潛嫂家族의 權力構造”, 《東洋學》제 5 집, 檀國大東洋學研究所, 1975.
-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창간호, 韓國民俗學會, 1969.
- 洪性穆; “海女와 漁場”, 《제주도》제 3호, 제주도, 1962.
- “海女”, 《國文學報》제 5 집 (午島學術調查), 濟州大 國語國文學會, 1973.
- “海女”, 《國文學報》제 6 집 (加波島學術調查), 濟州大 國語國文學會, 1974.
- “海女”, 《國文學報》제 7 집 (中文里學術調查), 濟州大 國語國文學會, 1975.
- “海女”, 《海村生活調查報告書: 龍水里 및 吾照里》(濟州大 民俗博物館), 濟州大, 1978.
- 稻田菊太郎; “濟州島潛女集落(一)”, 《阪南論集》第 9 卷 2 號, 阪南大學, 1973.
- 稻田菊太郎; “濟州島潛女集落(二)”, 《阪南論集》第 11 卷 3 號, 阪南大學, 1976.
- 稻田菊太郎; “濟州島潛嫂集落的變貌”, 《阪南論集》第 17 卷, 2, 3 號 (人文・自然科學篇), 阪南大學, 1981.
- 田邊悟; “濟州島의 海女에 みる 民俗의 類似性”, 《日本民俗學》第 91 號, 日本民俗學會, 1975.
- Hermann Rahn, Suk-ki Hong: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 Scientific American, May 1967, Scientific American Inc. 1967.

지마는, 그런대로 여인들이고도 생명을 다 거는 이색적 생업이매, 이의 조사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그 값어치가 두드러지다.

〈海女노래〉를 분석하는 데도 그 작업분량은 엄청나다. 해녀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오늘날에, 그 민요 분석에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모든 민요 연구가 그렇듯 가락을 분석하는 일이 소중한 데 이는 전공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sup>51)</sup>

여기에서 다루려는 과제는 다음 몇 가지다.

1. 〈海女노래〉가 제주도 민요에서 차지하는 位相은 어떠하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2. 〈海女노래〉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그 전승자의 실태는 어떠한가.
3. 〈海女노래〉의 唱法은 어떠한가.
4. 〈海女노래〉가 지니는 機能은 어떠한가. 〈海女노래〉사설은 무엇을 제재하고 있으며, 그 사설의 제재로 보아 그들의 集團意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5. 〈海女노래〉사설이 지니는 내용은 어떠한가. 그 사설 내용에 담긴 해녀들의 생활과 실태는 어떠한가.
6. 〈海女노래〉사설의 표현은 어떠하며, 그 표현방법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51) 1960년대부터 제주도민요를 연구하는 羅運榮에 따라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延世論叢》제9집, 1972) 등이 발표된 바 있으며, 李輔亨이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民俗藝術篇’(濟州道篇)(1974)에서 제주도의 民謠·童謠·巫樂을 조사보고한 바 있다. 강영미 등이 〈海女노래〉의 가락을 대상으로 碩士論文을 쓴 바 있고 櫻井哲男에 따라 “韓國濟州島に現存する作業唄について”등의 작업이 이어지는가 하면 服部龍太郎은 《濟州島民謠紀行》(1972)을 낸 바 있다. 1981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藝術室에서는 10개년計劃에 따라 《韓國民謠大觀》全10卷 발간을 위한 제1차년도 조사대상지를 제주도로 잡고 韓萬榮·權五聖·李輔亨·金榮教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海女노래〉는 유독 제주도에서만 제격으로 전해진다. 日本에서도 〈海女노래〉를 민요의 한 종류로 정립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제주도에서처럼 작업과 더불어 뚜렷하게 불리어지지는 않는 듯하다.<sup>52)</sup> 제주도에 많은 마을이 바닷가를 뱅 둘러가며 옹기종기 들어서 있고, 이 해안 마을에는 많은 적든 사시사철 물질하는 해녀들이 산다.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로 나갈 때에는 그 沿海의 지형에 따라 해엄쳐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해엄쳐 나가 작업하는 경우를 ‘못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배물질’이라 한다. 〈海女노래〉는 ‘못물질’하러 해엄쳐 나가면서도 이따금 부르지만은 주로 ‘배물질’할 때 노를 저으면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춰 口演한다. 제주도 해안마을마다 해녀가 있으며 해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海

52) 일본에도 〈海女노래〉를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關山寺弥의 “民謡と海女の傳承”(《日本民俗學》116號, 1978)에서 보인다. 그는 20여편의 〈海女노래〉·〈전복따기노래〉를 분석해 놓고 이 민요들을 독립된 謠種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일본 민요의 分類案을 보면, 水産業 내지 바다에 관제된 민요의 항목을 제각기 독립시키면서도(예를 들면 志田義秀의 《日本民謡概論》에는 ‘漁歌’, 柳田國男의 《民謡覺書》에는 ‘海歌’라는 큰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海女노래〉를 그 속에 끼어넣고 있지는 않다. 柳田國男의 《民謡覺書》(p.320)에서도, ‘海歌’ 가운데 〈海苔採節〉이 끼어 있을 뿐이며 町田嘉章·淺野建二는 ‘水産業에 관한 노래’ 속에 〈藻取唄〉(採藻歌)·〈鮑取唄〉(採鮑歌)·〈石花菜取唄〉(採石花菜歌)·〈岩海苔採唄〉(採石苔歌) 등을 설정하면서도 〈海女노래〉를 따로 독립시키지는 않았다. (町田嘉章·淺野建二《日本民謡集》, 岩波文庫, p.413) 다만 町田嘉章·淺野建二의 《日本民謡集》에 보면 〈海女唄〉(海女노래)가 한편 수록되어 있고(p.413) 仲井幸二郎 外 2人の《日本民謡辭典》(東京堂出版, 1972)에도 〈海女唄〉項이 있는데(p.32) 그 引用對象은 한가지 노래다. 이는 곧 일본에서도 海女가 極盛한 三重県 志摩地方의 〈海女노래〉인 것이다. 全羅採取桶(일본에서는 〈磯桶〉이라 한다)을 머리 위에 이고 작업차 바다로 해엄쳐 나가거나 작업후 불리어지는 노래라고 그들은 해설하면서, 이 노래는 또한 祝歌로서도 불린다고 덧붙였으니 非機能謠로서도 존립한 다는 말이 된다. 어차피 일본에서는 〈海女노래〉의 정립을 이제야 논의 함을 보면, 본격적인 〈海女노래〉는 제주도에서만이 전승된다는 말이 된다.

女노래>가 전해진다. 반드시 해안마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裸潛漁場을 가졌던 마을에서도 가끔 <海女노래>를 부르는 전승자를 만날 수 있다. <海女노래>의 가락은 한가지인데 지역이나 부르는 전승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가락으로 많은 사실들을 임의로 부르는 점은 다른 노동요의 경우와 같다. 다만, 吾熙里(南濟州郡 城山邑) 등지에서는 <정판 짚는 소리>라 해서 보통의 <海女노래>가락보다 매우 生動感 넘치는 것이 전승된다.

물론, <海女노래>는 <뱃노래>·<뱃목 짓는 노래>·<멸치 후리는 노래>들과 더불어 漁業謠에 속한다. 그 사실이나 가락으로 보아 <뱃목 짓는 노래>나 <멸치 후리는 노래>와는 다르고 <뱃노래>와는 비슷하다. 남성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를 <海女노래>와 구분하기 위하여 <뱃노래>라 이름했다. 이 둘은 가락이 비슷한데도 그 사실도 서로 交流되는데, 그 사실내용으로 보아 <海女노래>의 영향을 다분히 입은 듯하다.

<海女노래>를 현지에서는 <해녀노래>·<해녀뱃노래>·<해녀질노래>·<해녀질소리>·<해녀질하는 소리>·<좁녀(네)소리>·<좁녀(네)질소리>·<좁녀(네)질하는 소리>·<좁수소리>·<좁수질소리>·<좁수질하는 소리>·<물질하는 소리>·<네 짓는 해녀노래>·<네 짓는 해녀뱃노래>등으로 일컫는다. ‘좁녀(좁네)’는 ‘潛女’, ‘좁수’는 ‘潛嫂’. 이처럼 <海女노래>를 두고 여러 갈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마는, 어딴 민요든 그게 專門的 機能을 지닌 소리패의 노래가 아니라면, 노동요 같은 本源的인 노래일수록 고정된 謠名이 있을 수 없고, 노래하는 상황을 요약하는 말로서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뜻이 소통되는 표현이 곧 謠名으로 편법상 쓰일 따름이다.

<海女노래>는 제주도민요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해녀 자체가 온 세대에서 주목하는 대상이때, 이런 해녀가 부르는 <海女노래>역시 큰 관심거리가 된다. 가락의 특이성도 전문학자에 따라 밝혀지리라 믿거니와 그 사실 자체로만 보아서는 量的, 質的面에서 보아 뱃돌 갈

고 방아 켜면서 부르는 〈맷돌·방아노래〉다음이라 볼 수 있다.

〈海女노래〉의 경우는 〈맷돌·방아노래〉가 불리는 안정된 분위기와 그 상황이 다르다. 첫째 노래하는 장소가 파도 이는 배위에서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이뤄지니, 그것도 가만 멈춰 있지 않고 달리는 배에서 불안정한 분위기다. 둘째 혼자서 노를 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적어도 둘 이상 수명이 함께 저으며 노래하기 때문에 生動感이 넘치지만 마음이 차분히 갈아앉은 상황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결같이 가다듬어진 사설을 부를 수는 없다. 셋째 노래하는 동안이나 기회가 〈맷돌·방아노래〉처럼 자주 오랫동안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海女노래〉가 불리는 상황을 〈맷돌·방아노래〉의 그것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海女노래〉와 〈맷돌·방아노래〉의 口演實況

| 구 분<br>항 목 | 海 女 노 래                              | 맷 돌 · 방 아 노 래                             |
|------------|--------------------------------------|-------------------------------------------|
| ① 口演場所     | o 바다 위를 달리는 배에서 노를 저으며 부른다.<br>~ 不固定 | o 집안의 일정한 곳에서 줄곧 앉거나 선 채 맷돌·방아질하면서 부른다~固定 |
| ② 口演人員     | o 2인 이상 수인~不安定                       | o 1인 혹은 2인(방아노래는 가끔 수인)~安定                |
| ③ 口演時間     | o 낮에만 불리며 비교적 짧다.                    | o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흔히 밤에 오랫동안 불린다.        |
| ④ 口演頻度     | o 비교적 드물다.                           | o 자주 불린다.                                 |

이래서 〈海女노래〉의 사설은 〈맷돌·방아노래〉의 그것에 비하여 덜 가다듬어진다. 다만 〈타작노래〉·〈밭 밟는 노래〉등 술한 그밖의 노동요들이 따를 수 없을 만큼의 逸品들도 꽤 드러난다. 노래할 소재와 그 기능이 뚜렷하고 〈맷돌·방아노래〉에 미칠 수는 없으나 그 歌唱機緣이

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지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했던 것이 아니라 아세아 4개국에 물질 나갔었으니, 사실의 소재가 풍요로왔다. 本土出稼 때에는 帆船으로 며칠이고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 나감으로써 노래할 기회가 흔했으므로 빼어난 사설들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 (2) 傳承・傳承者

〈海女노래〉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어떤 분들에 따라 불리고 있는가.

민요의 死活與否를 두고 그 작업과 관련시키면 네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sup>53)</sup> 작업과 민요가 현재 전해지기는 하지만 〈海女노래〉는 해녀질과 분리돼 버렸으니, 노를 짓는 작업과 함께 불리는 〈海女노래〉의 전승이 마뜩이 이뤄질 수는 없다. 自然的 傳承이 있을 수 없으며, 自然條件에 따르는 조사란 기대할 수 없고 人爲條件에 따라야만 口演되고 조사할 수 있다. 노동요의 조사여건은 대체로 이런 실정이지만, 다행히도 해녀작업은 이어지는데다가 제주도 해안마을 이르는 곳마다 그 작업이 분포되었는가 하면, 그 傳承에 결정적으로 영향하는 작업과 민요와의 分離時期가 사뭇 오래진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노래를 간직한 분들이 많다. 모든 민요의 전승자가 그렇듯, 해녀 가운데서 비교적 노래 재간이 있는 분들이라야 제대로 노래할 수 있음은 말할 것 없지만, 해녀들이라면 그 가락에는 거의 익숙해 있어서 후렴만은 대체로 부를 줄 안다.

해녀수가 나날이 줄고 구체적 歌唱機緣인 해녀들이 노를 짓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뱃물질’의 경우도 요마적에는 동력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흔하며 本土出稼의 海女도 썩 줄어들는데다가, 요즈음 더러

53) 민요 가운데도 특히 勞動謠의 경우, 작업과 민요와의 상관에 관점 둔다면, ①작업과 민요 모두가 現傳될 뿐더러 이 둘이 密着된 경우, ②작업과 민요 모두가 現傳되기는 하되 이 둘이 分離된 경우, ③작업은 이미 사라지고 민요만 남겨진 경우, ④작업은 남아 있되 민요는 사라진 경우 등이다. 〈海女노래〉는 ②에 해당된다.

물질 나가는 경우도 정기운항선이나 동력선을 타고 가지 돛배를 띄워 직접 노를 젓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海女노래〉의 전승자는 대체로 50 대 이상의 해녀거나 해녀작업의 경력을 쌓았던 분들이다.

편곡된 〈海女노래〉는 학생들 사이에도 꽤 번져 떼지어 놀 때에도 가다가 유쾌하게 합창하기도 한다. 1960 년대초 제주도의 대표적인 唱民謠인 〈오돌토기〉·〈이야홍〉과 함께 이 〈海女노래〉가 편곡되어 전과매체를 타고 널리 보급되는 한편, 각종 문화제전 때의 합창에 따라 번져나갔다.

원노래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이 편곡된 〈海女노래〉는 오랜 세월이 흐를 때,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는 이론처럼 편곡된 것이 본원적인 것인 양 둔갑할 우려마저 짙다고 본다.

노래숨씨가 뛰어나고 협조적인 제보자라 하더라도 한 분이 수십 편의 〈海女노래〉를 부르는 제보자는 아직 만나 보질 못했다. 〈맷돌·방아노래〉와는 달리 적어도 두 분 이상이 부르는 게 정상이요, 가끔 예외가 없는 바 아니지만, 한 분만이면 후렴 받을 분이 없어 이내 끊기게 마련인데, 두세 분이 호흡이 맞아 꽤 신명나게 부르기 시작했어도 불과 10 분 쯤이면 그만둔다. 아주 협조적이라 하더라도 30 분 이상 이끌어 나가질 않는다. 〈맷돌·방아노래〉, 특히 〈맷돌노래〉가 緩慢한 편이라 한다면, 〈海女노래〉는 철저히 작업과 밀착된 채 激情的이므로 억세고 숨찬 노래를 오래 이어갈 수 없다. 쉬다가 다시 부르거나 다른 날 불렀어도 같은 사실이 되풀이되기 일쑤다. 30 년 가까이 민요를 조사, 연구하는 필자로서도 〈맷돌·방아노래〉한 종류만을 3 백여 편 간직했던 康起寶노파 같은 전승자를 〈海女노래〉의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한두마디로 요약하기 어렵겠지만, 우선 〈海女노래〉사설의 분량이 바탕에서부터 〈맷돌·방아노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둘째로는 앞에 보았듯이 口演하는 작업상황이 不固定, 不安定하다는 점, 따라서 셋째 〈海女노래〉에는 流動的 사설이 固定的 사설과 더불어 상당량 끼어들기 때문인 듯하다. 말하자면 ‘固定的 사설’이란 해녀질을 할 때

〈海女노래〉의 가락으로만 부르는 사실을 뜻한다. 이와는 달리 반드시 〈海女노래〉의 사설로 고정되지 않은 채, 唱民謠 등으로 부르는 사설이 어찌다가 전승자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海女노래〉의 가락으로 불리는 경우는 ‘流動的 事實’이라 할 수 있다. 유동적 사실은 고정적 사실만큼 기억을 되살려 잇따라 口演하기가 힘들다.

### (3) 唱 法

〈海女노래〉는 드물게는 해엄처 나가며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낚시거루나 돛배를 타고 물질 오갈 때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른다. 곧 돛배를 타고 本土로 出稼하거나 연안에서 작업하러 오가는 두가지 경우 모두 노를 젓는 律動에 맞춰 노 젓는 동작에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 둘 이상이 노를 젓는 게 일반이므로 그 노래도 몇몇이 先後唱을 하거나 交唱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독창이 대부분인 〈맷돌·방아노래〉와는 이 점에서 대비된다.

#### ① 獨 唱

自然條件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지만, 人爲條件에 따른 수집일 때에는 獨唱하는 경우를 가끔 만난다. 인위조건일 때 先後唱으로 후렴을 받을 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호흡이 어울리지 않을 경우엔 혼자 부르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다.

|      |                        |         |
|------|------------------------|---------|
| A ③① | 혼착손에 헤                 | 빛창들고 흐  |
|      | 혼착손에 헤                 | 두렴박을 흐  |
|      | 메여놓고 흐                 | 안녀밧녀 흐  |
|      | 숨은여로 흐                 | 요내빼꾸를 흐 |
|      | 녹일라고 흐                 | 우리부모 흐  |
|      | 날날더냐 히                 | 이기여저라 히 |
|      | 이기여저라 히 <sup>54)</sup> |         |

54)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市篇》 pp.493 ~ 49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에 수록되어 있는, 필자가 채료한 김영부(여·54)가 부른 자료.

- B ③2    요바당에 에에                      은과금은 으으  
           쌍엿진만 아하                      나재주가 아아  
           모자란에 에에                      노픈낭에 에헛  
           올매로고나 헛                      이여도싸나 차라차  
           이여도싸나 아아                      잘도간다 55)

한 音步가 불릴 때마다 되풀이되는 “헤, 흐, 호, 히, 에에, 으으, 아  
 하, 에헛, 헛, 아아” 등의 疊語的 反復句는 표기의 충실을 기하려는 의  
 도에서 밝힌 것으로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기여저라, 이여도싸나, 차라  
 차” 등의 후렴은 先後唱의 경우라면 의당 後唱者가 부를 것이지만, 온통  
 혼자 불러간다.

## ② 先後 唱

두 분 이상이 일하며 민요를 부를 때, 한 분이 뜻 있는 사설을 부르  
 고 나면 다른 분이 후렴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C ③3    A 이여싸                      이여싸  
           B                      이여싸                      이여싸
- A 요넬젓고                      어덜가리  
 B                      이여싸                      이여싸
- A 진도바당                      혼글로가몬                      이여싸  
 B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 A 혼착손에                      빗창웨곡  
 B                      이여싸                      이여싸
- A 혼착손에                      데왓을웨영  
 B                      이여싸나히                      이여싸

55) 위 책에 수록된 (p. 478) 이여수 (여·55) 가 부른 자료.

|   |      |                      |   |
|---|------|----------------------|---|
| A | 혼질두질 | 들어간보난                |   |
| B | 어기여차 | 이여도싸나                |   |
| A | 저성도가 | 분명하다                 | 힛 |
| B |      | 이여도싸나 <sup>56)</sup> |   |

1979년 4월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에서 채록한 자료다. 두 여인은 방안에 앉은 채로 두 손은 내밀고 힘차게 노를 젓는 시늉을 하면서 口演했는 바 (A~박순덕, 여·67., B~김순녀, 여·57.), 서로가 한 음보씩 번갈아 불렀다. 박순덕(A)이 〈海女노래〉 한 편을 부르는 사이에, 김순녀(B)는 한 음보가 끝날 때마다 후렴만을 받았다.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지만 2행의意味를 지니는 4행의 각편이 끝날 때마다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라는 후렴이 따르는 〈맷돌·방아노래〉하고는 先後唱의 형식, 곧 후렴의 위치가 사뭇 다르다. 후렴을 빼어 버리고 난 이 〈海女노래〉의 사설은 다음처럼 정리된다.

|      |       |
|------|-------|
| 이별젓고 | 어딜 가리 |
| 진도바당 | 흔골로가면 |
| 흔착손에 | 빗창채 곡 |
| 흔착손에 | 테왁을채영 |
| 혼질두질 | 들어간보난 |
| 저성도가 | 분명하다  |

  

|      |         |                          |
|------|---------|--------------------------|
| 〈語釈〉 | 이 노를 젓고 | 어딜 가리                    |
|      | 珍島바다    | 한 골로 가면                  |
|      | 한쪽 손에   | ‘빗창’ <sup>57)</sup> 쥐고   |
|      | 한쪽 손에   | ‘테왁’ <sup>58)</sup> 을 쥐어 |

56) 《韓國口碑文學大系 9-1, 北濟州郡篇》 pp.220 ~ 2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 수록된 자료.

57) 해녀들이 전복을 따내는 데 쓰이는 나무죽하고 길쭉한 쇠붙이.

58) 해녀들이 기억하러 헤엄쳐 나갈 때 물 위에 띄워 가슴을 얹고 그 浮力

한 길 두 길                      들어가 보니  
저승문이                      분명하다

제주 해녀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本土 各沿海로 出稼하던 일과 묵숨  
바쳐 물질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렸다.<sup>59)</sup>

2 音步 1 行을 한 분이 부른 다음에 다른 분이 후렴을 받는 형식으로  
되풀이하는 先後唱형식도 보인다. 1960 년,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에  
서 康順花(여·63., A로 표기), 高福梅(여·68., B로 표기) 두 분이 부른  
〈정판 짙는 소리〉를 그 예로 든다.〈정판 짙는 소리〉란 노를 저을 때 발  
바닥으로 배의 ‘정판’을 쿵쿵 치면서 억세게 부르는 〈海女노래〉의 일  
종인데 “어기요랑 사아디”란 후렴도 이채롭다.

|     |   |      |          |
|-----|---|------|----------|
| D ㉔ | A | 섬짓머린 | 검어나지고    |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 A | 오근다리 | 녹아진다     |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 A | 새끼청산 | 누울리듯     |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 A | 소섬머리 | 옥아들듯     |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 A | 한뫼물에 | 불길어지듯 요요 |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을 이용하여 헤엄치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기구. 박을 말려 씨통  
을 파내서 말리고 구멍을 막아서 노끈으로 엮어 만든 게 원래의 것인데,  
근래에는 그 재료가 달라졌다. ‘두령박’이라고도 하는 이 ‘테왁’ 밑에  
는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 두는 ‘망시리’(망아리·망사리)가 달려 있다.

59) 李能和의 《朝鮮女俗考》(p.262)에 드러나는 申光洙의 〈濟州潛女歌〉  
에도 보일 만큼, 사실 제주 海女들은 그들의 生業에 생명을 건다.

濟州島民謠研究

|   |       |          |
|---|-------|----------|
| A | 정판을지민 | 발바닥아프다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A | 진바당에  | 진놀래불령 요요 |
| B | 어기요랑  | 사아디      |
| A | 어허어랑  | 밤아로코나    |
|   | 어기요랑  | 사아디 60)  |

③交 唱

전승자들이 사설을 번갈아 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交唱形式은 제주도의 노동요에 흔히 통용된다.

(3·1)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기

1960 년 濟州市 三徒二洞에서 梁民善(여·65., A로 표기), 梁尙兒(여·55., B로 표기) 두 분에 따라 부른 노래를 예로 든다.

|     |   |      |       |
|-----|---|------|-------|
| E ㉕ | A | 눈이엇인 | 요금전아  |
|     | B | 이여싸나 | 눈이엇인  |
|     | A | 어딜가고 | 춧아울줄  |
|     | B | 요금전아 | 어딜가고  |
|     | A | 모르더나 | 이여싸   |
|     | B | 춧아울줄 | 모르더나  |
|     | A | 이여싸  | 이여싸나  |
|     | B | 부르거든 | 돌아나오라 |

60) 拙稿; “民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p.367, 文化財管理局, 1974.

|   |       |                     |
|---|-------|---------------------|
| A | 이여싸   | 부르거든                |
| B | 임기리고  | 돈기령                 |
| A | 돌아나오라 | 이여싸                 |
| B | 몬살것네  | 부량청진                |
| A | 이여싸나  | 이여싸                 |
| B | 가신님은  | 돈이나벌몬               |
| A | 부량청진  | 가신님은                |
| B | 오전마는  | 공동산천                |
| A | 돈이나벌몬 | 오전마는                |
| B | 가신님은  | 죄스때나                |
| A | 공동산천  | 가신님은                |
| B | 돌아나오네 | 이여싸나                |
| A | 죄스때나  | 돌아나오네               |
| B | 이여싸나  | 이여싸                 |
| A | 이여싸나  | 여기여차                |
| B | 이여싸나  | 이여싸나                |
| A | 지여다백여 | 야리도고라               |
| B | 여기여차  | 지여라백여               |
| A | 여기여라  | 여기여라                |
| B | 야리도고라 | 여기여라 <sup>61)</sup> |

그 사설은 후렴을 빼 버리고 정리해 보면 다음 두 편인데, E<sub>1</sub>에선 梁民善(A)이 先導해 나가다가 E<sub>1</sub>의 “부르거든 돌아나오라”부터는 선도가 바뀌어져 梁尙兒(B)로 옮겨졌다. E<sub>1</sub>의 ( )부분, 곧 “임기리고 돈기령 몬살것네”라는 사설은 梁尙兒만이 제대로 불러 노래를 마무리했다.

61) 같은 책, pp.364 ~ 365.

|                  |       |       |
|------------------|-------|-------|
| E <sub>1</sub> ) | 눈이엿인  | 요금전아  |
|                  | 어딜가고  | 찾아올줄  |
|                  | 모르더나  | 부르거든  |
|                  | 돌아나오라 | (임기리고 |
|                  | 돈기령   | 몬살것네) |

|      |       |        |
|------|-------|--------|
| 〈語釈〉 | 눈이 없는 | 요금 金錢아 |
|      | 어딜 가고 | 찾아올 줄  |
|      | 모르더 나 | 부르거든   |
|      | 돌아나오라 | (임 없고  |
|      | 돈 없어  | 못 살것네) |

|                  |       |      |
|------------------|-------|------|
| E <sub>2</sub> ) | 부량청진  | 가신님은 |
|                  | 돈이나벌면 | 오전마는 |
|                  | 공동산천  | 가신님은 |
|                  | 지스때나  | 돌아오네 |

|      |        |      |
|------|--------|------|
| 〈語釈〉 | 富寧 淸津  | 가신님은 |
|      | 돈이나 벌면 | 오전마는 |
|      | 共同 墓地  | 가신님은 |
|      | 祭祀 때나  | 돌아오네 |

### (3.2)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기

전승자 두 분이 번갈아 가며 부르되, 제각기 다른 사설을 부르는 경우다. E에 이어지는 노래 가운데 梁民善(A), 梁尙兒(B)가 번갈아 부르는 하되, 그 사설은 제각기 다르다.

|      |   |      |       |
|------|---|------|-------|
| F. ㉔ | A | 가시나무 | 웃등이에  |
|      | B | 약탕관에 | 불때여놓고 |
|      | A | 즈배낭괴 | 알등이에  |
|      | B | 어린즈식 | 좁들좌놓고 |

|   |       |                     |
|---|-------|---------------------|
| A | 우알등을  | 무꺼놓고                |
| B | 도망가는  | 저잡년아                |
| A | 요베상착  | 일러나보자               |
| B | 원술러라  | 원술러라                |
| A | 이여싸나  | 이여싸나                |
| B | 이여싸나  | 이여싸나                |
| A | 간간놀젠  | 눔의첩드난               |
| B | 어스름   | 돌밤에                 |
| A | 어디간간  | 내놀아서니               |
| B | 휘머리단장 | 항고요                 |
| A | 조른적삼  | 진치매입언               |
| B | 도망가는  | 저잡년아                |
| A | 한질구름  | 셀린배웃네               |
| B | 네가백번  | 원술러라 <sup>62)</sup> |

A와 B 사이에 사설의 연결은 전혀 없다. A는 A 나름대로 A의 사설을 불러갔고, B는 B 나름대로 B의 사설을 불러갔다. A의 경우는 FA<sub>1</sub>, FA<sub>2</sub> 두 편을, B는 FB<sub>1</sub>, FB<sub>2</sub> 두 편을 부른 셈이다.

|                   |      |       |
|-------------------|------|-------|
| FA <sub>1</sub> ) | 가시나무 | 웃등이에  |
|                   | 조배낭괴 | 알등이에  |
|                   | 우알등을 | 무꺼놓고  |
|                   | 요베상착 | 일러나보자 |
|                   | 이여싸나 | 이여싸나  |

62) 같은 책, p.365.

|                   |      |       |
|-------------------|------|-------|
| FA <sub>2</sub> ) | 간간늘젠 | 놈의첩드난 |
|                   | 어디간간 | 내놀아서니 |
|                   | 즈른적삼 | 진치매입언 |
|                   | 한질구들 | 셀린배웃네 |

|                   |      |       |
|-------------------|------|-------|
| FB <sub>1</sub> ) | 약탄관에 | 불때여놓고 |
|                   | 어린조식 | 좁들봐놓고 |
|                   | 도망가는 | 저잡넌아  |
|                   | 원술러라 | 원술러라  |
|                   | 이여싸나 | 이여싸나  |

|                   |       |      |
|-------------------|-------|------|
| FB <sub>2</sub> ) | 어스름   | 돌밤에  |
|                   | 휘머리단장 | 호고요  |
|                   | 도망가는  | 저잡넌아 |
|                   | 네가백번  | 원술러라 |

〈海女노래〉 각편은 또한 어떤 순서에 따라 불리어지는가. 노동요 모든 종류가 다 그렇듯, 그 불리는 정해진 차례는 없다. 말하자면 A편 다음에 B편, B편 다음에 C편을 불러야 한다고 못박아 있지는 않다. 〈오돌또기〉·〈이야홍〉 등 唱民謠의 머리부분이나 〈달거리〉 정도만이 부르는 차례가 정해졌을 뿐, 나머지는 각편이 제각기 독립되어 있어서 제보자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노래를 이어 간다.

現場論的 조사 방법에 따른다면, 제보자가 부르는 대로 그 부르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그 사실도 불러 가는 차례대로 기록하면 되겠지만, 자료를 效率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意圖的인 배열도 고려될 수 있다. 부를 때 각편의 차례가 고정된 민요야 별문제겠지만, 나머지는 題材와 主題에 따라 자료를 배열하거나 1, 2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필자는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이 세가지 방법을 고루 적용했다. 따라서 〈달거리〉나 〈오돌또기〉·〈이야홍〉 따위를 빼고는 그곳에 수록된 순서와 실제 노래하는 순서와는 전혀 다르다. 〈海女노래〉 역시 그 제재와 주제에 따라 배열했으나 실제 부르는 순서와는 아예 상관 없다. 불러 가

는 데 혹 순서가 있다면, 가끔 그 前篇에 제시된 이미지에 따른 聯想作用에 좇는 對句法을 드물게 볼 뿐이다.

G<sub>1</sub> ⑥7    서뛰야 어허            야뛰여 어허  
              요내님을 으흐        놈을준덜 어허  
              요네상착 아하        놈줄내가 아하  
              아니로다 아하        이기야마라 헛<sup>63)</sup>

G<sub>2</sub> ⑥8    요네상착 아하            부러진덜 어허  
              부산항구야 아하        가시야나무가 아하  
              엇일수가 아하        아니로다<sup>64)</sup>

G<sub>3</sub> ⑥9    요벤드레 에헤            꿇어나진덜 어허  
              인천항구 으흐        지름줄이 이히  
              엇일소가 아하        아니로고나 아하  
              지고나가자 헛        이기야마라 헛<sup>65)</sup>  
              이기야마라 헛

1980년 琴瑟浦의 김영부(여·54)가 濟州市에 다니러 왔다가 부른 〈海女노래〉의 일부를 부르는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G<sub>1</sub>에서는 임을 빼앗기더라도 노를 짓는 기백이야 빼앗기겠느냐는 反語的 意志를 드러내었고, G<sub>2</sub>, G<sub>3</sub>에서는 노의 상책이나 ‘벤드레’<sup>66)</sup>가 손상될 우려일랑 제쳐두고 역세계 노를 짓자는 철통 같은 기백이 드러난다. G<sub>1</sub>의 ‘요네상착’<sup>67)</sup>이란 어휘에서 이 어휘가 주장을 이루는 G<sub>2</sub>를 불렀고, G<sub>2</sub>의 첫줄이 지니는 뜻에서 聯想, 對應하여 G<sub>3</sub>의 첫줄을 이끌어냈다.

이는 남아프리카 長篇 讚揚詩 Zulu, Xhoso, Sotho 등에서도 그 예를

63)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市篇》, pp.494 ~ 49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64) 같은 책, 같은 곳.

65) 같은 책, 같은 곳.

66) 낚시저루의 노를 저울 수 있도록 배 명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67) 요 노의 상책. ‘상책’이란 노의 뒷부분.

볼 수 있는 바, 접속에 따른 併行體(parallelism by linking)다. 이런 併行體는 드문 일로서 거의가 제보자의 임의에 따라 떠오르는 대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各篇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이다.<sup>68)</sup>

#### (4) 機能・題材

〈海女노래〉가 지니는 機能은 어떠하며 무엇을 題材하고 있는가.

濟州島 연안에서 ‘뱃물질’하러 오갈 때, 또는 韓半島 각 연안으로 물질 오갈 때 탄 배의 노를 저으면서 그들은 〈海女노래〉를 불렀다. 해녀들이 出稼할 때에는 흔히 돛배를 이용했다. 바람이 멎어 배가 느리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경우에는 해녀들이 힘써 노를 저어야만 했고, 노를 젓는 동작에 맞추어 〈海女노래〉를 生動感 넘치게 口演했다. 〈海女노래〉를 힘차게 부를 때 일제히 규칙적인 동작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는가 하면, 노를 젓기가 한결 편해지고 사설내용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鼓舞하며 격려한다. 곧 음악적 율동이 사설에 결들이기 때문에 해녀들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노를 저어가는 사이에, 노를 젓기는 한결 즐겁고 가벼워지며 그들의 건강하고 切實한 삶을 새로이 인식한다. 노동요는 이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한 노동을 치르며 口演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發興과 助興, 그리고 審美的 快樂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뚜렷이 보여 준다.<sup>69)</sup>

농어민들은 갖가지 노동과 더불어 술한 노동요를 부름으로써 일을 한결 즐거이 치르게 될 뿐더러, 행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덜 지루하고 힘이 덜 든다.<sup>70)</sup> 또한 행동통일이 됨으로써 일꾼들이 노래에 맞춰 질

68) Ruth Finnegan; op. cit., p. 100.

69) Work songs are a particularly clear example of the way in which oral poetry can create excitement and aesthetic pleasure in a participatory audience doing tedious or even painfully laborious work. This comes out in many descriptions of work songs and their functions.(Ibid. p. 218)

70) Chanteys and other work songs directed the energies of workers or relieved the tedium of labor. (George List, op. cit., p. 376.)

서 있게 일할 수 있다. 이는 작업과 밀착된 勞動謠의 機能이다. 노동요를 機能謠의 大宗으로 삼는 까닭도 실로 여기에 있다. 노동요 가운데도 노래가 노동하는 동작과 밀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노동과 勞動謠의 密着度는 노동의 형태에 따른다. 단조롭고도 억세게 되풀이되는 작업이면서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작업은 노동하는 동작과 더욱 밀착되고, 완만하고 가벼운 작업이면서 한둘이 치르는 작업일 경우에는 노동하는 동작과 덜 밀착된다. 〈海女노래〉가 前者라면, 〈맷돌·방아노래〉는 後者다. 이 두 노래의 차이는 ‘(1)背景, 分布’에서 살핀 바 있지만, 이처럼 노동의 動作과 민요 口演狀況이 밀착되는 한편, 〈海女노래〉의 口演은 작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인원이 많아 不安定된 상태이므로 그 사실은 〈맷돌·방아노래〉의 그것에 비하여 덜 가다듬어진다.

〈海女노래〉의 사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필자는 《濟州島民謠研究上》에 〈海女노래〉 199 편을 수록하면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①海女作業 出發의 노래 (16 편)
- ②海女作業의 노래 (38 편)
- ③海女 出稼의 노래 (64 편)
- ④海女 出稼生活의 노래 (19 편)
- ⑤사랑노래 (37 편)
- ⑥海女들의 餘情 (25 편)

이 분류는 사실에 드러나는 題材에 기준했다. 해녀질 그 자체에 터전하여 노래한 ①~④에 비하여 ⑤⑥은 해녀질에 직결되지 않은 채, 그들이 나날이 부딪치는 생활감정만을 노래했다. ①~④ 가운데, ①②는 海女作業實態를 다루었고, ③④는 海女出稼를 폭넓게 제재했다. 비교적 ①~④에서는 노동실태를 노래하는 비율이 높고, ⑤⑥에서는 日常生活의 情感을 담은 내용이므로 그 사실이 流動的이다.

- ④① 몸짱으랑                  집을삼앙  
 늦고개랑                  어멍을삼앙  
 요바당에                  날살아시민  
 어느바당                  절릴웨시랴  
 (816)

〈語釈〉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아  
 늦고겔랑                  어머니를 삼아  
 요 바다에                  내 살았으면  
 어느 바다                  절릴 리 있으랴

- ④① 돈아돈아                  무정훈돈아  
 눈어둔돈아                  귀막은돈아  
 부르거든                  돌아나오라  
 산이노관                  못왓시냐  
 물이지편                  못왓시냐  
 질을몰란                  못왓시냐  
 (1009)

〈語釈〉 돈아 돈아                  무정한 돈아  
 눈 어두운 돈아                  귀먹은 돈아  
 부르거든                  돌아나 오라  
 산이 높아                  못 오느냐  
 물이 깊어                  못 오느냐  
 길을 몰라                  못 오느냐

④①은 勞動實態를 노래하는 사설이요, ④①은 生活感情을 노래하는 사설이다. 모자반덩이를 집을 삼고 늦고개를 어머니를 삼고 ~마치 거친 바다를 집안처럼, 怒濤를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처럼 관념하는 ④①은 그대로 해녀들의 노동실태를 노래한 것이라면, ④①은 돈의 필요를 절규하듯 노래한다. ④①은 굳이 〈海女노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노동요에서, 혹은 타령에서도 노래될 수 있는 사설이다. ④①과 같은 사설은 거의가 해녀질을

하면서 〈海女노래〉의 가락으로만 고정되지는 않는다. ①~④에는 거의 ④와 같은 사실로 채워졌으며, ⑤⑥은 ④와 같은 사실이 대부분이다. 機能・唱歌・辭說의 관계를 두고 固定的 結合을 ‘=’로, 流動的 統合을 ‘≠’ 표시한다면, ①~④의 경우는 機能=唱歌=辭說로 표현되며, ⑤⑥의 경우는 機能=唱歌≠辭說로 정리할 수 있다.<sup>71)</sup>

〈海女노래〉의 題材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해녀작업자체를 역점을 두어 위 ①~⑥의 제재를 자세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海女노래의 題材

資料：金榮教：《濟州島民謠研究上》

| 題 材      | 題 材 分 類     | 篇 數 | 比 率   | 要 素                             |
|----------|-------------|-----|-------|---------------------------------|
| ①海女作業出発  | I. 배 타 나감   | 11  | 5.5%  | 機能, 唱歌, 辭說이 대<br>체로 固定的 結合      |
|          | II. 해엄처 나감  | 5   | 2.5   |                                 |
| ②海 女 作 業 | I. 潛水作業     | 8   | 4.0   | "                               |
|          | II. 海産物採取   | 12  | 6.0   |                                 |
|          | III. 苦役吐露   | 9   | 4.5   |                                 |
|          | IV. 嘆老・無常   | 4   | 2.0   |                                 |
|          | V. 作業目的     | 5   | 2.5   |                                 |
| ③海女出稼過程  | I. 離郷出稼     | 5   | 2.5   | "                               |
|          | II. 노 짓는 氣魄 | 29  | 14.6  |                                 |
|          | III. 배와 뱃사공 | 9   | 4.5   |                                 |
|          | IV. 出稼하는 뱃길 | 15  | 7.5   |                                 |
|          | V. 出稼의 目的   | 6   | 3.0   |                                 |
| ④海女出稼生活  |             | 19  | 9.6   | "                               |
| ⑤愛 情     | I. 相思       | 16  | 8.1   | 機能, 唱歌은 固定的<br>結合이나 辭說은 流動<br>的 |
|          | II. 戀慕      | 21  | 10.6  |                                 |
| ⑥餘 情     | I. 身世吐露     | 9   | 4.5   | "                               |
|          | II. 日常情意    | 16  | 8.1   |                                 |
| 計        |             | 199 | 100 % |                                 |

71) 張德順 外：《口碑文學概說》，pp.79～81，一潮閣，1971.

위의 題材 ①②는 연안에서의 물질을 제재하는가 하면, ③④는 제주도 해녀들이 本土 沿海 出稼를 제재한다. 출가는 제주도 해녀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위의 자료편수만 보더라도 <海女노래>의 40%에 육박한다.

①은 이른바 ‘뱃물질’로서, 연안에서 배를 타고 작업장까지 나가는 사실과 배를 이용함이 없이 작업장까지 헤엄쳐 나가는, 이른바 ‘X물질’할 경우의 사실로 나누어진다.

|         |         |
|---------|---------|
| ④② 요베것엄 | 흔저가계    |
| 우리베는    | 참도재꼭    |
| 놈의베는    | 뚝도뜨다    |
| 수덕종고    | 재수좋은    |
| 우리배야    | 흔저가계    |
| 명지바당    | 실바람 불어라 |

(824)

|      |        |         |
|------|--------|---------|
| <語釈> | 요 노 저어 | 어서 가자   |
|      | 우리 배는  | 재기도 하고  |
|      | 남의 배는  | 뜨기도 하다  |
|      | 수덕 종고  | 재수 좋은   |
|      | 우리 배야  | 어서 가자   |
|      | 명주바다   | 실바람 불어라 |

노를 저어 작업장까지 나가는 모습이 평탄하게 그려졌는데, 역시 위험이 도사린 바다라 배의 身數도 중시된다.

題材②에서는 해녀작업전반이 제재로 드러난다. 해녀들이 해녀기구를 챙기고 水深 깊이 무자매질하는 모습, 身命 걸고 해산물을 캐는 實狀과 苦難이 노래되고, 억척스리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궁핍한 생계에 이바지하는 잔잔한 喜悅도 드러난다. 유례 드문 해녀작업의 困苦를 토로하면서 無常을 노래하고 嘆老하기도 한다.

- ④③ 유리잔을            눈에다부치곡  
 테왁을            가슴에안곡  
 무쇠빗창            손에찌곡  
 지끈물속            들어보난  
 수심좁북            하서라미는  
 내숨짧란            못하여라  
 (834)

- <語釈> 유리 안경<sup>72)</sup>            눈에다 붙이고  
 ‘테왁’<sup>73)</sup>을            가슴에 안고  
 무쇠 ‘빗창’<sup>74)</sup>            손에 끼고  
 깊은 물속            들어 보니  
 水深 전복            많더라미는  
 내 숨 짧아            못하더라

‘눈’(眼鏡)·‘테왁’·‘빗창’은 해녀들의 主武器다. ‘테왁’ 밑에는 해녀들이 채취한 魚貝藻類를 넣는 그물자루가 달리는데, 이를 ‘망시리’(혹은, ‘망사리’·‘망아리’)라 한다. 이밖에 해조류를 베는 낫인 ‘정계호미’와 섬게·문어 따위를 캐는 갈퀴리 모양의 도구 ‘굴각지’(호맹이·가꾸리)등이 있는데, 海女服을 입어 물안경을 끼고 ‘테왁’을 지니면 해녀들의 작업준비로서는 어엿하다. 바닷속 깊이 우뚝통하게 살쥔 전복은 보이는데도 숨이 짧아 따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노래했으니 水深 20 m 까지 들어가 2분남짓 견디는 놀라운 技倆을 지닌 그들이지만 언제나 意欲을 못 따르는 아쉬움이 있다. 한번 무자맥질하면 해녀들은 보통 30 초

72) 海女들이 작업할 때 끼는 眼鏡. 이른바 ‘눈’이라 하는데, 지난날의 小型雙眼鏡은 ‘족새눈’이라 하며, 지금 쓰이는 大型單眼鏡은 ‘왕눈’(큰눈)이라 한다. ‘족새눈’은 또한 ‘깨눈’(舊左邑 漢東里 製品)과 ‘엄쟁이눈’(涯月邑 舊嚴里 製品)으로 나누어진다.

73) 밖의 씨통을 파내어서 말리고 구멍을 막아서 海女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타서 해엄치는 물건.

74) 전복을 따는 길쭉한 쇠붙이.

쫄 작업한 다음 水面에 솟는다. ‘테왁’을 붙잡고 ‘호오이’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한껏 숨을 돌이킨다.<sup>75)</sup>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本土 각 연안으로 나가는 일은 며칠씩 海原에서 지새어야 하는 목숨 건 투쟁이었다.

- |    |      |       |
|----|------|-------|
| ④④ | 성산포야 | 잘이시라  |
|    | 명년이철 | 춘삼월나면 |
|    | 살아시민 | 상봉이여  |
|    | 죽어지민 | 영이벨이여 |
|    |      | (871) |

|      |        |        |
|------|--------|--------|
| 〈語釈〉 | 城山浦야   | 잘 있거라  |
|      | 명년 이 철 | 춘삼월 나면 |
|      | 살았으면   | 상봉이네   |
|      | 죽어지면   | 영이별이네  |

- |    |        |          |
|----|--------|----------|
| ④⑤ | 돈아돈아   | 말모른돈아    |
|    | 돈의전체 곳 | 아니민      |
|    | 노곡두만강  | 어더라니     |
|    | 부량청진   | 어더라니     |
|    | 부량청진   | 오란보난     |
|    | “이나그네  | 놀래들어옵지기  |
|    | 제주안간   | 놀래들어옵지기” |
|    |        | (939)    |

|      |        |         |
|------|--------|---------|
| 〈語釈〉 | 돈아 돈아  | 말 모른 돈아 |
|      | 돈의 까닭  | 아니면     |
|      | 露国 豆滿江 | 어디더냐    |
|      | 富寧 淸津  | 어디더냐    |

75) 이 소리를 ‘숨비질소리’・‘숨비소리’・‘숨비’・‘숨비질소리’・‘숨비소리’・‘숨비’라 하는데, 이때 몸속에 축적돼 있는 탄산가스를 5~10초 동안 過度換氣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 다시 물속으로 뛰어든다.

|        |               |
|--------|---------------|
| 富寧 淸津  | 어디더나          |
| 富寧 淸津  | 와서 보니         |
| “이 나그네 | 날래 들어옵지기      |
| 제주 안간  | 날래 들어옵지기” 76) |

④4는 海女出稼 出發時의 意志를, ④5는 出稼生活의 한 斷面을 노래했다. 城山浦港을 떠나 本土로 물질 나가는 해녀들은 생활 위해 목숨을 건 悲壯을 역연히 노래하는가 하면, 먼 곳 富寧・淸津까지 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은 이런 고생이 生計 때문임을 새삼 확인한다.

해녀작업 자체와는 관련없이 愛情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느낌을 제재한 예를 보기로 하자.

|         |       |
|---------|-------|
| ④6 가다오다 | 만난님은  |
| 굴묵낭정반에  | 먹물범벅  |
| 예문예장    | 드린님은  |
| 은낭푼에    | 참쌀범벅  |
|         | (983) |

|            |       |
|------------|-------|
| 〈語釈〉 가다 오다 | 만난 임은 |
| 느티나무 정반에   | 메밀 범벅 |
| 예문 예장      | 드린 임은 |
| 은 양푼에      | 참쌀 범벅 |

|         |       |
|---------|-------|
| ④7 서툰어멍 | 날날적의  |
| 해도돌도    | 웃인날에  |
| 나를낭아    | 놓아신가  |
| 나일롬을    | 불르지말라 |
| 나일롬을    | 불러나보난 |
| 죽죽죽죽    | 눈물이러라 |
|         | (992) |

76) 제주도 海女들을 맞이하는 威鏡道婦人들의 인사말에 대한 흉내.

|      |        |         |
|------|--------|---------|
| 〈語釈〉 | 젊은 어머니 | 날 낳을 적에 |
|      | 해도 달도  | 없는 날에   |
|      | 나를 낳아  | 놓았는가    |
|      | 내 이름을  | 부르지 말라  |
|      | 내 이름을  | 불러나 보니  |
|      | 글썽글썽   | 눈물이더라   |

④⑥에서 잠깐 스치는 애인을 ‘느티나무 쟁반에 메밀 범벅’으로, 百年偕老할 夫婦를 ‘은 양푼에 찹쌀 범벅’이라 비유하고 있음도 마뜩하다. 찌든 가난 속에 날마다 거친 海原에서 시달려야 하는 자신은 필경 해도 달도 없을 적에 태어났을 것이니, 어엿한 이름인들 있겠느냐는 自嘲自卑의 노래(④⑦)도 깊이 있다. 되풀이하거니와 ④⑥④⑦의 내용은 반드시 해녀 작업과 더불어 불리는 〈海女노래〉의 가락에만 따르는 사설일 수는 없다. 다른 노동요나 唱民謠로도 끼어들 수 있는 유동적인 사설들이다.

##### (5) 內 容

〈海女노래〉의 사설이 지니는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사설내용에 담긴 해녀들의 實態는 어떠한가. 그 제제에 따라 ‘海女作業 出發’・‘海女作業’・‘海女 出稼過程’・‘海女 出稼生活’ 등 항목별로 간추린 사설들을 통하여 해녀들의 實相을 살피기로 한다. (‘愛情’・‘餘情’은 海女生活만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 ① 海女作業 出發

四面環海의 제주도의 물은 제주도민의 활동무대의 일부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沿海를 발의 연장으로 擴散하는 海女가 해안마을마다 분포됨으로써 그들의 일터에는 물과 바다의 구획이 없다.

|    |       |      |
|----|-------|------|
| ④⑧ | 요바당의  | 요몸야개 |
|    | 날주어시민 | 어느바당 |

어디라도                      걸릴것가  
(817)

|      |        |           |
|------|--------|-----------|
| 〈語釈〉 | 요 바다에  | 요 모자반 모가지 |
|      | 날 주었으면 | 어느 바다     |
|      | 어디라도   | 걸릴 것인가    |

내다보아도 둘러보아도 아득히 水平線만 보일 뿐, 滄茫하기만 한 大海原에 던져진 몸뚱이는 곧 滄海一粟. 이 거대한 바다에 도전하려면 엄청난 巨軀였어야 하겠다고 希願하면서 너풀거리는 모자반덩이마저 내 肉身化되기를 바란다. 해녀들로서는 漁場은 곧 밭의 연장이다. 농사를 짓는 陸上田畠만이 밭이 아니라, 어장 또한 엄연한 그들의 밭이다.

일반인들로서야 바다라면 거친 怒濤 해치며 배나 떠 다니는 恐慌마저 따르는 異色境이라 생각하지마는, 해녀들로서는 生計를 잇는 日常作業場으로서의 뜻이 第一義的 觀念이다. 해녀들의 밭은 바다까지 뻗친다. 해녀들은 ‘물의 밭’과 ‘바다의 밭’을 共有하는 셈이니, 물의 地境마다 이름이 따르듯, 바다 곳곳에도 이름이 붙는다. 물속에 온통 잠겼거나 그 일부가 水平 위에 솟은 暗礁, 이른바 ‘여’만 하더라도 하나 하나에 모두 이름이 지어졌다. 海女漁場(裸潛漁場), 곧 第一種共同漁場 곳곳에 이름이 따르고, ‘여’마다 命名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바다나 ‘여’가 그들의 生業과 밀착되었음을 말해 주는 근거다. 바다는 밭이나 진배 없는 제주도 여인들의 일터이니, 바다에서 부딪는 온갖 일이 집안의 일로 둔갑한다. 바다에서 거추장스레 뭉쳐 너풀거리는 모자반덩이가 내 몸뚱이길 바라는 표현을 보았거니와, 海原을 모질게 불어젖히는 바람은 해녀들의 밭이요, 물결은 그들의 집안이라 헤아린다. 그들은 실로 “모자반덩이랑 집을 삼아서, 놀고꺾랑 어머니를 삼아서” 바다에 산다(816). 소섬(牛島)은 집의 기둥이요, 청산(城山日出峰)은 집의 문이라 보기도 한다(821). 그들의 작업장은 독수리의 양 날개처럼 물과 바다에 뻗쳐 있듯이 해녀들은 거의가 농업을 겸한다. 그 兼業率은 약 99%에 이른다. 해녀들은

해녀작업만 하고 營農은 않는 것처럼 여긴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여느 농부처럼 영농하는 사이에 물때에 맞춰 이웃 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하면서 부수입을 얻고 家計를 돕는다. 거의가 主農副漁요, 가다가 主漁副農인 해녀들이 없는 바 아니지만, 어쨌든 해녀질만 專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② 海女作業

④⑨ 너른바당            앞을재연  
 혼질두질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닥갓닥  
 (832)

〈語釈〉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 질 두 질            들어가니  
 저승길이            오락가락

⑤⑩ 혼백상지            등에다지곡  
 가슴앞이            두렁박차곡  
 혼손에            빗창을췌곡  
 혼손에            호미를췌곡  
 혼질두질            수지끈물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835)

〈語釈〉 魂帛箱子            등에다 지고  
 가슴 앞에            ‘두렁박’<sup>77)</sup> 차고  
 한 손에            ‘빗창’을 췌고  
 한 손에            낫<sup>78)</sup> 을 췌고  
 한 질 두 질            깊은 물에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77) ‘테왁’. 海女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타서 헤엄치는 물건.

78) 낫 비슷하게 만들어진 미역 따위를 캐는 海女器具( 정계호미 )

해녀질은 그대로 바다에 생명을 건 생업이다. 이들은 보통 水深 15 ~ 20 피트에서 작업하지만, 필요할 경우면 70 피트까지도 들어간다. 극성스런 加波島의 해녀를 현지조사했던 바, 열길 이상 潛水할 수 있는 해녀도 무려 10 명에 달했다.<sup>79)</sup> 더구나 제주 해녀는 일단 물속에 잠기면 물속에서 평균 30 초 정도 머물지만, 필요할 때에는 2분 남짓 견딘다. 水深 깊이 들어가서 이처럼 오래 견딜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해녀질을 할 수 있는가 하면<sup>80)</sup> 한달 평균 15 일 이상 작업할 수 있으며 分娩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일 없이 분만 전날까지도 물질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실로 超人間的이어서 제주 해녀를 더욱 세계적 존재로 이끈다.

제주 해녀의 초인간적 능력은 자못 驚異的이어서, 사람들은 흔히 이들에게 유다른 血統이라도 있는 듯, 특별한 遺傳的 素質이라도 있는 듯 착각한다. 그들 곁에서 해녀들의 日常을 관찰할 때면,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사 짓고 凡常히 살면서 필요에 따라 물질하는 것뿐이며, 해녀들의 이런 능력이 단순한 訓練이나, 遺傳的 素質이나 함은 論難對象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유다른 혈통이나 유전적 소질이란 아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81)</sup>

“너른 바다의 앞을 재어(곧 水深을 헤아리면서) 한길두길 들어가니 저승길이 오락가락” 한다든가(832), “타다니는 七星板아, 이어사는 銘旌布야”(833) 하는 울부짖는 절규, “魂帛箱子 등에다 지고”(835) 하는 등의 처

79) 濟州大學; 《国文學報》제 6 집, p.169,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4.

80) 홍석기博士(延世大醫大教授)와 Hermann Rahn博士(뉴욕州立大學敎授)가 ‘Scientific American’誌 1967년 5월호에 공동집필한 바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 따르면, “海女들은 水温이 82.8°F인 물속에서 세시간 동안 전율을 일으킴이 없이 견딜 수 있으나, 일반여자는 그 水温의 水中에서 이미 전율을 일으키며, 정상남자의 경우 88°F에서 전율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81) 위의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서도 “우리들이 연구한 한도내에서 보면, 잠수부들이 특별히 잠수작업에 적합한 遺傳的 素質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韓國 농부의 딸들도 잠수부들의 딸들처럼 장기간의 訓練으로 숙련된 잠수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訓練과 經驗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절한 사실이 술하게 쏟아질 만큼, 제주 해녀들은 그들의 生業에 생명을 건다. 바닷가 마을에서도 이따금씩 물질하다가 목숨마저 잃는 비극도 있다. 온 世人들은 제 生業이 疊疊苦難이더라도 잔잔한 보람으로 일을 치르는 터인데, 현지조사에 따르면 해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물속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을 그 찰나라 한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歡喜와 意欲에만 사로잡힌 채, 예를 들면 쉬 떨어지지 않는 전복 탕 등으로 아쉽게 질식하여 자칫 생명을 앗는 慘禍마저 빚는 경우도 있다.

- ⑤ 산뛰는건                      웅매로다  
 여뛰는건                      배로구나  
 요바당에                      은광금이  
 번질번질                      깔려서도  
 노끈낭과                      열매로다  
 (840)

〈語釈〉 산 뛰는 건                      雄馬로다  
 여 뛰는 건                      배로구나  
 요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깔렸어도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 ⑥ 구쟁기랑                      잡거들랑  
 닷섬만                      잡게 ㅎ 곱  
 전복이랑                      잡거들랑  
 여든섬만                      잡게 ㅎ 서  
 못사는                      우리 팔즈  
 혼번아주                      고쳐보게  
 (838)

〈語釈〉 소랄랑                      잡거들랑  
 닷 섬만                      잡게 하고  
 전복일 랑                      잡거들랑

여든 섬만                      잡게 하오  
못 사는                      우리 팔자  
한번 아주                      고쳐 보게

바닷속에 金銀 같은 海産物이 깔렸어도 높은 나무의 열매일 뿐, 마음대로 채취할 수는 없다. 소라 닷섬, 전복 여든섬 잡는 건 現實일 수 없는 그들 필생의 꿈이다. 제주 해녀의 쓰라림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 李健의 <濟州風土記>, 趙觀彬의 <梅軒集>, 申光洙의 <石北集>所載 <濟州 潛女歌><sup>82)</sup> 등 선인들의 기록에도 잘 나타났다. 世宗 때의 濟州 按撫使 奇虔은 매섭게 추운 겨울날, 섬안을 순시하던 중 벗은 채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해녀들의 苦楚를 직접 보고난 다음, 이리도 고생스리 캐어내는 해산물을 차마 먹을 수 있겠는가고 재임하는 동안 끝내 소라·전복 먹기를 사양했었다는 逸話<sup>83)</sup>라든가, 正祖 또한 “매양 採鮑의 苦役을 헤아리전대 어찌 全鮑 먹을 생각이 있으리요”하고 歎痛한 노래<sup>84)</sup> 등은 그 뜻이 도탑다.

옛부터 제주 해녀들은 生死를 걸어 얻은 소득을 貢納하는 데 갖은 困苦를 다 겪었으니, 이는 李健의 <濟州風土記>의 기록으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82) 正宗時人申光洙《石北集》〈濟州潛女歌〉云：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一簍一笊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北人駭然南人笑 挈水相戲橫乘流，忽學鳬難沒無處，但見匏子輕輕水上浮，斯須湧出碧波中，急引繩繩以腹留，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官幽，人生為業何須此 爾獨貪利絕輕死，豈不聞陸可農蚕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寬，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歇生乾饑 金玉達官庖餽羅公子席，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晷案已推，潛女爾雖染，吾自哀，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嗟吾書生，海州青魚，亦難喫，但得朝夕一齋足。（李能和：《朝鮮女俗考》，p.262）

83) 金錫翼의 《耽羅紀年》(1918, 卷2, 世宗 25 年条)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按撫使奇虔, 性執而廉謹, 州產鮑魚採于海, 民甚苦之, 虔曰民之受病如是, 吾忍食諸, 竟不食,”

84) 每想採鮑之苦, 豈有喫鮑之思. 沉泊邑之供一簍, 費爲數十金云. 數若過千百, 則其費當爲中人幾家產乎(《弘齋全書》卷 168.)

海產只有生鰓・烏賊魚・粉蠶・玉頭魚等 數種,又有名不知數種魚外,更無他魚。其中所賤者蠶也。採蠶之女,謂之潛女。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入海採蠶。其採蠶之時,則所謂潛女,赤身露體,遍滿海汀,持鎌浮海,倒入海底,採蠶曳出。男女相雜,不以為恥,所見可駭。生鰓之捉亦如之。如是採取,應官家所徵之役,以其所餘典衣衣食,其為生理之艱苦,已不足言。而若有不廉之官,恣生貪污之心,則巧作名目,徵索無等算,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況官門輸納之苦,吏胥舞弊之弊,罔有紀極,又何望其衣食之資乎。由是之故,若值貪官,則所謂潛女輩,未有不丐者云。

지난날 제주해녀들이 엄청난 해산물을 官家에 바칠 때에는 포악한 관리들이 심히 탐관오리하는 폐단마저 겹쳐서 해녀들을 거지꼴로 만들었는가 하면, 定量을 어겼을 때에는 심지어 官衙에 불려가 棍杖을 맞는 일도 예사였음이 靜軒 趙貞喆의 노래에서 또한 切痛하게 드러냈다.

|                        |                        |
|------------------------|------------------------|
| 潛女衣裳一尺短                | 해녀의 옷은 겨우 한자 남짓한데      |
| 赤身滅沒萬頃波                | 알몸으로 만경창파에 물질을 하네      |
| 邇來役重魚難得                | 멀리 와 일이 고되도 고기 못 잡으니   |
| 鞭撲尋常幾處衙 <sup>85)</sup> | 기나긴 채찍을 몇 군데 마을에서 맞는다노 |

심지어는 그 부모와 남군까지도 끌려가 棍杖으로써 催促당했다. 설날 바다의 차기가 뼈에 사무치면서 잡힌 마을의 해산물도 官家強納이 너무 호되, 내 어진 마음에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아예 앞으로는 이처럼 고생스리 잡는 전복일랑 客飯床에 올리지 말라고, 趙觀彬도 그의《悔軒集》에서 切切히 노래했다.<sup>86)</sup>

그래서, 世宗 때의 濟州牧 土貢品目에도 全鰓・引鮑・槌鮑・條鮑 등이 끼어 있음을 본다. 어찌 전복뿐이라. 濟州의 眞珠는 高句麗・後魏에 이르기까지도 그 眞價가 알려짐으로써 元에서도 사람을 시켜 이를 구했던

85)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卷4 ‘耽羅雜詠’其17.

86) 林惟幹採珠耽羅, 不得, 乃取民所藏百餘枚, 還于元.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2年 6月條)

일이 있었다.<sup>87)</sup> 高麗 文宗 때에는 耽羅에서 大眞珠 2 枚를 바쳤는데 ‘夜明珠’라 일컬었었다 한다.<sup>88)</sup>

肅宗 28 年(1702) 7 月 12 일의 濟州守臣의 狀啓에 따르면, 漁業・船運을 副業으로 하는 이와 그의 아내 潛女(해녀)는 해마다 30 필의 해산물을 貢納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槌鯢・오징어・粉蠶 등을 進上하는 일 외에도 本官將士의 給食과 公私接待가 겹치므로 몇해를 더 지탱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인데, 그 시달림은 不可名狀이다.

肅宗二十八年壬午七月辛酉。先是 濟州守臣狀言…… 又言所謂漁戶兼行船格妻, 稱潛女, 一年納官者, 浦作不下二十疋, 潛女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而槌鯢各種烏賊魚粉蠶等役, 皆自此出營, 本官將士支供及公私酬応, 又在此數之外, 若不別樣變通, 此類之得支數年難矣。請得本道會錄常平庁, 耗田米三百石 以為質納之地。備局覆奏 壳蠶者贖還事許施, 而仍嚴禁令以絶弊習。進上給餽事, 以為每年三百石, 實有難繼之憂, 限三年割給, 俾令存本取利, 永久補役。上可之。

(「肅宗實錄」 卷 37, 28 年 7 月條)

“魂帛箱子 등에 다 지고”(835) “저승길을 오락가락”(832) 하는 그들에게 지난날에는 가혹한 強貢마저 덮쳤었으니, 그들의 쓰라림은 실로 감내하기 벅찼다.

|        |      |
|--------|------|
| ⑤ 우리부모 | 날날적의 |
| 해도돌도   | 엇일적의 |

87) 文宗三十三年十一月壬申, 耽羅句當使尹應均獻 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光珠. (《高麗史》 世家 卷 8 文宗 2 年條)

88) 潛水女潛水女, 赤身潛水無寒暑. 臘月海氣冷徹骨, 手摘決明于彼落. 昨日摘今日摘. 決明大小不盈百. 女兮女兮何自苦. 身役又兼官令促. 爺孃極極郎亦答. 不及決明大患隨. 水寒病作未暇顧. 往往驚鹽腹中兒. 苦無如苦無如. 何必決明海魚多. 海雖多魚皆讓味. 誅求最急一村漁. 豈獨黃堂鼎俎侈, 爲是朱門苞苴美. 苞苴多少生愛憎. 黜陟分明判於此. 女本弱力力已竭. 欲訴天門遠未達. 客莫笑客莫笑. 在昔紅顏今赤髮. 耽羅謫者舊達官. 目見不覺發一歎. 我則仁心未忍嘆. 莫將決明登客盤. (趙觀彬: 《悔軒集》)

|       |       |
|-------|-------|
| 나를낳아  | 놓아싱가  |
| 어떤사람  | 팔제중앙  |
| 고대광실  | 노끈집의  |
| 진담뱃대  | 물고앗앙  |
| 사랑방에  | 잠을자리  |
| 해너팔젠  | 무신팔제라 |
| 흔백상지  | 등에지곡  |
| 푸린물속을 | 왓닥갓닥  |

(854)

|      |        |         |
|------|--------|---------|
| 〈語釈〉 | 우리 부모  | 날 낳을 적에 |
|      | 해도 달도  | 없을 적에   |
|      | 나를 낳아  | 놓았는가    |
|      | 어떤 사람  | 팔자 좋아   |
|      | 고대광실   | 높은 집에   |
|      | 진담뱃대   | 물고 앉아   |
|      | 사랑방에   | 잠을 자리   |
|      | 해너 팔잔  | 무슨 팔자라  |
|      | 흔백상자   | 등에 지고   |
|      | 푸른 물속을 | 오락가락    |

기구한 자신은 태어났던 그時刻에 해도 달도 사라졌으리라는 표현으로써 할 말은 다했다. 오랜 세월 全鰓을 貢獻하는 데는 大中小로 分定했었던 듯, 갖추기 어려운 大全鰓은 減量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다.<sup>89)</sup> 金尙憲의 《南槎錄》에 기록된 바, 海女所産의 貢案만 보더라도 자못 구체적이면서 엄청나다.<sup>90)</sup> 海女들만이 아니라, 진상하는 전복 수량이 엄청

89) 楊震曰, 濟州全鰓之産, 今則不如古矣. 但於詳定, 有大中小之分, 故該司依例而受之, 其中大全鰓, 所難備者, 量減何如. (『中宗實錄』卷32, 13年3月條)

90) 本州貢案每年別進上, 槌鰓三千三十貼, 條鰓二百五十貼, 引鰓九百十注之, 鳥賊魚六百八十貼, 司宰監貢物, 大灰全鰓五百貼, 中灰全鰓九百四十五貼, 小灰全鰓八千三百三十貼, 別貢物, 大灰全鰓一千貼, 中灰全鰓七百貼, 大靜大灰全鰓五百貼, 中灰全鰓二百五十貼, 旌義大灰全鰓五百貼, 中灰全鰓一百九十五貼, 此皆取辨於三邑浦作, 而其他海菜及守令封送之數, 不在此限, 一島物力殆盡於此矣. (金尙憲; 《南槎錄》)

날 뿐더러, 憑公營私하는 汚吏들의 행패에 못내 겨운 제주 어부(浦作輩)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流亡, 溺死하다가 남은 이들도 홀아비로 지내다 죽는 수가 많았다. 설령 이웃에 홀아비가 있다더라도 여인들은 기어히 漁夫의 妻가 되길 바라지 않았기 까닭이다.<sup>91)</sup>

強貢의 弊야 이젠 古談이지만, 雪寒風의 한겨울에도 시퍼런 海原에 무자매질하는 해녀들의 苦役은 짐작되고 남는다. 그래서 이들은 超人의 圖志로 生業을 이어왔다. 해안에서 무리지어 왁자지껄하는 모습이나, 이제 썩 드문 일이지만 울동에 맞춰 싱그럽게 노를 젓는 밝은 表情을 볼 때면 이내 어림되듯, 해녀들은 물질의 千苦萬難을 오히려 즐겁게 치르는 현명한 知慧도 지닌다. 〈海女노래〉가 노 젓기와 더불어 불리어지는 뜻도 여기 있으니, 이는 모든 노동요가 지니는 소중한 機能이다.

해녀는 古來로 濟州 水産業의 中樞다. 해녀수는 제주도 수산인구의 3분의 2에 이르는가 하면, 해녀에 따른 漁獲量이나 漁獲高度 水産總漁獲高의 반에서 3분의 2를 늘 확보해 온다. 이 점은 1920 년대에도 한가지로 水産總額의 5분의 3은 해녀들의 손에 따라 마련된다고 李能和도 지적한 바 있다.<sup>92)</sup>

제주 해촌의 소녀들은 10 살이 지나면서 해엄치기와 무자매질을 익힌다. 자그만 해녀기구와 더불어 이들은 여름한철 물질 익히는 것이 遊戲요 生活이다. 바다가 그들의 집이요 마당이며, 집 을타리는 멀리 펼쳐진 水平線이다. 날이면 날마다 ‘테왁’을 바구니에 넣고 떼지어 물려든 소녀들은 滄海를 벗삼아 무자매질한다. 서툰 솜씨라 소라·미역을 제격으로 딸 수 없으니, 캐어져도 그만 못 캐어도 그만이다. 이러한 사이에 下

91) 余按, 本州城中 男丁五百 女丁八百, 女丁者 濟州之語也. 蓋男丁甚貴, 若遇事變守城, 則選民家健婦, 發立烽火, 稱爲女丁, 三邑同. 然州俗多並蓄妻妾. 然浦作輩多有鰥居而老死者. 問其故, 本州所貢鰵魚之數極廣, 官吏之憑公營私, 又且倍蓰, 浦作輩 不堪其役, 流亡溺死 十存二三, 而徵斂供應 不減於舊, 以此其身則長在海中, 其妻則長在獄中, 含冤耐苦之狀 不可勝言. 故雖有隣居鰥婦, 寧願乞食自終. 不欲爲浦作人妻也 (같은 책).

92) 李能和; 《朝鮮女俗考》, p.263.

軍海女로 자라는데, 곧 해녀는 그 技倆의 차이에 따라 下軍(하중수·하중녀)·中軍(중중수·중중녀)·上軍(상중수·상중녀)으로 나누어진다. 어린 소녀들이 물질을 거의 외면하는 경향이 짙어 가지만, 아직도 물질이 극성스런 마을의 국민학교 고학년 소녀라면 여름한철 바다를 집마당 삼고 學資 自給하는 自辨의 애들도 있다. 이러한 소녀들의 소남스런 꿈은 다음의 미쁜 노래에서도 본다.

⑤ 어느제민                      열다섯 나경  
비양도섬의                      짓넙은 메역  
가시테로나                      웬기레가코  
(847)

〈語訳〉 언제면                      열다섯 나거든  
飛揚島섬의                      짓 넙은 미역  
가시 멧목으로나                  옮기려 갈꼬

### ③ 海女 出稼過程

제주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했던 것이 아니라, 本土와 외국으로도 熱血히 出稼했었다. 그들은 19세기말 甲午更張을 전후하여 釜山·東萊·蔚山 등 慶尙南道 지방으로 나가기 비롯했으니, 그곳에는 풍성한 해산물을 켤 해녀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의 이용도가 불어나면서 부산등지를 근거지로 한 海藻商들과 客主들이 부쩍 늘어갔다. 이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前渡金을 내준다든가 食料品, 生必需品 등의 先給을 미끼로 술한 해녀들을 모집해 갔다. 제주 해녀들은 韓半島 각연안, 주로 동해안을 누비며 北上하여 해방이 되면서 경상북도 九龍浦·甘浦·良浦 등지로 물려갔다. 더구나 日本의 對馬島·靜岡·高知·長崎·三重·東京·愛媛·德島·神奈川·鹿兒島·島根·千葉 등지에도 이르렀는가 하면, 中國 山東省의 靑島와 遼東半島의 大連, 심지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ck)에까지도 진출했었다. 그들은 東海岸을 비롯, 本土 각 연안에 이르지 않는 곳

이 없었으며, 대견스럽게도 日本・中國 러시아까지 出稼했던 것이니, 그야말로 그들의 행동반경은 제주도를 거점으로 아세아 4 개국에 뻗쳐있던 것이다.

연약한 여인들로서 아세아 4 개국에 해녀작업차 뻗쳐나갔던 그 패기와 의지도 놀랍지만, 그 수효도 자그마치 1920 ~ 1930 년대의 경우 5 천내 외에 이르렀었다.<sup>93)</sup> 5 천에 달하는 해녀들이 해마다 봄이면 국내외 연안으로 나갔다가 가을에 돌아오곤 했었으니, 이는 곧 候鳥 같은 島民 大移動이었던 것이다.

예전 해녀들이 出稼할 때에는 돛배・發動船・汽船으로 나갔었지만, 가까운 本土 각 연안에는 거의가 돛배를 이용했었다.

|        |       |
|--------|-------|
| ㉟ ㅂ름이랑 | 밥으로먹곡 |
| 구름으로   | 똥을싸곡  |
| 물결이랑   | 집안을삼앙 |
| 설룬어멍   | 떼여두곡  |
| 설룬아방   | 떼여두곡  |
| 부모동생   | 이벨ㅎ곡  |
| 한강바당   | 집을삼앙  |
| 이업을    | ㅎ라ㅎ곡  |
| 이내몸이   | 탄생ㅎ든가 |

(870)

|      |        |        |
|------|--------|--------|
| 〈語釈〉 | 바람일랑   | 밥으로 먹고 |
|      | 구름으로   | 똥을 싸고  |
|      | 물결일랑   | 집안을 삼아 |
|      | 넓은 어머니 | 떼어 두고  |
|      | 넓은 아버지 | 떼어 두고  |
|      | 부모 동생  | 이별하고   |
|      | 한강바다   | 집을 삼아  |

93) ○《濟州島勢一覽》, pp.11 ~ 18, 濟州島廳, 1939.

○田口禎憲; “濟州島の海女”, 《朝鮮》, 1933, 7 月號.

|       |       |
|-------|-------|
| 이 업을  | 하라 하고 |
| 이내 몸이 | 탄생하던가 |

생활 위해 바다에 死活을 건 그들에게는 바람이 곧 밥이요, 질푸른 바다와 성난 怒濤가 바로 집안이다. 客主에 따라 모집된 해녀들은 15 ~ 30 인이 패가 되어 出稼地로 떠나는데, 돛배에는 선주와 선원 두셋이 함께 탄다. 넓은 부모 동생을 떼어둔 채, 漢拏山을 등에 지고 대천바다를 집을 삼아(873), 밤낮 노를 저으며 며칠씩 창망한 바닷길을 달린다.

|        |      |
|--------|------|
| ⑤ 열두배를 | 놀려근에 |
| 요 배착을  | 젓어보게 |
| 요 벤드레  | 근차진덜 |
| 신서란가   | 씨져서나 |
| 요내 손목  | 부러진덜 |
| 부산병원장  | 씨져서나 |

(882)

|                        |        |
|------------------------|--------|
| 〈語釈〉 열 두 배를            | 놀려서는   |
| 요 노짝을                  | 지어 보자  |
| 요 ‘벤드레’ <sup>94)</sup> | 끊어진들   |
| 신서란이                   | 씨 말랐더나 |
| 요내 손목                  | 부러진들   |
| 부산 병원장                 | 씨 말랐더나 |

신서란과 釜山 병원장에 기댄 채 ‘벤드레’나 손목이 상할까 염려 말고 힘껏 노를 젓자는 매서운 意志요, 勸力이다.

#### ④ 海女 出稼生活

出稼地에서 제주 해녀들은 몇몇씩 그곳 民家の 방을 얻어 반년쯤 자

94) 낚싯거루나 돛단배 등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멍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취생활을 한다. 出稼地의 주민들과 비슷한 言動, 習俗을 익혀 保護色을 마련하며, 20~30인이 한 반을 이뤄 지내면서 班長을 둔다. 반장은 인솔자와의 연락 및 반원의 疾病・事故・權益을 돌본다.

出稼地에서의 물질 역시 제주도에서와 같은 技法. 6개월 出稼期間에 물질하는 날은 대충 그 반절인 90일쯤이다. 水溫이 너무 차거나, 물살이나 파도가 거칠 때에는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쉬는 날이면 뜨개질을 하거나 집주인 일을 돕든지 談笑로써 소일한다. 이런 잔잔한 즐거움은 고향의 찌든 생활의 울에서 훌훌히 벗어나서 오히려 시원히 물질 나가기를 바라는 한 동기가 된다.

제주 해녀의 出稼半徑은 해방이 되면서 本土로 국한되었고, 出稼人員도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렀다. 출가대상지도 慶南에서 慶北중심으로 옮겨갔다.<sup>95)</sup> 慶北 九龍浦・甘浦・良浦 등 3개 漁協管内, 이른바 裁定地區<sup>96)</sup> 중심으로 상당수의 해녀가 해마다 移動, 雲集했었다. 錢主와 引率者 등의 不當收奪로 말미암아 그들의 權益은 몹시 유린되었으며 만만찮게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        |        |
|--------|--------|
| ㉟ 어느제나 | 나민두어   |
| 흔 돌죽장  | 시백 인물질 |
| 칠장허영   | 어정칠월   |
| 동동팔월   | 돌아오민   |

95) 趙東一의 《慶北民謠》(螢雪出版社, 1976)에 보면, 그물 당기며 부르는 <가래소리> (p.97, 200번의 자료)에 ‘비바리’가 등장한다. 경북 영덕면 노물동(老勿里)에서 채집된 민요인데, 아마 제주 해녀의 出稼에 따라 어휘가 전파된 듯하다.

96) 1956년 1월, 그곳에 해마다 나가는 제주 해녀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入漁慣行權을 裁定받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水産業法 제69조에 따른 것으로서 ①陽南・甘浦・良浦・九龍浦・大浦 각 어업협동조합(나중에 陽南漁協은 甘浦漁協에, 大浦漁協은, 九龍浦漁協에 각각 흡수되었음) 享有共同漁場 全域에, ②裸潛의 어업방법에 따라, ③5월1일부터 8월 말까지 ④天草・銀杏草・櫻草・貝類 채취를 위하여 ⑤제주 해녀 1,070명이 입어할 수 있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꽃집설령

내 고장가리

(948)

|      |        |          |
|------|--------|----------|
| 〈語釈〉 | 언제나    | 나면은      |
|      | 한 달 줄곧 | 때 정한 해녀질 |
|      | 거뒀 꾸러  | 어정 칠월    |
|      | 동동팔월   | 돌아오면     |
|      | 꽃집 챙겨  | 내 고장 가리  |

出稼生活를 5~6개월 치르고 음 8월이 되면 身命 걸어 벌어들인 收益을 켜 췌, 추석 직전에 귀향한다는 待望으로 출가해녀들은 가슴 설레인다.

출가해녀의 수효가 나날이 줄어드는 오늘날이긴 하지만, 出稼가 끊기지 않는 한, 그 權益問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요, 1세기 가까이 쌓인 출가에 따른 逸話는 漢拏山 같다. 출가가 제주 해녀들에게 지니는 비중과 뜻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민요도 술하다.

## (6) 表 現

〈海女노래〉의 사설표현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海女노래〉사설의 題材는 노를 젓는 노동생활과 직결되는내용이반을 넘으므로, 그들의 심정을 노래하는 사설은 그 제재의 多樣性부터 〈맷돌·방아노래〉에 미칠 수 없다. 힘차게 되풀이되는 노 젓기 동작과 함께 불리는 〈海女노래〉는, 그 가락이 역세듯이 그 사설 또한 直說的이요 力動的인 것이 특색이다.

앞에서 들었던 자료 ⑤6 곧, “열두배를 놀려근에／요네착을 젓어보게／요네드레 근차진덜／신사라가 씨져서냐／요네홀목 부러진덜／부산벵원장 씨져서냐”－이 사설을 그냥 읽어 갈 게 아니라, 口演實態 그대로 힘차게 노를 젓는 시늉과 더불어 〈海女노래〉가락을 흉내내며 노래해 볼

일. 억센 운율의 강렬함이 이내 몸에 와 닿을 것이다. 이처럼 구전문학의 實相은 역시 곧 口演되는 상황에서, 특히 機能이 뚜렷한 민요일 경우면, 唱者 및 作業에 이 노래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어떤 모습의 唱法인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실이 어떻게 불리는가 따위의 實狀이 밝혀져야 제대로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가끔이면 現場論의 조사방법이 바람직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㉞ 정든님이사            늬을준덜  
요네착사            늬주리아  
(877)

〈語釈〉 정든 님이야            남을 준들  
요 노 짝이야            남을 주라

㉞ 요어깬            놓앗다근  
논을사카            밧을사카  
놀릴데로            놀려보자  
(878)

〈語釈〉 요 어깨를            놓았다가  
논을 살까            밧을 살까  
놀릴 대로            놀려 보자

저절로 힘이 솟는 싱싱하고 生産的内容의 사실들. 은근한 뜻이 內在되 있었거나 隱喩가 동원되었다기보다 情意의 吐露에 자못 直叙的이다. 정든 님이야 남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 노 짝이야 남에게 빼앗기겠느냐는 反語의 표현 앞에 우리는 웃것을 여미게 된다. 요 어깨를 쓰지 않고 두어두었다가 소용이 따로 없는 일, 논도 밧도 살 수 없는 일, 힘껏 놀려 보자는 霸氣와 현실적 사고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사실의 종결어미는 〈海女노래〉의 경우, 叙述形보다 흔히 反問法

곧 疑問形을 쓴다. ⑤⑧의 “눔주리아”, ⑤⑨의 “논을 사카 밭을 사카” 처럼 반문법을 씀으로써 그 억양은 드세어지고 生動感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 인용된 민요만 하더라도 ④⑩・④①・④⑤・④⑦・④⑧・⑤④・⑤⑤・⑤⑥ 등이 한결같이 의문형을 쓰고 있다. 海女 出稼過程을 노래한 〈海女 노래〉 가운데 특히 노를 젓는 氣魄만을 모아 놓은 각편을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는 한글데로 (875번~903번의 자료 29편) 묶어 놓았는데, 반남짓 반문법을 쓰고 있다.

字數律에만 얽매어 韻律을 논의할 바 못되지마는 제주도민요의 자수율은 45 調가 〈맷돌・방아노래〉에 두드러진데,<sup>97)</sup> 〈海女노래〉의 경우는 44 調가 주장이다.

〈海女노래〉는 작업과 아주 밀착되어 불리고, 그 사설은 活力 넘치는 가락에 따르기 때문인 줄 안다.

몇가지 측면에서 〈海女노래〉를 분석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海女の 발상지라 볼 수 있는 제주도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해녀가 密集했는데, 그 수효는 거의 3만에 이른다. 그 작업이 독특할 뿐더러, 이들의 力動的인 민요인 〈海女노래〉는 국내외에서 유희를 볼 수 없는 裸潛漁業時의 〈맷노래〉다. 〈海女노래〉를 옹골차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녀자체에 대한 多元的인 조사가 先行돼야 한다.

② 海女는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海女노래〉는 제주도 해안마을에서만 전승되는 유다른 女性勞動謠다. 〈海女노래〉는 그 사설로 보아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민요의 雙璧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자리하는데, 그것은 해녀작업이 맷돌질이나 방아질에 비해 거칠고 不安定하기 때문이다.

③ 〈海女노래〉는 이미 작업과 분리되었으므로 人爲條件에 따라야만 수집될 수 있다. 自然的 歌唱機緣은 사라졌지만 해안마을 50대 이상

97)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謠》(天理大東洋學研究所, 1974)에서는 84%,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는 50.4%(平均 36.8%)에 해당된다.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p.32, 一潮閣, 1981)

해녀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전승된다. 20년전쯤부터 편곡된 〈海女노래〉가 꽤 번짐으로써 이제는 海女들에 따라서 불리는 본래의 海女노래와 舞臺 위의 편곡된 〈海女노래〉로 나누어졌다.

④〈海女노래〉는 주로 낚싯거루나 돛배를 타고 물질을 오갈 때, 해녀들 여럿이 노를 저으면서 口演되는 노래였다. 특히 本土 연안으로 出稼할 때 晝夜長川 불렀었다. 두 분 이상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것이 일반이므로 〈海女노래〉역시 先後唱을 하거나 交唱을 하는 게 보통이요, 獨唱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창이 대부분인 〈맷돌·방아노래〉와는 이 점에서 대비된다. 各篇을 불러가는 순서는 그 前篇에 드러난 이미지나 어휘로 말미암은 聯想作用에 따르는 併行體의 경우를 드물게 볼 뿐,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⑤〈海女노래〉는 노를 젓는 동작과 썩 밀착되어 口演됨으로써 그들의 노동을 한결 가볍고 즐겁게 이끄는 機能을 지녔다. 〈海女노래〉의 사실은 대체로 海女作業實態와 海女出稼 및 물질과는 상관 없는 일상적인 생각을 제재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일상감정을 노래하는 사실은 반드시 해녀작업할 때에 〈海女노래〉의 가락으로 불리지만은 않는 流動的인 성격을 띤다.

⑥〈海女노래〉사실이 지니는 基調에는 바다를 집안이나 밭과 다름없이 인식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며, 해녀작업을 決死的으로 끌어가는 意志가 뚜렷하다. 濟州 해녀만이 지니는 超人間的 技倆이 두드러지고, 특수한 遺傳的 素質은 없다. 해녀가 제주도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며, 그 기량에 따라 下軍·中軍·上軍으로 나누어진다. 그들의 意欲과 苦楚, 希願 및 作業實相이 사실 속에 잘 드러난다. 海女出稼에 따르는 사실은 出稼過程과 出稼生活을 제재하는 바, 〈海女노래〉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⑦〈海女노래〉의 사실은 力動的이요, 直說的인 색채가 짙다. 疑問形과 44調의 字數律은 이런 특색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 Ⅳ. 濟州島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 1. 民謠와 住民意識

요새 住民意識에 대한 논의가 몇 측면에서 꽤 활발하다. 주민의식이란 行動樣式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바탕은 본시 不可視的 心意現象이므로 이를 밝히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 한 겨레이든 한 지역이든, 주민의식의 연구는 여러 視點에서의 접근과 그 總和가 이루어져야 대체적인 命題를 추출할 수 있겠는데, 다른 겨레나 다른 지역과의 對比 연구까지 곁들이지 않는다면 그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인의 의식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각 분야의 時空的 조사 연구가 상당 수준 이루어진 다음, 導出된 바의 集約的 결론으로서 탐색될 성질의 것이며 제주도 같은 한 지역의 경우도 한가지다. 地域民의 의식구명을 위해서도 역시 歷史學・社會學・心理學・人類學 등 여러 학문과 産業・經濟와 生産活動 및 自然科學 모든 분야가 총동원되어야 한다. 이 모든 학문의 결론 그대로가 주민의식 그 자체일 수는 물론 없지만 적・간접의 자료로서 이바지할 것이다.

濟州人의 의식 연구는 따라서 濟州 연구의 總和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각분야의 제주 연구는 地域的인 偏在와 好奇的인 殊異로 말미암아 光復後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濟州島가 濟州道로 승격한 지 30년이 넘는 오늘에도 아직 모든 분야의 연구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그 작업의 한계와 장애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주인의 의식 구명은 한국인의 의식 연구가 그 바탕에 깔려야 하며 그 터전위에 제주인의 의식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타당한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의 의식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으며, 제주민의 의식 구명 역시 難題일 수밖에 없다.

住民意識은 集團的, 社會的 性格과 밀착된다고 할 때 그 연구는 大別하면 文化類型에 관한 고찰, 國民性고찰, 社會的 性格 및 基本的 個性에 관한 고찰로 나눌 수도 있다. 한국 문화 내지 제주 문화의 類型化 作業(patterning)마저 이룩되지 못한 오늘이지마는, 주민의식을 밝히는 일은 自己同一性을 확인하는 작업이요, 自我가 자아의 主人公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 곧 主体性을 정립하는 작업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요하다. 남과 다른 自我, 남들과 판별되는 集團的 性格이 곧 주민의식의 要諦일 것이다.

濟州의 도민의식을 밝힐 때 도민의 존재 양식, 곧 制度的 樣式이 천명될 것이며, 중국에는 自己實現의 豫言(self-fulfilling prophecy)이 구축되면서 제주인의 潛在的 능력이 개발될 줄 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의식이 우선 정립되고 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주인의 그것을 밝히는 演繹의 방법만이 타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각지역 주민의 의식을 차곡차곡 천명하고 그 集合으로써 한국인 전반의 특유의식을 歸納하는 방법 또한 바람직하다.

민요는 주민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민요는 庶民的이요 機能的이며 地域的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神話·傳說·民譚 등 說話나 판소리·民俗劇에 비해서도 민요는 유달리 서민과 밀착돼 있으며, 특히 노동요는 노동의 능률을 올리고 즐거이 일을 치르는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순간순간 확인하며 고무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 나름의 서민생활 일체의 實相을 보여 주면서 주민의식을 집약하고 표현한다. 이 세상 어디서든 勞動을 떠난 전승적 서민생활이란 있을 수 없으며, 노동요는 민요의 本領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민요는 지역마다의 서민생활을 그대로 축약하며, 한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 민요의 특성으로 구현된다. 제주도민요의 특성은 곧 제주도의 특성이다. 민요는 대체로 自足的 性격을 띠면서 抒情的이기 때문에 서민의식을 더욱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낸다. 제주도민요 各篇에는 제주도의 風土·歷史·民俗·產業·經濟·社會·宗教·文化 등 제주도의 모든 것과

도민의 生産方法과 生活樣式 및 思考方法 등이 뭉뚱그려져 나타난다. 제주도민요의 각편에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전부가 담겨져 있으며, 그 면밀한 분석으로 제주도의 모든 것을 살펴 알 수 있다.

R. Benedict는 平均的 日本人(average Japanese)의 생활을 탐구함으로써 그 유명한 《菊花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을 냈는데, 그 자료로서 일본인의 政治・經濟生活, 性과 家族生活, 宗教生活, 育兒方法 등을 동원한 바 있다.

G. Gorer는 미국인의 生活經驗, 곧 愛情・友情・싸움・浪費・出版物・時論・批判 등을 자료로 하여 미국인의 성격을 살폈다.<sup>98)</sup> 미국・독일・일본 사람들의 성격을 비교 관찰하였던 K. Young은 그 분석 방법으로 몇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동원하였었다.<sup>99)</sup>

민요만으로써 제주의 도민의식이 온통 밝혀질 수야 없겠지만, 이런 작업이 거듭 쌓여져 나갈 때 제주인 및 한국인의 集團的 性格은 점차 그 껍질이 벗겨져 나갈 것이며 自我가 자아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인식되는 일종의 가치, 곧 主体性도 확인될 줄 안다.

주민의식이나 민족성 등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否定的 측면이 공존한다. 여기에서는 긍정적 측면에서 歸納적으로 확인되는 自彊不息意識과 自存・守分意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도민의식 분석의 전초 작업을 이룩하는 한편, 제주도민요의 實相을 살펴 볼까 한다. 민족성・도민성 등을 논의할 때 부정적 측면을 확대하는 경향은 타당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여기서는 긍정적 측면을 우선 논의함을 덧붙인다.<sup>100)</sup>

98) G. Gorer; *The Americans : A Study in National Character*, 1948.

99) K. Young의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에 따르면 그 연구 관점은 ①最初の 基礎訓練(곧 食事・睡眠・排泄 등)과 攻撃性, ②愛情, ③道德과 道德의 自我의 成長, ④自己評價, ⑤技能과 知識의 習得, ⑥社會의 不適應 등이다.

100) 부정적 측면을 확대시킴은 어떤 면에서 日本植民政策의 유산이요, 奴隸根性的 산물이요, 非主體的 自卑意識 내지 自棄意識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그 부정적 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옳겠지만, 이에 편중하는 견해는 배제함이 타당할 줄 안다.

민요를 분석하면서 집단의를 살피는 작업에는 몇가지 방법을 전제할 수 있다. 민요를 분류해서 그 분포와 傳承實態 및 傳承者와 口演場所를 밝히고 그 機能・題材・內容・表現 등을 검토하여 各篇의 深層的 분석을 거치면서, 곧 민요의 실상을 밝히는 가운데 서민의식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의 성격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 패턴에 나타나는 여러 특성으로 구성된다는 性格理論에 입각해서 心理學的으로 민요 전반을 분석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를 택하고 마땅한 자료를 간추려 그 背景 분석까지 결들임으로써 도민의식의 大本을 집약할까 한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바는 다음 몇가지다.

① 제주도는 어떤 곳이며, 도민들은 지난날 사람살이라 볼 수 없는 술한 逆境을 어떻게 克服해 왔는가.

② 민요의 분류상 勞動謠가 제주도민요 가운데 차지하는 육중한 비중에 비추어, 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도민의식은 무엇인가.

③ 민요사설의 내용을 분석하는 가운데 추출되는 바 도민의식의 大本은 무엇인가.

## 2. 濟州島史와 島民生活

제주도민요는 제주도와 도민의 縮圖 그것이라고 볼 때에 그 특수한 地理・歷史 속에서의 도민의 삶을 간추려 파악할 필요가 있다. 風光明媚하면서도 척박한 濟州에는 짓궂은 歷史가 흘러갔으니 朝鮮朝末까지 사람살이 아닌 삶을 도민들은 줄기차게 이어왔다. 조선말까지 제주도민이 二重三重으로 어떻게 시달려 왔는가는 한두마디로 말하기 힘들지만, 그 중요항목만을 간추려 보면, ①土豪의 橫暴, ②중앙 정부 및 官吏의 등쌀과 수탈, ③貢物 마련과 貢物輸送의 어려움, ④ 혹심한 賦役, ⑤蒙古의 侵害, ⑥倭寇의 侵奪 등이다.

先人들은 제주도를 ‘彈丸海島’・‘環海天險’・‘地瘠民貧’・‘地狹民

貧’·地窄民稠’·‘地窄民多’ 등으로 일컬어 왔다. 透水性이 강한 地表이므로 논이 퍽 드물고 동굴과 돌맹이가 지천으로 깔렸다.

이른바 ‘風多’의 섬으로 金尙憲도 그의 《南槎錄》에서 5개월 동안 해·달·별을 볼 수 있는 날은 겨우 수십일이요 바람은 날마다 불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sup>101)</sup> 風災는 줄곧 도민을 괴롭혔으니 예를 들어 顯宗 11년(1670) 12월에는 나무 열매를 따던 飢民들이 風雪에 묻혀 凍死者가 91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02)</sup>

顯宗 때의 濟州牧使 盧錠이 上啓한 바에 따르면 顯宗 12년(1671) 2월 15일에는 飢死者數 437명이라 했고, 잇따라 그해 4월 3일에는 2,260여명이나 飢死함으로써 주민들이 家畜마저도 殺食하였었으니, 닭·개의 울음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고 했다.<sup>103)</sup> 世宗 18년(1436) 大臣들이 獻議한 바에 따르면, 제주는 地窄民稠하므로 마소를 盜殺하면서 생계를 잇는 이가 많아 말이 번식하지 못하니, 차라리 그런 이들은 平安·黃海道로 온 집안을 出陸시킴이 옳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었을 정도였다.<sup>104)</sup>

濟州 察訪 金爲民이 世宗 9년(1427) 조정에 上啓했던 ‘公私積弊十個項’은 눈물의 역사 속에 제주민이 얼마나 설움을 삼키며 참고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 그 첫째로 土豪들의 良民強占의 弊를 들고 있다.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守令의 紀綱이 풀렸으며 土豪들은 良民을 제멋대로 차지하여 ‘奉足’이라 일컫고는 부귀기를 노예같이 해서 8, 9세만 되면 자식을 자식이라 할 수 없게 되니 그 冤抑을 풀 길 없다고

101) 其間五個月，得見三光者，僅數十日，此外恒陰不開，不雨則雪，風則無日不吹。(金尙憲《南槎錄》9月22日條)

102) 「顯宗實錄」卷19, 12年2月條.

103) 「顯宗實錄」卷19, 12年4月條.

104) 世宗十八年丙辰六月乙卯，議于政府曰，先是大臣獻議，以爲濟州，地窄民稠，盜殺牛馬，以資其生者，頗多。因此，馬不蕃殖，請盜殺牛馬者，舉家出陸。其有主私賤，授本主。平民及公賤，移置平安黃海地廣民稀之處，使之安業。予亦以爲，小島之中，無賴之徒，潛聚山谷，盜殺牛馬，恣行無忌，不可不懲，且意其徒不過數百，遂從其議，令趙順生推刷出陸，其數至八百，自全羅至平安道，提挈老幼，絡繹于路，其辛勤艱苦飢寒凍餒者，不知其幾。(「世宗實錄」卷72, 18年6月條)

했다.<sup>105)</sup>

도민이 줄곧 시달린 것은 무엇보다 과중하기만 한 貢獻이었다. 《世宗實錄》卷 151 〈地理志〉등에 기록된 土貢品目を 들여다보면 말·전복·굴을 비롯하여 榧子·榧子木에 이르기까지 별의별의 것이 다 끼어 있다. 전복만 하더라도 全鮑·引鮑·槌鮑·條鮑 등 各樣이며, 굴에는 柑橋·柚子·乳柑·洞庭橋·金橋·青橋·山橋 등 가지가지가 들어 있다. 오징어·옥도미·다시마 등 魚藻類와 陳皮·半夏 등 술한 藥材 및 鹿茸 등도 끼어 있다. 史籍 등 제주도 관계 문헌에는 進上, 貢獻에 따른 기록이 상당하다. 이를 모아 정리, 분석한다 해도 방대한 책 몇권에 이를 것이다. 強貢에 따른 시달림의 참상을 잘 집약한 문헌으로는 濟州 牧使를 지낸 바 있었던 國學者이자 實學者인 李衡祥(1653~1733)의 《耽羅狀啓》와 《南甯博物》(貢誌)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비슷한데 《耽羅狀啓》의 기록을 간추려 본다.

비좁은 濟州의 田結은 3,200 結 미만이고, 인구는 불과 9,100 명인데 이는 畿甸의 中邑 정도다. 貢納의 元數는 統營에 비하여 백갑절인데, 辺境의 미약한 民力으로는 統營의 백갑절에 이르는 貢納이 어렵다. 貢納 物種은 1년내 貢馬 4~500 匹, 各嶺 9,000 餘貼, 오징어 700 餘貼, 酸果 38,500 餘箇, 馬鞍 4~50 部, 鹿皮 5~60 令, 簞皮 50 令, 鹿舌 5~60 箇, 鹿尾 5~60 箇, 鹿脯 200 餘条, 各種 藥材 470 餘斤, 馬衣諸緣 680 餘部, 기타 蓐古·榧子·白蠟·山柚子·二年木·弓帑·箇箇螺鈿·鮑匣·駝結只·涼臺·帽子·梳省衫帳·小小雜物에 이르고 있으니 나약한 民力으로 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과중한 賦役이 이에 덮치므로 百工之役은 도민의 보잘것 없는

105) 世宗九年丁未六月丁卯. 濟州道察訪金爲民啓, 謹將濟州公私積年弊事, 條列以聞. 一. 臣到濟州, 告訴者如雲, 皆土豪影占良民事也. 問之則皆曰, 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占良民, 稱爲奉足, 使之如奴隸. 故良民之子, 年纔八九, 已爲所占, 而父不得爲之子. 雖訴於官, 未有不爲權豪所弄, 冤抑何由得伸. 請嚴立禁防, 令安撫使推勘, 如有強占良民, 稱爲奉足役使者, 依律痛懲, 以除其弊. (『世宗實錄』卷 36, 9年 6月條)

힘으로서는 不可抗力이요, 八道 어디서는 찾아볼 수 없는 規例라 호소했다.

營本官 및 九鎮堡의 凡百支供과 아울러 63 牧場, 41 果園, 63 烽臺에 東伍 3,700 餘名, 牙兵 990 餘名, 牧子 1,200 餘名, 果園直이 880 餘名, 船格 300 餘名, 烽軍 490 餘名, 差備軍 100 餘名, 城丁軍 2,800 餘名, 隨率軍 480 餘名, 留直軍 500 餘名 및 紙匠·騎步兵·官吏·鎮撫·吹手·羅將·軍牢·官奴 등 百工之役을 모두 이들 중에서 責任 差出해야 하매 一人十役이요 남녀 모두 태어나서 채 머리도 닦기 전에 身役에 응하게 된다. 돌을 쪼아 作農하면서 製塩·魚網法도 모르는데 官家의 온갖 出役에 시달리므로 어찌 살아갈 자 있으랴 했다.

進上 貢獻에 시달리다 지쳐 심지어는 柑橘나무에 湯水를 부어 枯死시키는 예가 있었는가 하면,<sup>106)</sup> 말 수천필을 가졌던 旌義人 金萬鎰은 갖은 방법으로 가혹한 진상이 강요되자 駿馬가 滅種될까 두려워 일부러 그 눈에 상처를 내어 소경말을 만들거나 가죽과 귀를 꺾어 種馬로 삼았을 지경이었다.<sup>107)</sup> 이는 濟州에서만 겪은 일은 아니었다. 全南 康津에서 取材한 丁若鏞의 古詩는 그 好資다. 곧 그가 혹독한 軍布에 시달리다 못해 陽根을 切去한 〈哀絕陽〉이 무색할 정도다.<sup>108)</sup> 따라서 《與猶堂全書》에 동되는 耽津(康津)의 村謠와 農謠와 漁歌와도 同軌다. 國馬를 살피고 기

106) 英祖二十四年戊辰正月乙未, 命同副承旨韓億增入侍, …… 聞 柑橘之貢, 亦有獎. 閭巷間, 若生此樹, 則必以湯水澆殺云, 然乎. 億增對曰, 果有此獎矣. 民家有此樹, 則自官以家主定果主. 且令摘納矣. (「英祖實錄」卷 67, 24年 正月條)

107) 金萬鎰之馬多 至數千匹不可紀數. 每新官之入去也, 首徵遞任進上馬於萬鎰, 三年喂養習才, 而臨遞時進獻, 萬鎰之馬雖多, 或乏. 進上可合者, 則自官家囚家僮徵索, 如是而不得, 則鞭扑隨之, 以至於囚其妻杖其子, 無所不至. 若有貪污之官, 則憑藉進上, 徵之無數, 悉爲私用. 馬之稍駿者, 輒爲三邑卒之所爭奪, 未有所遺. 萬鎰恐其絕種, 擇駿馬可以取種者, 或盲其目, 或割其皮與耳, 然後乃能保存而取種. (李健《濟州風土記》)

108) 舅喪已縞兒未澡 三代名簽在軍保, 薄言往愬虎守關 里正咆哮牛去早,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 靈室淫刑豈有幸 閨閉去勢良亦憾(與猶堂全書 卷一.)

르는 牧子가 나면 그 집안은 망할 길밖에 더 없었다. 16 세에 定役하고 60 세에 면역하는 목자 중에서 죽은 말 값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었으니 家産을 탕진하는 일마저 벌어졌었다.<sup>109)</sup> 한겨울 먹일 꼴이 모자라거나 해서 목자는 곧 그 가족을 벗겨 官에 납부하는데 馬籍과 대조해서 差錯이 있거나 損傷될 경우엔 이른바 ‘同色馬’라 하여 꼭 같은 말을 바쳐야 했다. 가난한 목자들로서는 말을 변상하기 위해 농사 짓는 밭과 소, 심지어는 솔과 농기구 등을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잇따라 10 여필이나 備納할 때에는 목자의 힘이 다하면 그 친족을 가려내어, 그들에게 分定, 徵納했었다. 따라서 목자의 임무를 지내고 나면 破家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처절하게도 목자를 죽여 이를 모면해 보려는 자마저 있었다. 監牧官은 判官을 겸하는데 죽은 말의 가족이 馬籍과 어김없더라도 갖은 흥제로써 받아들이질 않음으로써 國馬數의 缺縮을 막아 제 처신만 앞세웠다.<sup>110)</sup>

지난날 疊疊艱難의 도민의 삶은 이래저래 사람살이 아니었다. 태어나 자 벌써 무서운 苦難, 苦役이 거듭 물려와 부딪혔었다.

109) 國馬看養牧子, 十六歲定役, 六十免役, 例當而未得推移轉換所掌, 故失馬價 蕩盡家産, 徵納無由 獎將難救. (『中宗實錄』卷 19, 8年 '2月條)

110) 島中國馬, 發牧於諸處, 而兩縣亦然. 馬屯甚多, 以天地玄黃, 排字名屯. 一屯之馬, 少不下百餘匹, 而牧子之數, 多不過二三人. 所謂牧子者, 即授馬而爲之牧之者也. 夏秋草長之時, 則馬無殞斃之患, 而如隆冬春初草枯之時, 則馬之飢餓而死者, 不可勝紀. 如有致死之馬, 則牧子者, 即剥其皮, 以納于官, 官以馬籍, 與皮憑考, 毛色相符然後, 乃捧其皮. 以故失馬, 載籍或有毛色差錯, 皮毛有損傷之痕, 則退之不捧, 即徵其馬於牧子, 謂之同色馬. 牧子以縣署百結之人, 買馬之際, 力有不及, 盡賣其田與農牛, 此而不足, 如釜鼎農器物等, 無不賣之. 僅僅買納之後, 馬若又斃, 則又如是. 至於五六匹十餘匹 備納者, 其力已盡, 無可爲, 則自官家抄出其遠近一族, 分定徵納. 爲役甚故, 一經此任, 無不破家, 其呼冤愁歎之狀, 有不忍見, 至有填坑仆谷而死者. 其爲族屬, 亦不勝其徵, 故殺其牧子 而圖免者, 間或有之. 大抵 判官例兼監牧官, 國馬欠縮, 則朝廷自有應施之罰, 故所斃之馬, 毛色雖或不錯於馬籍, 皮毛又無損傷之處, 百計故退, 必欲徵馬, 以充其數. 故凡馬死納皮之際, 多退少捧, 此其爲牧子者, 所以難堪其役, 殊不知不可率獸食人之義也. (李健; 《濟州風土記》)

㉞ 나어명도            날아니 날꼭  
 나아밤도            날아니 날꼭  
 짐진산이            배 빌언 낫저  
 (138)

<語釈>    내 어머니도            날 아니 날고  
               내 아버지도            날 아니 날고  
               짐진 산이            배 빌어 낫았네

짐을 잔뜩 짊어진 山처럼 육중한 苦界는 차라리 宿命이라고 해야리며  
 사람살이 아닌 삶을 회의해 본다. 封物을 마련하는 어려움만도 하늘 같  
 은데, 이를 서울로 나르는 괴로움 또한 生死를 건 싸움이였다. 예를 들  
 어 仁祖 18년(1640) 2월 3일, 進貢船이 풍파를 만나 敗沒하고 그 溺  
 死者가 100여명에 달했던 일,<sup>111)</sup> 仁祖 24년(1646) 10월 14일 旌義縣  
 歲貢船이 楸子島에서 바람으로 沈沒, 30명이 익사한 일<sup>112)</sup> 등 실로 悲  
 痛한 事故는 번번이 도민들을 울렸었다. 英祖 48년(1772) 6월 11일에는  
 濟州 貢果人이 漂流하여 8개월만에야 비로소 서울에 이르니 임금도 몸  
 소 召見, 선물 주고 慰諭했었다한다.<sup>113)</sup> 전국이 一日生活圈化된 오늘로  
 와서는 虛構 같은 이야기지만, 진상한 柑橘이 상해 버려 말썽을 빚는 일  
 도 있었으니<sup>114)</sup> 실로 進上物은 海民의 膏血이요, 그 進上路程은 海民의  
 生死를 건 勞苦였다.<sup>115)</sup>

111) 仁祖十八年庚辰二月甲寅, 濟州進貢船五艘, 遭風敗沒, 溺死者, 百餘人.  
 上聞之, 令本道優恤其妻子, 所載貢物, 並許蕩滌. (『仁祖實錄』卷 40, 18  
 年 2月條)

112) 仁祖二十四年丙戌十月甲戌, 濟州牧使柳廷益馳啓曰, 旌義縣歲貢船, 到  
 楸子島, 遭風敗沒, 貢物領來吏康應吉等三十人溺死. 上令本道, 舉行恤典.  
 (『仁祖實錄』卷 47, 24年 10月條)

113) 英祖四十八年壬辰六月己卯, 上御崇政殿東月臺, 召入濟州漂流人, 各給  
 米木, 使松邑給回糧. (『英祖實錄』卷 118, 48年 6月條)

114) 肅宗 17年(1691) 2월 6일의 예 (『肅宗實錄』卷 23, 17年 2月條)

115) 『英祖實錄』卷 62, 21年 12月條.

濟州의 男丁들은 고래의 밥이었다. 오직 제집애를 낳아야 이 애는 부모를 공경할 애라고 말하며 기뻐했었다.<sup>116)</sup> ‘女多男少’라고 잘 알려졌다 다시피 여인들이라고 日常 生業의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으니, 男女 구별 없이 舊規에 따라서 주민 연령이 10 세 이상이면 記籍, 徭役을 온통 맡겼었다.<sup>117)</sup> 찢어지는 가난 위에 덮친 負役으로 제주 남정들은 부모 처자를 파는 경우도 속출하였는데, 肅宗 28년(1702) 7월 12일 濟州 守臣이 狀啓한 바에 따르면 재 가족을 판 자가 무려 58명에 이르렀었다 한다.<sup>118)</sup> 苦役을 이길 길 없어 목을 매서 죽은 일마저 있었다.<sup>119)</sup>

進貢의 대상지는 서울에 국한되었던 게 아니라, 나라 밖으로 元・明에도 미쳤었다. 史籍에 드러난 貢納記錄만 해도 엄청난데, 예를 들어 高麗 忠烈王 21년 윤달에는 濟州 方物로 苧布 100匹, 木衣 40葉 외로 野貓皮(83枚), 黃貓皮(200枚), 麂皮(400枚), 鞍轡(5副) 등을 실어다 바치기도 했다.<sup>120)</sup> 元에 대한 方物品目 가운데는 말과 쇠고기는 물론, 酥油・金畫瓊器・들평 등 갖가지였다. 더구나 恭愍王 23년(1374)에는 明帝가 사람을 보내어 耽羅 好馬 2,000 필을 골라 바치도록 했었으니, 耽羅馬는 일찌기 元朝 때의 2~3 만필의 말을 퍼뜨려서 牧養, 蕃殖케 한 결과

116) 女多男少：每年敗船，沒死甚衆，故男貴女賤。至殘者亦畜二三妻，或有十餘妻者。生男則曰，鯨鯢之食，不甚愛重，惟生女然後喜曰，是當養吾，情亦憾矣。(李衡祥：《南宦博物》誌俗条，1704)

117) 島中舊規，民年十歲以上，無論男女，并籍其姓名，謂之里狀。大小徭役，專責人口，而大靜渠人民甚少，除雜故外應役者，只一百四十六名。(「顯宗實錄」卷9, 5年 11月條)

118) 肅宗二十八年壬午七月辛酉，先是濟州守臣狀言，本島三邑，貧殘無依，役倍他處，甚至賣父母鬻妻子，屬當身賣同生之境，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請以常平糶公會付耗穀，參酌劃給，以爲贖還之地。(「肅宗實錄」卷37, 28年 7月條)

119) 濟州判官許承弼，非但凌蔑上官，賦斂煩重，刑罰不中，差役不均，鄉吏金石良，連定苦役，不勝支當，結項致死。(「中宗實錄」卷80, 30年 12月條)

120) 忠烈王二十一年乙未閏月庚午，遣中郎將趙琛如元，進濟州方物，苧布一百匹，木衣四十葉，脯六籠，獐皮七十六領，野貓皮八十三領，黃貓皮二百領，麂皮四百領，鞍轡五副。(《高麗史》卷30, 忠烈王 21年 閏月條)

라는 것이 그 알곳은 口實이었다.<sup>121)</sup>

|    |      |       |
|----|------|-------|
| ⑥1 | 절이라라 | 삼성제절아 |
|    | 절이라라 | 스성제절아 |
|    | 울어오민 | 묵스와라라 |
|    |      | (615) |

|      |       |         |
|------|-------|---------|
| 〈語釈〉 | 물결일러라 | 삼형제 물결아 |
|      | 물결일러라 | 사형제 물결아 |
|      | 울어 오면 | 무서월러라   |

바다는 제주도민들에게 친숙한 일터이면서도 進貢船, 漁撈船을 집어 삼키는 恐怖의 대상이어서, 세차게 물려오는 물결은 土豪, 官吏, 朝廷, 元・明, 倭寇 등 이중삼중으로 도민을 할퀴어 뜯는 外勢의 상징이기도 했다.

제주 해안 일대에 빈번이 덮쳤던 倭寇의 행패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明宗 10년(1555) 7월 6일에는 무려 1,000여명이 물려든 적도 있었다.<sup>122)</sup>

|    |      |        |
|----|------|--------|
| ⑥2 | 성산망에 | 불싸라    |
|    | 지미망에 | 불싸라    |
|    |      | (1324) |

121) 恭愍王二十三年甲寅四月戊申, 帝遣禮部主事林密・孳牧大使蔡斌來, 中書省咨曰, 欽奉聖旨, 已前征進沙漠, 爲因路途驚速, 馬匹多有損壞, 如今大軍又征進, 我想高麗國, 已先元朝, 曾有馬二三萬留在耽羅, 牧養孳生甚多, 中書省差人將文書去, 與高麗國王, 說得知道, 教他將好馬揀選二千匹送來. 於是遣門下評理韓邦彥, 往耽羅取馬. (《高麗史》卷44, 恭愍王 23年 4月條)

122) 明宗十年乙卯七月戊戌,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尚未退兵, 定虜衛金直孫・甲士金成祖・李希俊・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進,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 射中其背, 即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明宗實錄」卷19, 10年 7月條)

〈語釈〉 城山望에 불 켜라  
地尾望에 불 켜라

⑬ 신랑님이 오신다  
색시님도 오신다  
신랑방에 불 켜고  
색시방에 불 켜라<sup>123)</sup>  
(原州地方)

한국 농촌의 어린이들이 쇠비름을 캐고는 그 뿌리를 돌에 딱딱 칠 때 붉어짐을 반기며 부른 동요 두편. 제주도 어린이들은 그 흔했던 봉우리의 烽燧臺 烽火를 연상했는데, 本土 어린이들은 新房의 정겨운 등피불을 그렸다. 그만큼 제주도에 倭寇 침탈이 격렬했었다는 증거다.

도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드디어 本土를 도망쳤었으니, 이는 도민의 대이동이었다. 섬의 防禦 자체가 어렵게 되자 17세기초에서<sup>124)</sup> 약 200년간 정부는 出陸禁止令으로써 도민을 묶었었는데, 도민의 생활 전반, 곧 社會・經濟・貿易・文化의 폐쇄에 따른 발전 저해의 逆機能도 무척 컸던 터이다.

지금 世界の 寵兒로서의 제주도는 國際的 觀光地로 跳躍하면서 急激한 改變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으니, 도민의 主人意識은 영원한 미래까지 줄기차게 펼쳐갈지 숙제다. 어차피 지난날의 제주도는 눈물과 忍苦로 점철된 역사였고, 도민의 생활은 오직 生存을 위한 自彊不息의 몸부림이었다고 본다.

123) 任東權; 《韓國民謡集》(東国文化社, 1961) 1500 번의 자료.

124) 仁祖七年己巳八月乙丑, 濟州居民, 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仁祖實錄』卷 21, 7年 8月條)

### 3. 民謠의 分類로 본 島民意識

제주도민요의 종류를 통해 본 도민의식을 살피기 위해 제주도민요의 분류에 따른 特異性을 우선 간추리면, ①勞動謠가 압도적으로 많고, ②婦女謠가 대부분인가 하면, ③本土 민요와의 類似謠가 드물다는 점이다.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 볼 때 수록 민요 총수 1,403편 가운데 勞動謠는 1,142 편이니 그 비중은 실로 민요 총수의 5분의 4에 이른다. 제주도민요에서의 勞動謠의 優位性은 本土의 민요와 대비하여 볼 때 도 썩 두드러지다. 제주도민요의 대부분이 勞動謠인 까닭은 時空的인 窮乏과 苦難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일해야 살지, 일 았다간 죽는다는 哲理가 도민의 신념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도민들의 儉朴·勤勉性은 실로 강조할 만하다.

노동요가 흔함은 그만큼 제주도민요가 훌륭하다는 바탕이 되는데, 특히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의 우수성<sup>125)</sup>은 그 特長이기도 하다.

傳承者 性別로 보아서는 婦女謠가 압도적이다. 노동요의 경우 男謠對 婦女謠의 비율은 약 1대 4에 이른다. 제주도민요의 대부분이 부녀요인 이유는 여성의 활동력이 억척같고 근면하다는 점, 제주도의 특수한 生産構造로 말미암아 유별나게 맷돌·방아작업이나 해녀작업이 옛부터 성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質·量으로 놀라운 두가지 노래가 여성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다는 점, 地瘠民貧의 지역이므로 여성들이 치러야 할 노동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本土 民謠에 비하여 비슷한 노래가 드문 것도 제주도민요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맷돌·방아노래〉·〈海女노래〉를 비롯하여, 〈발 밟는 노래〉와 〈탕전노래〉·〈양태노래〉·〈망전노래〉<sup>126)</sup> 〈흙덩이 바수는 노래〉·

125) 拙稿; “海女노래와 海女”, 《李嶽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7. pp. 435~456.

126) 拙著;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마소 모는 노래〉·〈옛목 짓는 노래〉·〈나무 내리는 노래〉·〈꿀 베는 노래〉·〈방앗돌 굴리는 노래〉·〈토불미노래〉·〈더딤불미노래〉·〈똑딱 불미노래〉·〈집줄 놓는 노래〉·〈짚 두드리는 노래〉 등은 제주도에 서만 전승되는 유다른 노동요들이다. 특히 유다른 노동의 종류가 많고 그 勞動量이 많다는 사실은 곧 특수하고 다양한 노동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요에서 勞動謠나 婦女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도민들이 自立·自主·自辨·自足·自彊 意志를 지니고, 勤儉·不屈하며, 質朴, 強韌한 생활의식이 철저하다는 증거가 된다. 곧 自彊不息의 도민의식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本土의 민요에서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자료가 꽤 交流되는데, 제주도민요는 그 類似性이 배제된 채 짙은 個性을 띠고 있음도 유다른 도민생활의 반영인가 한다.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에 수록된 勞動謠 사실의 題材 분석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로 도민의식이 드러난다.

#### 濟州島 民謠 勞動謠의 題材 分析

資料：金榮教；《濟州島民謠研究上》

| 項 目<br>順 | 題 材       | 謠 數   | 百 分 率  |
|----------|-----------|-------|--------|
| 1        | 生 活 苦     | 244 편 | 21.4 % |
| 2        | 勞 動 生 活   | 240   | 21.0   |
| 3        | 自 立 · 勤 勉 | 46    | 4.0    |
| 4        | 시 집 살 이   | 93    | 8.1    |
| 5        | 愛 情       | 127   | 11.1   |
| 6        | 家 事 · 家 族 | 191   | 16.7   |
| 7        | 警 世       | 88    | 7.7    |
| 8        | 信 仰 · 風 土 | 57    | 5.0    |
| 9        | 꿈 · 所 望   | 56    | 5.0    |
| 計        |           | 1,142 | 100 %  |

이 통계를 보면 生活苦와 勞動生活에 상당한 비율이 쏠렸다. 題材別統計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題材 그것만으로 전승자들의 의식을 잘라 말하기는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도민들이 겪는 生活苦와 벅찬 勞動生活을 어림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민요의 분류상 특이성이 勞動謠와 婦女謠의 우세에 있음과 더불어 도민들, 특히 여인들의 自主・自強・勤勉・不敗의 정신을 지적하는 데 그 근거가 된다.

#### 4. 民謡의 內容으로 본 島民意識

다음에는 간추려 낸 자료의 사실 내용을 살피면서 이에 담긴 민중 의식을 요약해 본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선 ①忍苦, ②不屈, ③自強, ④力行 등 4개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곧 “忍苦, 不屈하면서 自強, 力行한다”는 命題로 압축되는 바, 한마디로 말한다면 ‘自強不息意識’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식이 ‘自強不息의 精神’으로 굳어진 것은 縱橫으로 본 제주도적 특수 여건에 따른 것이다. ‘2. 濟州島와 島民’에서 보았듯이 지난날 제주도는 時空 兩面에서 모진 여건으로 뒤덮인 이른바 ‘土瘠民貧’ ‘環海天險’의 섬인데다 눈물의 역사가 흘러갔으며, 도민들의 삶은 오직 生存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 (1) 忍苦・不屈의 精神

지난날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苦難의 무게와 이를 극복했던 意志가 얼마나 절기찼던가는 실로 표현할 말이 없다.

|        |       |
|--------|-------|
| ④ 낭도지는 | 지계여마는 |
| 둘도지는   | 지계여마는 |
| 우리어멍   | 날지운지계 |
| 놈이뵈린   | 지계로코나 |
|        | (406) |

〈語釈〉 나무도 지는 지게네마는  
 돌도 지는 지게네마는  
 우리 어머니 날 지운 지겐  
 남이 버린 지게로구나

⑥⑤ 설문어명 날설아울적  
 어느바당 메역국떡곡  
 벼툼불적 절일적마다  
 궁글리명 못사는구나  
 (141)

〈語釈〉 센은 어머니 날 서어 울 적  
 어느 바다 미역국 먹고  
 바람 불 적 물결 일 적마다  
 혼들리며 못 사는구나

⑥⑥ 나전생은 무르예전 생이여  
 돌아가명 날울리더라  
 (152)

〈語釈〉 내 前生은 씨아 前生이네  
 돌아가며 날 울리더라

⑥⑦ 가난하고 서난혼인성  
 빙은드난 머서 난하다  
 가난도기 서난도말앙  
 지장새미 물만이살라  
 (721)

〈語釈〉 가난하고 서러운 인생

|             |         |
|-------------|---------|
| 병은 드니       | 더 서럽구나  |
| 가난도         | 싫지도 말아  |
| ‘지장세미’ 127) | 물만큼 살아라 |

이 민요들에서 우리는 우선 悲痛・痛恨・宿命・忍辱・忍苦 등을 檢出할 수 있다. 民間들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듯이 自由意志에 의하여 선택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태어나 보니 무거운 지계가 얹혀졌다. 하필이면 남이 내동맹이쳐 버린 무거운 지계를 어머니는 뒤집어 씌운 것 일까 (64). 그렇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을 때 바닷물에 시달리기만 하는 미역을 일상 먹어 내 骨肉을 굳혔겠고, 미역의 生理를 그대로 닮아 잇따르는 苦楚를 宿命처럼 受領, 敢耐해야 하는 것 (65). 드디어 청승 맞은 소리 내며 돌아가는 씨아가 제 前生이라 想定하는가 하면 (66), 그렇잖아도 가난하고 서러운데 疾病 등의 厄運일랑 뜻밖에 덮치는 일 없이 日常의 平衡이나마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지장세미’ 물의 中庸의 生理를 希願한다 했다 (67). ‘지장세미’ 라는 샘물은 일정한 수면을 항상 유지하는 바, 가뭄에도 좀처럼 마르는 일 없는가 하면 그렇다고 넘쳐흐르는 일도 거의 없고, 더구나 山北의 그 이름난 濟州市內의 ‘가락웃물’과는 서로 相應關係에 놓여 있어서 어찌다가 어느 한쪽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 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山北・山南이 提携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깔려 있기도 하다.

|        |        |
|--------|--------|
| ⑥ 남집에도 | 현웃이 좋다 |
| 물집에도   | 현웃이 좋다 |
| 현웃입엇당  | ㄱ진웃입어도 |
| 석선보난   | 현석시라라  |
|        | (98)   |

〈語釈〉 나무 지기에도 현웃이 좋다

127) 西歸浦市 西烘洞에 있는 샘. 좀처럼 마르는 일이 없고 水面은 언제나 잔잔하며 재미 있는 胡索묘(혹은 고통달) 傳説이 깃들여 있음.

|        |         |
|--------|---------|
| 물 지기에도 | 현웃이 좋다  |
| 현웃 입었다 | 새웃 입어도  |
| 바탕은 보니 | 한 바탕이더라 |

|         |       |
|---------|-------|
| ⑥9 본더즈낙 | 어둡는집의 |
| 오늘이엿    | 붉은때하랴 |
| 어둡경은    | 밤이엿말라 |
| 밤도아니    | 어두워러라 |

(86)

〈語釈〉 본더 저녁                      어둡는 집에  
 오늘이라고                      밝은 때 하랴  
 어둡거든                      밤이라 말라  
 밤도 아니                      어두워러라

|         |       |
|---------|-------|
| ⑦0 소섬으랑 | 지등삼곡  |
| 칭산으랑    | 문을돌곡  |
| 한두물에    | 물밀려오듯 |
| 새끼칭산    | 누울린다  |

(821)

〈語釈〉 소섬<sup>128)</sup> 일랑                      지등 삼고  
 칭산<sup>129)</sup> 일랑                      문을 달고  
 ‘한두물’<sup>130)</sup>에                      물 밀어 오듯  
 ‘새끼칭산’<sup>131)</sup>                      누우른다

128) 牛島,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로서 城山浦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6,646㎡의 附屬島嶼.

129) 城山日出峰.

130) 北濟州郡 城山邑 城山里와 吾照里 사이에 있는 바다.

131) 城山日出峰 옆에 있는 자그만 봉우리.

- ⑦① 우리가 이영저영하당  
 혼번어차 실수뻔민  
 우알등을 무꺼놓고  
 소방산천 쳄대우회  
 등시령하계 올려놓꼭  
 공동묘지 잘적의는  
 어느야님이 날막아주멍  
 어느부모가 날막아주리  
 (863)

〈語釈〉 우리가 이리저리 하다가  
 한번 어차 실수 되면  
 위 아랫 등을 묶어 놓고  
 小方狀 ‘쳄대’<sup>132)</sup> 위에  
 등그스름히 올려 놓고  
 공동 묘지 갈 적에는  
 어느야 님이 날 막아 주며  
 어느 부모가 날 막아 주리

- ⑦② 너른바당 앞을재연  
 한길 두길 들어가난  
 흥합대합 뻐쪽뻐쪽  
 미역귀가 너울너울  
 미역에만 정신들연  
 미역만 한단보난  
 숨막히는중 물람구나  
 (836)

〈語釈〉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길 두길 들어가니

132) 보통 ‘대패목’이라 하는데 喪喪아래 양 옆에 매어 놓아 앞뒤로 길게 뻗치는 채.

|         |        |
|---------|--------|
| 홍합 대합   | 빼죽빼죽   |
| 미역귀가    | 너울너울   |
| 미역에만    | 정신 들어  |
| 미역만     | 하다가 보니 |
| 숨 막히는 줄 | 모르는구나  |

제주도민들의 勤儉・質朴・不屈의 意志와 목숨 걸고 生業에 부딪치는 悲壯과 不敗의 기백이 넘치는 노래들이다. 勤儉・質朴은 도민의 생활 그 자체이며, 衣食은 불가피한 수단일 따름이지 그 자체를 즐긴다는 의미는 없다(68,69). 밤도 밤이 아니요, 밤이라고 어디 어둡겠는가 逆說하는 도민들이다. 저녁밤도 늘 늦어야 正常이지 일찍 치름은 오히려 正道에서 벗어난다(69). 身命 걸고 생활에 투신하는 해녀들의 의지와 스스로 생활을 이겨내는 신념이 번득이는 〈海女노래〉 세편(70・71・72). 해녀들이 노를 저어 나가면서 視野에 펼쳐지는 섬, 소섬은 기둥이요 城山日出峰은 門이라 했으니, 그 浩然是 巨人說話, 〈설문대 할망〉의 發想法를 방불케 한다. 해녀들에게는 바다나 섬들도 집안으로 둔갑한다. 해녀들은 바다를 마당처럼 밟처럼 보면서 그들의 일터는 韓國・日本・中國・소련 등 아세아 4개국에 뻗었었으니, 제주도는 분명 섬이지만, 섬의 한계를 뛰어넘어 광활한 발을 지녔던 것이다.

지난날 제주도민의 삶은 不利한 여건으로 첩첩 쌓여 짓눌렸었지만, 그들은 이를 實情으로 受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悽切, 痛憤에 직면하면서도 도민들은 패배하고 까무라쳐지지는 않았다. 深淵 모를 悽切에 통달하면서 그 처절의 極限을 박차고 나서고는 차돌 같은 意志와 氣魄, 悲壯할 만큼의 強靱함이 민요 사설속에서 역력히 숨쉰다. 이는 민요가 지니는 바 不可思議한 힘이요, 소중한 기능이다. 이 생생한 기능은 특히 제주도민요 각편에서 엄연히 생동한다.

## (2) 自彊・力行的 精神

갖은 어려움을 忍苦하며 勤勉・節儉함으로써 逆境에 不屈하는 도민들

에게는 또한 自主自立으로써 自尊하며 自彊하는 의지와 守分, 知足하면서 實實에 터전하여 力行함으로써 생활을 이겨나가는 패기가 끈질기게 흐른다.

- |   |      |       |
|---|------|-------|
| ㉓ | 집신년덜 | 집자랑말라 |
|   | 어욱닷뭇 | 새닷뭇들연 |
|   | 짓언보난 | 삼간이라라 |
|   |      | (59)  |

|      |         |         |
|------|---------|---------|
| 〈語釈〉 | 집 있는 년들 | 집 자랑 말라 |
|      | 참억새 닷뭇  | 떠 닷뭇 들어 |
|      | 지어 보니   | 삼간이더라   |

- |   |      |        |
|---|------|--------|
| ㉔ | 원의아덜 | 원인채말라  |
|   | 신의아덜 | 신인채말라  |
|   | 현자리에 | 현배게 배난 |
|   | 원도신도 | 저운새웃나  |
|   |      | (63)   |

|      |       |          |
|------|-------|----------|
| 〈語釈〉 | 員의 아들 | 員인 채 말라  |
|      | 臣의 아들 | 臣인 채 말라  |
|      | 현 자리에 | 현 배게 배니  |
|      | 員도 臣도 | 두려운 바 없다 |

- |   |      |        |
|---|------|--------|
| ㉕ | 나륙쌀이 | 낭지페가명  |
|   | 산뿔쌀이 | 물지페가랴  |
|   | 그밤훈술 | 널주어시민  |
|   | 낭글지나 | 물지 나흐쥬 |
|   |      | (78)   |

|      |      |          |
|------|------|----------|
| 〈語釈〉 | 벼쌀이  | 나무 지려 가며 |
|      | 밭벼쌀이 | 물 지려 가랴  |

|        |          |
|--------|----------|
| 그 밥 한술 | 날 주었으면   |
| 나무를 지나 | 물 지나 할 걸 |

|         |        |
|---------|--------|
| ㉞ 하니 브름 | 한서밤칩의  |
| 빚져 먹은   | 장네도웃다  |
| 빚져 먹은   | 워래도웃다  |
| 울려 온댕   | 제소린나도  |
| 등을 굽어   | 의 엄에들라 |

(66)

|      |        |                           |
|------|--------|---------------------------|
| 〈語釈〉 | 하니바람   | 한서밤 집에                    |
|      | 빚져 먹은  | ‘장네’ <sup>133)</sup> 도 없다 |
|      | 빚져 먹은  | ‘워래’ <sup>134)</sup> 도 없다 |
|      | 울려 온다고 | 笛 소린 나도                   |
|      | 등을 굽어  | 구석에 들라                    |

|        |        |
|--------|--------|
| ㉞ 죽엄가민 | 씩어질 꿩기 |
| 산때미영   | 남이나깨라  |
| 미정 꿩정  | 밥줄인 셔도 |
| 미정 꿩정  | 옷줄인웃다  |

(44)

|      |         |           |
|------|---------|-----------|
| 〈語釈〉 | 죽어 가면   | 씩어질 고기    |
|      | 산 때 움직여 | 남이나 괴어라   |
|      | 밧든 귀엣든  | 밥 줄 인 있어도 |
|      | 밧든 귀엣든  | 옷 줄 인 없다  |

133) 주로 中山村에서 絶糧期에 貧寒農家가 富豪農家에서 곡식을 꾸어 먹었다가 한철 농사가 지난 다음 갚는 일. 보통 조나 보리를 꾸었다가 밭벼나 메밀 등으로 갚거나 같은 곡식이면 利子조로 1割쯤을 덧붙여 갚는데, 國家에서 貸與했던 還上과는 다르다. 長利.

134) 農家에서 이웃끼리 곡식 따위를 좀 꾸었다가 갚는 일. 조금만 꾸었다가 더 보태지 않고 일른 갚는 점이 ‘장네’와는 다르다.

自主・自立・自足・自尊・自如・自辨・自彊의 意志가 內在된 작품들이며 實情・實質을 바탕으로 躬行을 신조로 드러내는 好詞들이다.

집 한채쯤 가졌다고 거드름 뽐 거리가 못 되는 것이 家屋新築은 如反掌이라는 自辨의 뜻이 어리는가 하면 (73), 원님이나 신하의 자녀라고 藉勢 부리는 꼴을 비꼬면서 그들에게 무조건 승복하는 서민들의 非自主的 思考를 訓諭한다.(74). 귀했던 白米를 통하여 力行第一의 哲理을 읊는가 하면, 權勢앞에 무릎 꿇기보다 그들과는 平行線的인 채 自足, 自尊함이 보람차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다 (75).

肉身은 가면 塵土化되는 것, 살았을 때 死力 다해 勤勉, 力行으로써 自助, 利他하려는 생활철리도 철통같다 (76).

|    |        |      |
|----|--------|------|
| ⑦⑧ | 요농국을   | 지어다곤 |
|    | 우리나라   | 바칠농스 |
|    | 전배독선   | 하실농스 |
|    | (1077) |      |

|      |       |       |
|------|-------|-------|
| 〈語釈〉 | 요 農穀을 | 지어다간  |
|      | 우리 나라 | 바칠 농사 |
|      | 전배 独船 | 하실 농사 |

|    |       |       |
|----|-------|-------|
| ⑦⑨ | 큰부젠   | 하늘엿부제 |
|    | 작은부젠  | 오곰엿부제 |
|    | 오곰엿 톱 | 오곰엿 톱 |
|    | (73)  |       |

|      |        |        |
|------|--------|--------|
| 〈語釈〉 | 큰 부자는  | 하늘엿 부자 |
|      | 작은 부자는 | 오곰엿 부자 |
|      | 오곰엿 톱  | 오곰엿 톱  |

美望・抗拒를 自慰・自尊으로 이끌면서 守分과 實質에 더전하여 충실하게 力行해 나가는 의지가 보인다. 進上은 지난날의 도민 생활에서 衣

食住와 다툼 없는 무게를 지녔었다. 그것은 史籍에 전하는 進上品目の 예만 보더라도<sup>135)</sup> 곧 수궁이 간다. 도민들은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외로는 貢賦와 賦役을 위해 살았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니까 <타작노래>속에서마져 이 農穀을 짓는 뜻은 나라에 바치는 것이 첫째라고 노래한다<sup>136)</sup> 따라서 天賦의 大富豪란 도민이 꿈꿀 수 없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고 貢賦에 부치지 않을 小富豪면 족한 것이다. 安分知足하면서 위대하게 승리하지는 못하나마 까무러쳐져서 패배하지는 않는다. 오금을 오그렸 다 폼다 하는 꾸준한 力行으로써 알찬 생활을 다져나가는 것이 도민의 叡智요 哲學이다<sup>137)</sup>.

|    |         |        |
|----|---------|--------|
| ③〇 | 오름에돌광   | 지세어멍은  |
|    | 둥글어맹기당도 | 살을메난다  |
|    | 놈의철광    | 소낭괴브름은 |
|    | 소린나도    | 살을메웃다  |
|    | 버룩버룩    | 살마꽃은   |
|    | 하를피영    | 웃어나진다  |
|    | (557)   |        |

|      |                           |                          |
|------|---------------------------|--------------------------|
| 〈語釈〉 | ‘오름’ <sup>136)</sup> 에 돌과 | ‘지세어멍’ <sup>137)</sup> 은 |
|      | 굴러다니다가도                   | 살 도리 난다                  |
|      | 남의 첩과                     | 소나무 바람은                  |
|      | 소린 나도                     | 살 도리 없다                  |
|      | 번듯번듯                      | 半夏꽃은                     |
|      | 하루 피어                     | 없어나진다                    |

제주도민들은 外華內虛한 바람을 제쳐 두고 外虛內華한 돌의 생리를 택했다. 봉우리의 돌은 바로 本妻의 생리 그것이어서 갖은 苦難 다 겪으며

135) 李元鎮; 《耽羅志》貢獻條, 1663. 「世宗實錄」地理志.

136) 岳·峰, 곧 제주도의 경우는 漢驛山 둘레 및 島一圖에 걸쳐 불쑥불쑥 솟은 寄生火山(側火山)을 일컫는 말.

137) 貞節을 잘 지키면서 집안 일을 착실히 다스리는 本妻.

쓸쓸히 굴러다니다가도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살 도리가 생기는데, 소나무 가지에 부딪쳐 우는 바람은 小室처럼 겉으로는 야단스러울 만큼 華奢하면서도 끝내는 살 도리라곤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小室과 바람의 外華內虛性은 하루쯤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는 半夏꽃이 결들이어 새삼 강조되면서 그 歌意는 한층 돋보인다.

‘石多’는 제주도민의 實情이요, 그들은 好惡間 돌을 天惠의 資產으로 受領했다. ‘오름’ 비탈에 놓인 돌들은 年年歲歲 갖은 風寒暑濕을 숙명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忍辱으로써 勘耐한다. 흔히 장님·병어리·堅固·沈默 등으로 적유되는 돌은 銳敏·自由·虛僞에 찬 바람과는 대척적으로 安分知足할 줄 아는 安定感이 있다. 多孔質의 玄武岩이라 뼈끔뼈끔 구멍이 뚫렸음은 도민들의 痛恨을 말해 주는데 실정을 외면하거나 허황된 꿈에 허덕임이 없는 質朴·儉素의 바탕이 깔렸다. 質朴·慘憺의 ‘오름’의 돌이지만, 그런대로 남에게 기쁨이 없이 묵묵히 自力으로 實存하고 긴 세월을 自彊의 의지로써 忍苦하면서 不屈의 精神을 기른다. 돌의 哲理는 역사가 있어온 이래, 連綿히 도민의 의지를 키워 온 自彊不息의 주민의식이다. 돌의 美學은 제주도민의 哲學이다.

이제까지 제주도 女性勞動謠를 통하여 확인되는 도민의식의 大本은 ‘自彊不息意識’임을 살펴 보았는데, 다음에 이를 간추려 본다.

① 민요를 통하여 도민의식을 살필 수 있는 근거는 민요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 있다. 庶民的, 自足的, 機能的, 地域的이라는 민요의 특성에 따라 민요는 그 지역 특유의 實相과 지역민의 心意現象을 보여 준다.

② 제주도민요는 縱橫으로 본 제주도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드러낸다는 관점에서 제주도의 유다른 風土·歷史를 간추려 보면 지난날의 도민 생활은 被壓과 苦難의 삶이었음이 확인된다.

③ 勞動謠는 제주도민요의 主軸을 이루면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동요 거의가 婦女謠다. 勞動謠와 婦女謠가 이처럼 술하다는 사실은 제주도적인 地理·歷史·社會的 實相에 근거한다. 곧 메마른 땅에서 눈물의

역사와 싸우면서 悲嘆하여 쓰러지지 않고 한사코 忍苦, 不屈하며 自彊, 力行해 나가는 도민의 生活哲理가 짙다는 근거가 된다.

④ 제주도민요에 드러난 心意現象을 사실 제재의 집제로 살펴 볼 때에도 ‘勞動生活’과 ‘勞動苦’가 짙은 비율을 이루므로, 역시 도민들이 勤勉하면서 自彊不息하는 의식을 강조해 주는 터이다.

⑤ 도민의식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노동요의 사설을 간추려 내고 이들에게 공통되는 바 도민의식을 집약해 보니, 悲痛・痛恨・宿命・忍辱・忍苦와 節制・儉素・質朴・節儉・不敗 등인데 ‘忍苦・不屈의 意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⑥ 한편 그 사설 속에는 自主・自立・自尊・自彊와 더불어 安分知足으로써 羨望・事大를 누르고 實質에 터전하면서 力行으로써 生活을 개척해 나가는 ‘自彊・力行意識’이 드러난다.

⑦ 요약컨대 제주도 노동요에 드러난 바 두드러진 도민의식은 ‘忍苦・不屈意識’과 ‘自彊・力行意識’ 및 ‘自主・守分意識’이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自彊不息意識’인 것이다. 이는 곧 갖은 艱難에 대처하면서 實情은 實情대로 받아들여 말없이 安分知足하며 不屈하는 돌의 哲理로 비유된다.

## V. 韓國民謠에 있어서의 濟州島民謠의 位置

제주도가 지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민요에서 차지하는 제주도민요의 비중은 뚜렷할 뿐더러, 그 특성도 현저하다. 그렇지만, 한국민요 전반에 걸친 자료 수집과 고찰이 아직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제재이므로 이 나라 민요에서 제주도민요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규명하기란 아직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本格的인 考究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논문에서 論旨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논의했던 바를 토대로, 제주도민요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特性을 요약함으로써 한국민요에 있어서의 位置도 요약해 볼까 한다.

(1) 제주도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가 드물 만큼 민요가 풍성히 전승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勞動謠의 종류가 많고 特有的 謠種도 상당량에 이르는가 하면 口演되는 사실 역시 풍부하다.

(2) 또한 제주도민요에서는 婦女謠의 분량이 상당할 뿐더러, 그 文學性으로 보더라도 뛰어나다. 婦女謠의 優勢는 세계 어디서든 공통되는 현상이요, 한국민요의 특징의 하나라 보기도 하지마는, 특히 제주도민요에서는 강조할 만하다.

(3) 제주도민요의 사실 가운데는 國文學 古典詩歌에 대비할 만큼의 詩的인 깊이를 지니는 경우가 흔하다. 口口傳承이 그 속성인데도 민요 사설에서 짙은 文學性이 드러남은 주목해야 한다. 본토 민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훌륭한 措辭가 특히 〈맷돌·방아노래〉 등에서는 흔히 보인다. 이점은 이 논문에서 이제까지 예로 들었던 사실의 표현을 유심히 보더라도 대체로 납득이 될 것이다. 그 秀逸性은 한두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어디서든 공통되는 口傳詩歌의 특징인 지나친 語句의 反復과 常套의 慣用語의 남용이 제주도민요에서는 거의 배제되었다. 深奧하고도 含蓄的인 표현으로써 口傳文學이 文學以前이라는 통상관념을 불식하는

데 제주도민요가 實證하는 바 만만치 않다 할 것이다.

(4) 本土 民謠에서는 A지역의 민요와 B지역의 민요 사이에 相互 交流되어 그 類似性이 농후하지 마는, 제주도민요에서는 그 個性이 두드러져서 특수한 謠種과 사설이 다량 전승된다. 제주도민요의 특이성이 이처럼 현저함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생활 자체가 유다른 개성을 띤다는 점에 基因하는 줄 안다. 물론, 제주도민요에서도 唱民謠이거나, 산만한 작업에 따른 勞動謠의 사실에서는 본토민요와의 交流가 더러 이뤄지지만, 제주도 고유의 것이 主流임은 분명하다. 이는 곧 제주도민요가 本源性을 떠면서 韓國民謠의 資產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고 본다.

## Ⅵ. 結 論

庶民生活 전반과 직결되는, 가장 서민적 口傳文學인 民謠 가운데서도 개성 짙은 濟州島民謠를 特性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 位相을 밝힌 터전위에 특히 女性勞動謠의 實相과 이에 드러난 庶民意識을 가능한 방법으로 살펴 보았다. 濟州島의 本源的 民謠를 대상으로 분류를 꾀해 보았고, 대표적인 여성노동요<sup>138)</sup>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의 분석을 통하여 이를 韓國文學의 重要 장르로 다루어야 할 文學의 價値를 확인함과 더불어, 지난날 도민의 삶의 지혜와 이에 드러난 重要한 島民意識을 추출해 보았다. 그 논의 결과를 結論 삼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濟州島民謠의 位相에 터전하여 그 분류를 시도했다. 모든 지역의 모든 민요는 각각 機能的, 庶民的, 地域的 特性을 길게 띠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分類法은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그 分類基準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민요의 實相으로 보아 機能 위주의 분류를 적용하고 勞動謠와 非勞動謠로 우선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다. 제주도 노동요는 도민들의 傳來的 生業樣相과 관련하여 農業謠·製粉謠·漁業謠·冠網謠·伐採謠·雜役謠로 크게 나눌 수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요 외로는 儀式謠, 唱民謠(非機能謠) 등이 있다. 30 여종에 이르는 노동요 가운데 〈海女노래〉를 비롯한 〈발 밟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마소 모는 노래〉·〈멧목 짓는 노래〉·〈나무 내리는 노래〉·〈꿀 베는 노래〉·〈양태노래〉·〈탕전노래〉·〈망전노래〉·〈방앗돌 굴리는 노래〉·〈토불미노래〉·〈디덤불미노래〉·〈뚝뚝불미노래〉·〈집줄 놓는 노래〉·〈짚 두드리는 노래〉 등은 고유의 생업과 함께 제주도에서

138) 地域마다 民間生活이 다르므로 그 代表的 民謠도 다를 수밖에 없다. 慶北地方의 女性勞動謠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길쌈노래다.(趙東一;《慶北民謠》, p. 102. 螢雪出版社. 1977.)

만 유독 전승된다.

本源的일 뿐더러 文學的 가치가 특출한 수많은 〈맷돌·방아노래〉와 세계에 유례 없는 〈海女노래〉의 전승은 제주도민요의 優秀性을 보장해 준다. 특히 〈海女노래〉는 노를 저으며 부르는 〈맷노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제주도민요의 主宗인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古今東西 同軌인 最古, 普遍의 謠種이다.<sup>139)</sup>

(2) 제주도민요의 白眉인 〈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 農耕 樣相의 특수성과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한둘이 호젓이 無我之境에서 노래할 수 있는 맷돌질의 분위기 때문에 훌륭하게 전승된다.<sup>140)</sup>

〈맷돌·방아노래〉사설의 各篇은 2音步 1行씩의 2行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 定型이며, 각편을 불러 가는 순서는 정해 있지 않고 이따금 接續에 따른 併行體(parallelism by linking)가 작용될 뿐이다. 〈맷돌·방아노래〉의 사설 내용은 勞動實態보다 대부분 日常情意에 쏠리고 있다. 그 일상적인 생활감정이란 실로 광범해서 제주도 농어민의 가정과 사회에 걸친 생활전반에 미친다. 거기에는 詩的 香薰이 깃든 사설들이 꽤 보이고, 이는 도민의 深層意識을 살피는 데도 稀貴한 자료가 된다.

(3) 제주도에는 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海女가 밀집되었을 뿐더러, 그들은 生動感이 넘치는 〈海女노래〉를 부른다. 本來的인 〈海女노래〉는 이 세상에서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면서 〈맷돌·방아노래〉와 함께 제주도민요의 雙璧을 이룬다. 〈海女노래〉는 노를 젓는 동작과 밀착된 채口演됨으로써 작업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뚜렷하다.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사설의 제재는 해녀작업의 실태와 海外出稼로 大分되는데 한결같이 身命을 걸고 생업에 임하는 숙연함과 차돌 같은 不屈의 의지가 한결같고, 力動的이며 直說的인 색채가 짙다.

139) 《舊約聖書》판판기 16장 21절, 〈마태복음〉24장 40·41절 등에도 맷돌·방아질 및 〈맷돌·방아노래〉에 대한 귀절이 보인다.

140) 이 점은 慶北地方에서 길쌈하며 부르는 술한 叙事民謠의 傳承 機緣에도 해당된다.

(4) 제주도의 여성노동요를 통하여 현저히 나타나는 도민의식은 自彊不息意識임이 확인된다. 제주도민요에 勞動謠와 婦女謠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지리·역사적으로 중첩되는 갖은 苦難의 삶을 지혜와 의지로 이겨내는 가운데 한사코 忍苦하며 力行하는 도민들의 生活哲理과 직결된다. 제주도 노동요의 제재로 보더라도 고되고 보람찬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또한 도민들이 勤儉하면서 굳세게 스스로를 지켜온 증거다. 도민의식이 현저한 여성노동요의 자료를 통하여 그 의식의 共通因子, 곧 平均的 濟州人의 集團性格을 추출한 결과 ‘忍苦不屈意識’과 ‘自彊力行意識’, 곧 ‘自彊不息意識’으로 압축되었다.

이 自彊不息의 정신은 지난날 세찬 고난이 몰아쳤던 彈丸海島 제주를 지켜온 철두철미한 저력의 불가사의다. 또한 이 정신은 제주인들이 매마른 땅에서 朝鮮末期까지 눈물의 역사를 겪으면서 역세게 다져진 도민 특유의 存在樣式이다. 피압박의 역사는 土豪의 橫暴, 중앙 정부 및 관리의 등쌀과 수탈, 貢物 마련과 그 輸送의 어려움, 혹심한 賦役, 蒙古兵의 침해 및 倭寇의 侵奪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필자가 오랫동안 제주의 민요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수집하여 확인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전승자들의 고난의 삶과 이에 대처하는 강렬하고 굳건한 생각을 확증한 바탕 위에 쓰여졌다. 그러나 제주인이 본 제주도민요라는 점에서, 들이굽는 心思를 누를 길 없어 附會한 점 또한 없지 않을 줄로 안다.

어디서든 통용되는 民謠 연구의 學問的 方法論이 전형적으로 정립되기 지극히 어려움은 우선 민요 자체가 지니는 속성에 基因하는 줄 안다. 이 점은 같은 口傳文學이지만 그 방법론이 이미 확고해진 說話 연구와 대비해도 크게 거리가 있다. 그래서인지 1920년대부터 한국에서도 민요의 경우 비록 비체계적으로나마 金素雲 이래 그 자료 수집만은 다른 口傳文學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그 연구 성과는 부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평생 민요 연구로 일관한 先政者나 同學들도 드문 실정이므로 필자 역시 바람직한 방법론을 못 찾은 채 큰 성과 없이 오늘에 이

르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요 연구가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위에, 국내 각 지역의 민요 자료 수집과 그 연구가 체계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과, 그 배경 분석에 중요한 濟州島研究가 크게 진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이 연구 진행의 장애였다. 그런대로 한 지역의 민요를 집중적으로 직접 채집하고, 女性勞動謠가 도민의 生産活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전승자들의 實生活과 口演實況에 거둬 되풀이하며 확인한 위에서, 사실을 중심으로 한 實相의 基幹을 밝히고 島民意識의 大本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다소의 이바지가 될 줄 스스로 믿는다. 民謠를 前文學 혹은 非文學으로 다루거나 자칫 化石・殘留・脫歷史・蕪雜視하는 오해를 배제하는 데도 하나의 實證의 資料가 될 줄 믿으며, 濟州島研究 및 女性研究에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국 민요 분석의 바람직한 方法論 定立이 촉급한 대로 민요 연구의 과제는 울창한 숲속에 선 듯 山積돼 있다. 서민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민요 各篇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민요 전반을 종류 단위로 한 다각적인 연구, 韻律이나 文體 등 그 形式 분석, 사실에 나타난 낱말의 바른 분석과 락과 사실과의 상관성 분석, 다른 口傳文學과의 交流實態 연구, 記錄文學 특히 國文學 작품과의 對比 연구, 국내외 여러 지역 민요와의 비교 연구 등 과제는 아직도 많다. 이 緊要하고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口傳文學研究에 召命感을 지니고 헌신할 많은 同學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필자 또한 이 논문에서 미진된 작업들은 近刊의 單行本에서 다룰까 하며, 제주도 중심의 韓國民謠 및 童謠研究를 필생의 과업으로 즐기치게 이어갈까 한다. 이 모든 분석 작업에 앞서 火急한 일은 물론 전국 민요의 충실한 채록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일이라 본다. 社會改變으로 말미암아 겨레의 精華인 소중한 자료가 湮滅 직전에 놓였음을 중시하여, 民族的 차원에서 획기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조사 채록 작업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황에 직면하여 우선 제주도민요, 그것도 女性勞動謠를 중심연구로 국한한 것은, 실은 이로

濟州島民謠研究

씨 專修의 구실을 면함이 아니라, 《濟州島民謠研究 上》이래의 힘겨운  
짐을 벗어 보려는 뜻임을 밝혀 둔다.

## 參 考 文 獻 目 錄

- 「高麗史節要」, 민족문화추진회, 1968.
- 高晶玉; 「國語國文學要講」, 大學出版社, 1949.
- \_\_\_\_\_ ;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 「口碑文學」,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1981.
- 「口碑文學調查方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具滋均·孫洛範·金亨奎; 「國文學概論」, 一成堂書店, 1948.
- 權寧徹; 「瓶窩李衡祥研究」, 韓國研究院, 1978.
- \_\_\_\_\_ ; 「閨房歌辭研究」, 二友出版社, 1980.
- 金起東; 「國文學概論」, 進明文化社, 1976.
-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 \_\_\_\_\_ ; 「韓國歌謠의 研究·續」, 二友出版社, 1975.
- 金富軾(金鍾權譯); 「三國史記」, 先進文化社, 1969.
- 金思燁·崔常壽·方鍾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 金尙憲; 「南槎錄」, 1601.
- 金錫翼; 「耽羅紀年」, 1918.
- 金聖培 外;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61.
- 金聖培; 「香頭歌·成造歌」, 正音社, 1975.
- \_\_\_\_\_ ; 「한국의 민속」, 集文堂, 1980.
- 金素雲; 「朝鮮童謠選」, 岩波書店, 1933.
- \_\_\_\_\_ ; 「朝鮮口傳民謠集」, 第一書房, 1933.
- \_\_\_\_\_ ; 「口傳童謠」, 博文書館, 1940.
- \_\_\_\_\_ ; 「韓國의 口傳童·民謠」, 中央日報, 1981.
- 金順濟; 「韓國의 옛 노래」, 好樂社, 1982.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濟州島民謠研究

- 金榮教；「濟州島民謠研究 上」，一潮閣，1965。  
\_\_\_\_\_；「濟州島民謠의 特色」，濟州大學，1964。  
金 淨；「濟州風土錄」，1519。  
金泰能；「濟州島史論攷」，世紀文化社，1982。  
金宅圭 外；「韓國民俗研究論文選 (I·II)」，一潮閣，1982。  
淡水契；「增補耽羅誌」，1954。  
「東國輿地勝覽」，東國文化社，1958。  
박두진；「한국전래동요독본」，울유문화사，1962。  
徐元燮；「鬱陵島民謠와 歌辭」，螢雪出版社，1979。  
徐廷柱；「詩文學原論」，正音社，1975。  
石宙明；「濟州島文獻集」，서울신문사，1949。  
成慶麟·張師助；「朝鮮의 民謠」，國際音樂文化社，1949。  
成慶麟 外；「民謠三千里」，省音社，1968。  
梁柱東；「麗謠箋注」，乙酉文化社，1954。  
呂榮澤；「울릉도의 傳說·民謠」，正音社，1978。  
「譯註高麗史」，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1971。  
李 健；「濟州風土記」，1635。  
李基文；「俗談辭典」，民衆書館，1962。  
李能和；「朝鮮女俗考」，學文閣（複寫），1968。  
李杜鉉·張壽根·李光奎；「韓國民俗學概說」，民衆書館，1975。  
李秉岐；「國文學概論」，一志社，1961。  
李丙疇；「杜詩研究」，探求堂，1970。  
李相寶；「韓國古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1975。  
李元鎮；「耽羅志」，1653。  
李齊賢；「益齋集」1，民族文化推進會，1979。  
李昌培；「韓國歌唱大系」，弘人文化社，1976。  
李泰極；「時調概論」，새글사，1974。  
李衡祥；「南宦博物」，1703。

- 李衡祥；「耽羅狀啓」，1703。
- 任東權；「韓國民謠集 I～VI」，東國文化社・集文堂，1961～1981。
- \_\_\_\_\_；「韓國民謠史」，正音社，1969。
- \_\_\_\_\_；「韓國民謠研究」，宣明文化社，1974。
- \_\_\_\_\_；「韓國婦謠研究」，集文堂，1982。
- 林和・李在郁；「朝鮮民謠選」，學藝社，1939。
- 張德順 外；「口碑文學概說」，一潮閣，1971。
- \_\_\_\_\_；「韓國口碑文學選集」，一潮閣，1977。
- 張德順；「韓國文學史」，同和文化社，1977。
- 張師勛；「國樂概論」，精研社，1961。
- 鄭東華；「韓國民謠의 史的研究」，一潮閣，1981。
- 정병욱；「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1977。
- 趙東一；「敘事民謠研究」，啓明大學，1970。
- \_\_\_\_\_；「慶北民謠」，螢雪出版社，1977。
- \_\_\_\_\_；「우리 문학과의 만남」，弘盛社，1978。
- \_\_\_\_\_；「구비문학의 세계」，새문社，1980。
-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1969。
- 趙潤濟；「韓國詩歌史綱」，乙酉文化社，1960。
- 周王山；「朝鮮民謠概論」，中央中學，1947。
- 秦聖麒；「南國의 民謠」，濟州民俗文化研究所，1968。
- 「耽羅文獻集」，제주도교육위원회，1976。
- 「耽羅文化」第1・2號，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1982～1983。
-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1981。
- 「韓國文化史大系V，言語・文學史（下）」，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1967。
- 韓國文化人類學會；「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各道篇」，文化財管理局，  
1969～1981。
- 「韓國民俗大觀」全6卷，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1982。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12卷，文化財管理局，1981。

-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1980。
-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 資料篇」，精研社，1962。
- 「湖南文化研究」第4輯，全南大湖南文化研究所，1966。
-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省文社，1963。
- 黃涓江 外；「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產業社，1982。
-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Karpeles, M.,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3.
- Richard M. Dorson, *Folklore and Folk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Peter H. Lee, *Korean Literature: Topics and Themes*,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1965.
- Paredes, A., *Some Aspects of Folk Poetry*,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1964.
- Keneth W. Clarke, Mary W. Clarke, *Introducing Folklor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3. 註1
- G. Gorer, *The Americans: A Study in National Character*, 1948.
-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1946. 註2
- Curtis, N., *The Indians' Book*, Harper and Bios., New York and London, 1907.
- John Greenway, *Literature Among the Primitives*, Hatboro, Pensulvania, Folklore Associates, 1964.
- Cho Haejoang,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9.
- 市山盛雄；「朝鮮民謠の研究」，坂本書林，1927。
- 百田宗治；「童謠及民謠研究」，巧人社，1933。
- 竹友藻風；「民謠」，岩波書店，1934。
- 柳田國男；「民謠覺書」，創元社，1940。
- 泉靖一；「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1966。
- 仲井幸二郎；「日本民謠辭典」，東京堂出版，1972。
- 高橋亨；「濟州島の民謠」，天理大東洋學研究所（寶蓮閣頒布），1974。

参考文献

浅野建二；「日本の民謡」，岩波書店，1974.

和歌森太郎；「日本民俗学講座」全5巻，朝倉書店，1976.



**A Study of Women's Work Songs  
in Cheju Island**

by  
Kim Young-don



Cheju Island has a great many beautiful folk songs, which have been formed under the influences of beautiful environment and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ocial organization and culture, and which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mong them, women's songs (especially,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and "Women Divers' Songs") contain their most original basic elements and preserve most literary artistic qualities. In this dissertation, therefore, by analyzing the words of the two kinds of women's songs above mentioned the writer examines the true aspect of the women's work songs in Cheju Island and the core of the popular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Cheju Isl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1. First of all, the classification of the folk songs of Cheju Island is mad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s folk songs in every region preserve their functional, popular,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 have not as yet a criterion which is internationally accepted in classifying folk songs. Accordingly, we can not help setting up different criteria of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gions in which folk songs were produced and sung. In this respect, it seems to be proper that we should classify the Cheju Island's folk songs into work songs and non-work songs according to the criterion—whether they are sung while working or not.

Moreover, according to such criterion we can group the work songs into 6 classes: 1) farm working songs, 2) milling songs, 3) fishery working songs, 4) logging songs, 5) chores songs, 6) hat-making songs, and non-work songs can be divided into ceremonial songs and non-functional songs. ("Otollogi" is one of the well-known songs of the non-functional type.)

About 30 kinds of work songs have been sung in Korea, but more than half of them, for example "Women Divers' Songs," "Stepping-on-Seeds Songs," etc., have been sung only in Cheju Island. The transmission of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which are prominent in number and quality of content, and "Women Divers' Songs," which have no similar type throughout the world, show us the superiority of Cheju Island's folk songs.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and "Sailors' Songs" are considered as the typical and universal folk songs among those of all times and places, and "Women Divers' Songs" are also regarded as a kind of sailors' songs which are sung while rowing a boat.

2. The representative type of folk song,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has marvelous excellencies in its quantity and its literary qualities.



Island were not so happy even when their new son was born,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man would be destined to become the food of whales. All of these stories were melted down and condensed in every version of the folk songs,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consciousness of strenuous efforts and invincibility” in the minds of the people in Cheju Island. Thesedays Cheju Island has rapidly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and is involved in a swirl of rapid reformation. Therefore,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consciousness of the Cheju Island people will be effected as the result of these recent changes.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abundant and precious folk songs in Cheju Island. The value of many of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and “Women Divers’ Songs” can not be evaluated too highly. However, these valuable folk songs are still in danger of disappearance, and the subjects and problems awaiting examination and study are laid in heaps like a great Mt. Halla. In the future, many scholars at home and abroad will be expected to continue studying and examining this field of folk songs.

It seems that the peculiarities of the agriculture in Cheju Island and its atmosphere which permits one or two persons to sing songs in self-effacement for long times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oduction of a great many pieces of good folk songs. Every version of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are composed of 9 syllabled double couplets. The order of each version is not fixed; therefore, in singing, the order can be changed by parallelism by linking.

The content of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have connection not so much with the working itself as with the people's emotion and aspirations in their whole everyday life. Therefore, "Stone Hand Mill and Mortar Songs" can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s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the popular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Cheju Island.

3. In Cheju Island, we have the one and only "Women Divers' Songs" throughout the world. Women divers in Cheju Island (of course, they have women divers in Japan, but their numbers are quite small compared with those of Cheju Island) sing dynamic and powerful "Women Divers' Songs." As the performance of the song is given in connection with the actions of rowing, it exercises the function of promoting work efficiency. The major content of "Women Divers' Songs" is the women divers' life and their working activities in the sea, and also the songs describe the scene of leaving their home towns on the rowing boats for the Mainlan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women divers in Cheju Island began to extend their working places into the 4 Asian countries, that is the mainland of Korea, Japan, China, and Siberia. The words of the songs, which apparently show their indomitable spirit which formed through their work at the risk of their lives, preserve dynamic and outspoken characteristics.

4. The popular consciousness appearing apparently in women's work songs is "the consciousness of strenuous effort and invincibility." The fact that the work songs and women's songs predominate over other kinds of folk songs in Cheju Island tells us that the consciousness of strenuous effort and invincibility, which was formed throughout their life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and agonies caused by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ors, has formed the basis for their wisdom and philosophy of lif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themes and materials of the work songs in Cheju Island are connected with the people's painful but worthwhile life illustrates for us their strenuous and undefeated efforts in life. Even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women's work songs, the group character of the average people in Cheju